

북한 문학예술정책의 특성에 관한 연구

- 김정일 문예정책을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북한 문학예술정책의 특성에 관한 연구

- 김정일 문예정책을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연구관 김 윤 영

2006-16 책임연구과제

북한 문학예술정책의 특성에 관한 연구

- 김정일 문예정책을 중심으로 -

2006. 11. 29.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김 윤 영(문학박사)

[요약문]

북한의 문학예술(이하 문예)작품이 공식적으로 국내에 유입된 것은 월북·남북 작가들에 대한 해금조치(1988.7.19)와 ‘6.15남북공동선언’(2000)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계기는 북한 문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오는 전환점이 되었고,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연구물들이 출판되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북한의 문예관은 문예작품 자체가 가지는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김일성·김정일 부자 우상화와 체제강화 그리고 당과 정권의 정책 선전, 사회주의 혁명건설, 대남혁명 선전선동 등의 목적을 수행하는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북한 문예작품에 반영되고 있는 사회주의 선전에 대한 이해와 수용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나 비전문가들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탐독하게 됨으로써, 북한 문예작품의 저의를 간파하기 보다는 그 내용에 쉽게 동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수호해야 할 보안경찰은 북한의 문예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북한의 문예작품을 단순히 사회주의 체제나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여부를 따지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때문에 보안경찰이 북한 문예작품에 대한 문제점을 간파하여 독자들의 이해력을 제고시키고 설득하기 보다는 무분별하게 차단한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김정일이 문예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에게 요구했던 정책적 특성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보안경찰의 대응역량을 제언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사회주의 문예정책의 본질과 김정일의 문예정책의 체계화 과정을 고찰한데 이어서, 김정일 문예정책의 특성으로 문예

정책의 실제와 대응, 김정일 문예정책의 정치적 함의와 전망이라는 두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특히 전자에서는 김정일의 대남문예투쟁 지침과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보안경찰 책무와 대책을, 후자에서는 권력 세습 체제의 정당화와 지배담론의 전파와 문예정책의 지속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북한체제의 당대 사회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고 주고 있는 것이 문예정책이할 때, 북한의 문예정책을 연구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보안경찰의 활동에 필요한 북한 문예정책의 실상을 파악하여 그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사회실상과 남북문예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질화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선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문예에 필요한 정신적 영양소를 발견하고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지 않을 수 없다.

목 차

[요약문]

I. 서론	1
1. 연구 목적과 선행연구 검토	1
가. 연구의 목적	1
나. 선행연구의 검토	3
2. 연구의 방법과 개념	6
가. 연구의 방법	6
나. 문예정책의 개념	10
II. 북한 문예정책의 형성 배경	12
1. 사회주의 문예정책의 본질	12
가. 사회주의 문예정책의 기본 이념	12
나. 사회주의 문예정책의 특징	15
2. 북한 문예정책의 정립	18
가. 북한 문예정책의 기초	18
나. 북한의 초기 문예관	21
III. 김정일 문예정책의 변천 과정	30
1. 김정일의 초기 문예관	31
2. 김정일 문예정책의 체계화 과정	35
가. 주체문예의 형성기(1960년대)	35
나. 주체문예의 확립기(1970년대)	39
다. 주체문예의 완성기(1980-1990년대 초)	50
라. 주체문예의 강화기(1990년대 중반-현재)	62
IV. 김정일 문예정책의 실제와 대응	73
1. 대남문예투쟁 지침과 평가	73
가. 대남문예투쟁 지침	73
나. 대남문예투쟁 평가	79

2. 보안경찰의 책무와 대책	88
가. 보안경찰의 책무	88
나. 보안경찰의 대책	91
V. 김정일 문예정책의 정치적 함의와 전망	97
1. 문예정책의 정치적 함의	97
가. 권력 세습체제의 정당화	98
나. 지배담론의 진과	103
2. 문예정책 변화와 전망	109
가.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109
나. 문예정책의 향후 전망	116
VI. 결론	122
[참고 문헌]	125

[표·그림 목차]

<표 1-1> 분석틀: 김정일 문예정책의 특성	9
<표 2-1> 사회주의 문예정책	15
<표 2-2> 북한 문예정책의 기조	21
<표 3-1> 북한 문예정책의 변화 과정	30
<표 3-2> 조선문학예술총동맹	48
<표 3-3> 주체문예이론의 흐름도	53
<표 3-4> 예술창작에서 행해지는 실무지도의 과정	53
<표 3-5> 북한 문예정책의 사회주의 생명체론	57
<표 4-1> ‘조국통일’을 제재로 한 작품	83
<표 4-2> ‘반미적개심’을 제재로 한 작품	84
<표 4-3> ‘반인민적 사회제도’를 제재로 한 작품	85
<표 4-4> ‘민중생존권’과 ‘자주권’을 제재로 한 작품	86
<표 4-5> ‘파쇼독재 폭로 규탄’을 제재로 한 작품	87
<표 4-6> ‘사회민주화투쟁’을 제재로 한 작품	87
<그림 1> 반제민전의 구국전선 홈페이지	95

북한 문학예술정책의 특성에 관한 연구*

- 김정일 문예정책을 중심으로 -

I. 서론

1. 연구 목적과 선행연구 검토

가. 연구의 목적

북한의 사회주의혁명 건설과정에서 김정일이 가장 먼저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했던 부문은 문학예술(이하 문예)¹⁾ 분야이다. 김정일은 1960년대부터²⁾ 1970년대에 걸쳐 ‘문학예술혁명’을 주도하면서 문예이론의 정립과 함께 작가나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직접 지도하는 등 문예와 사상분야에서 그의 지위와 역할을 구축하여 왔다. 김정일은 이러한 경험의 축적을 통하여 문예정책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게 되었고, 집권 초기부터 문예정책을 자신의 통치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북한의 문예정책은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다른 부문활동과 마찬가지로 김일성의 영도적 역할을 찬양하고 구체화하는 수준에 급급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모든 문예부문의 이론적·실천적 기틀을 강화했던 시기였다.³⁾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을 기점으로 김정일 체제가 제

*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김윤영 (문학박사)

- 1) 북한은 대체적으로 문화예술을 문학예술로 지칭한다. 본 연구의 범위와 용어의 혼란을 피하고자,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핵심어인 ‘문예’는 ‘문학예술’의 준말로 사용하였다.
- 2) 1964년 12월 10일 김정일은 문학예술부분 일군들 앞에서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 창작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는 연설을 하였다(『김일성선집(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50면).
- 3) 김정일은 1990년대에 『무용예술론』(1990.11.30), 『건축예술론』(1991.5.21), 『음악예술론』(1991.7.17), 『미술론』(1991.10.16), 『주체문학론』(1992.1.20) 등 주체사상에 기초한 일련의 사회주의적 문예이론에 관한 다양한 저술들을 체계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하였다(김정일,

시하고 있는 정치사회적 변화 과정을 문예작품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김정일은 집권한⁴⁾ 후 문예정책을 통해 경제난과 북·미간 핵 갈등이라는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권력승계의 정통성 확립과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북한은 3년간의 ‘유훈통치기’(遺訓統治期)와 ‘강성대국건설기’(強盛大國建設期) 전반을 통하여 ‘수령형상창조’(首領形象創造)를 강조하는 다양한 장르의 문예작품을 인민⁵⁾들에게 창작·보급하는 등 김정일의 지도력을 부각시켜 위기국면을 극복하고자 했다.

북한의 문예정책은 문예가 가지는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우상화와 체제강화 그리고 당과 정권의 정책 선전, 사회주의 혁명건설, 대남혁명 선전선동 등의 목적 달성에 있다.⁶⁾ 이러한 의도가 반영된 북한의 문예작품은 6.15 남북공동선 이후 남북한 문예교류·협력을 계기로 우리사회에 전반에 확산되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북한 문예작품에 대한 이해와 분석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나 비전문가들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탐독하게 됨으로써, 북한 문예작품의 저의를 간과하기 보다는 그 내용에 쉽게 동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

『김정일 선집(10)』, 『김정일 선집(11)』, 『김정일 선집(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참조).

4) 1990년대는 북한에서 김정일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북한 사회주의 정권의 시조(始祖)이자 수령(首領)으로 지칭되어 왔던 김일성의 사망과 더불어 김정일은 권력을 세습하게 되었다.

5) 북한은 ‘인민’에 대하여 “나라를 이루고 사회와 역사를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주체로 되는 사람들. 혁명의 대상을 제외하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괄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조선말대사전(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1699면). 즉, 북한은 ‘인민’을 ‘사회주의 혁명’의 주체 계급으로 인식하는 계급적 용어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국적을 가진 사람”(『조선말대사전(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328면)을 의미하는 “국민”과 “그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조선말대사전(2)』, 287면)을 뜻하는 “주민”이란 용어와는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이 사용하는 인민(人民)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부득이 할 경우에는 주민으로 환치하여 사용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8년 9월 5일 개정) ‘제3장 문화’ 제39-42조 참조.

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수호해야 할 보안경찰 역시, 북한의 문예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북한의 문예작품을 단순히 사회주의 체제나 김일성부자를 찬양하는 여부를 따지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을 간과하여 독자들의 이해력을 제고(提高)시키고 설득하기 보다는 무분별하게 차단한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논문은 김정일이 문예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에게 요구했던 정책적 특성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보안경찰의 대응책을 제언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당대의 ‘생활 세부묘사’(生活 細部描寫)를⁷⁾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주체사실주의’라고 한다면, 김정일 체제가 처한 어려운 사회현실을 문예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북한사회 전반을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유용성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일의 문예정책에 대한 연구는 김정일 체제의 실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결국 북한 문예정책을 연구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북한의 사회실상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문예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질화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문예에 필요한 정신적 영양소를 발견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지 않을 수 없다.

나. 선행연구의 검토

남북분단 이후 국내의 많은 학자들이 북한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북한 문예 연구에 대한 관심을 두었으나, 북한의 문예담론에 대한 가벼움이나 색깔논쟁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으로 쉽게 포기

7) ‘세부묘사(detail)’는 문학예술작품에서 형상을 이루는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묘사를 의미한다 (『문학예술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2, 587면).

하는 사례가 많았다.

북한 문예정책이나 이론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8.15해방 전후의 문예정책을 해명하는데 중점을 두어왔다. 월북·남북 작가들에 대한 해금조치(1988.7.19)와 ‘6.15남북공동선언’(2000)은 북한 문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계기로 작용하여 다양한 연구물들이 출판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김일성의 ‘유일사상’(唯一思想)이 확립되기 전인 1967년 이전 시기나 1980년대 이전까지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⁸⁾

1990년대 들어서서 김정일의 문예정책이나 이론을 독립적으로 다룬 연구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우영의 “김정일 문예론 연구”⁹⁾, 통합문화연구소의 『김정일과 북한문화예술』,¹⁰⁾ 문화체육부의 『김정일 문예관 연구』,¹¹⁾ 이춘길의 『김정일의 문예관과 북한의 ‘문학예술혁명’정책 연구』,¹²⁾ 이우영의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¹³⁾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의 『김정일 문예관과 문예정책의 기본원리 연구』,¹⁴⁾ 박철우의 “김정일 문예정책의 변화과정과 변화전망에 관한 연구”,¹⁵⁾ 노재완의 “김정일의 문예정책에 관한 연구”,¹⁶⁾ 전영선의 『북한의 문학예술 운영체제와 문예이론』¹⁷⁾ 등이 있다.

8) 최근에는 1960년대 초까지의 북한에서 창작된 농민소설과 1950년까지의 해방기 북한 시문학 그리고 1950년대 전후소설과 이데올로기의 상관성 등을 주제로 하는 학위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나, 이들 연구 역시 김일성의 ‘유일사상’(唯一思想)이 확립되기 전인 1967년 이전 시기까지를 중점적인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일이 정권을 장악한 1990년대 소설문학에 대한 연구는 저조할 뿐만 아니라 단편적이고 해설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9) 이우영, “김정일 문예론 연구”(『통일연구논총』 2권 1호,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10) 통합문화연구소, 『김정일과 북한문화예술』, 서울: 통합문화연구소, 1996.

11) 문화체육부, 『김정일 문예관 연구』, 서울: 문화체육부, 1996.

12) 이춘길, 『김정일의 문예관과 북한의 ‘문학예술혁명’정책 연구』,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13) 이우영,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14) 한국문화정책개발원, 『김정일 문예관과 문예정책의 기본원리 연구』,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15) 박철우, “김정일 문예정책의 변화과정과 변화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0.

16) 노재완, “김정일의 문예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0.

이외에도 북한의 문예정책과 관련한 논문이나 간행물로서 이성걸의 “북한의 문예정책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김태철의 “북한의 문예정책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양옥순의 “북한 문예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1996), 이재인의 “북한의 문예정책의 고찰”(경기대학교 논문집, 1997), 황오연의 “북한의 문예정책과 남북교류 전망”(호남대학교 논문집, 1997), 이찬주의 “북한의 문예정책”(안보문제연구, 1997), 오양열의 “남북한 문예정책의 비교 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한정미의 “북한의 문예정책과 구비문학의 활용 양상 연구”(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정주이의 “북한 문예정책의 변화와 특성”(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등이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경향은 북한문예의 일반적 특성을 소개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여 왔다는 점에서 선행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김정일의 문예이론이나 문예관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북한의 문예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의 하나로 김정일의 문예관을 부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문예이론이나 정책이념과 목표 등 규범적 차원에서 기본 정책방향을 규명하고, 북한 문예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일의 문예정책의 변화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다보니 전면적이고 이론적인 분석이 미흡하였다. 다시 말해 기존 연구는 북한의 문학예술이 정치적 선전선동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김정일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 규명과 함께 북한 문예이론과 문예정책 그리고 예술의 현상과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개설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1990년대 김정일의 권력승계와 관련하여 문예작품에 투영된 문예정책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17) 전영선, 『북한의 문학예술 운영체계와 문예이론』, 서울: 도서출판 역락, 2002.

따라서 1990년대 북한의 문예정책 흐름은 김정일의 시대를 간파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논문 중 ‘김정일 문예정책의 실제’와 ‘정치적 함의’에서는 1980-1990년대의 문예작품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김일성 사망 후, 1990년대의 문예작품에 반영된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과정을 연구하는 작업은 선행연구들의 미흡했던 부분을 대신하고, 초기의 북한 문예정책의 연구와 최근의 연구 성과들을 연계시켜주는 가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 정권 초기에서부터 최근까지의 문예정책의 흐름에 대한 일정한 좌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방법과 개념

가. 연구의 방법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체사상’, ‘우리식 사회주의’, ‘혁명전통’, ‘유일사상체제’, ‘위대한 수령’ 등에 대한 용어를 모르고서는 북한사회를 논리적으로 파악한다거나 이해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북한의 특수 용어를 해석하는 작업이 북한사회의 전체 상을 그려내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북한사회 역시 사회주의 체제가 갖는 보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사회 전반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주의의 보편성과 특수성(독창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만 한다.¹⁸⁾

첫째, 북한 문예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문예사상으로 삼고 있는 소련의 영향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일

18) 심지연, “북한연구에 대한 역사적 접근”(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연구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3, 239-240면.

반성과 보편성을 그 토대로 하고 있지만, 남북분단과 6.25전쟁 그리고 남북대립이라는 상황 하에서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른 ‘주체문예 이론’이나 ‘종자론’, ‘속도전’, ‘수령형상창조’ 등과 같은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 시대의 문예정책을 보다 미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편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북한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과정 속에서 형성되고 표출된 특수성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주의 문예의 보편성을 띠고 있으면서 동시에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김정일 문예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역사적 접근법(historical approach)에 주목하려고 한다.¹⁹⁾

또한 이 논문이 김정일의 문예정책의 형성과정을 설정하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자원이 문헌이라는 점에서 문헌연구(文獻研究)를²⁰⁾ 통해 접근하려고 한다. 특히 북한의 문예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출판된 공식문헌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자유로운 접근이 극도로 제한된 폐쇄적인 사회일 뿐 아니라 외부의 연구자를 선별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헌을 통해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현실이다. 이 논문은 북한이 각종 문헌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는 문예이론과 정책 그리고 문예사, 비평 등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분석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자칫하면 북한 문예정책을 그들의 관점에서 해설하는 매개자로 전락 할 수 있다는

19) 역사적 접근방법이란 특정한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사건·기관·제도·정책 등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파악·설명하는 접근 방법으로 연구의 대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소위 발전론적 설명 방식을 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정치행정제도의 성격과 그 제도가 형성되어 온 특수한 방법을 인식하는 수단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역사적 접근방법을 통한 연구는 일종의 사례연구라 할 수 있다 (<http://terms.naver.com/item.php?d1id=8&docid=41>, 2006년 4월 19일 검색).

20) 역사적 시간적 조건의 틀 속에서 북한을 연구하기 위한 역사적 연구방법(historical method)은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발전론적 접근법과 이데올로기를 중시한 문헌접근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한상완 『학술정보 교류 방안: 북한의 학술정보 유통현황 및 교류방안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1.9.25, 4면).

점에서, 먼저 북한 문예정책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 내·외재적 혹은 제3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²¹⁾ 북한의 문헌에 나타난 이론서를 추적하여 그에 따른 문예정책의 정치적 특성을 도출할 것이다.²²⁾

둘째, 이 논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북한 원전과 함께 선행연구 자료를 병행하여 활용할 것이다. 북한의 원전만을 사용하다보면 사회주의의 문예관의 보편성을 망각하여 예리한 해석과 분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필자의 주관적 관점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 자료들을 통해서 연구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의 전반적 내용은 북한 원전뿐만 아니라 학계 및 학술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선행 연구논문과 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간행물, 통일부 등 정부부처에서 발표한 자료 등을 활용할 것이다.

셋째, 이 논문이 북한 문예정책의 전반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범위는 1945년 해방 이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소 광범위한 시기를 다루고자 했다. 북한의 문예 분야는 김정일이 이미 1960년대부터 당을 공간으로 하여 사회주의 문화예술 건설에 대한 총체적 지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다는 점에서, 그 유효성은 김정일이 정권을 공식적으로 장악한 이후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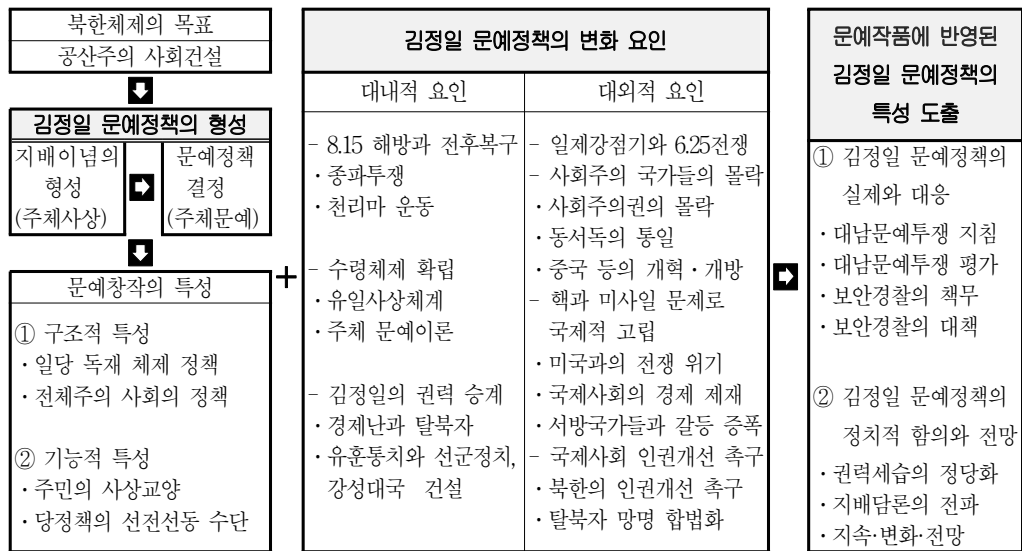
넷째, 이 논문은 크게 김정일 문예정책의 형성 배경, 김정일 문예정책

21) 이러한 연구방법론에 대하여 이종석은 '내재적비판적 접근'이라 주장하고 있다. 본래 '내재적 비판적 접근방법'은 독일의 루츠(P.C. Ludz), 비이메(하이델베르크대학 정치학교수 Klaus von Beyme), 송두울 등에 의해서 연구 적용되었다. 이종석은 '내재적비판적 접근' 방법에 대하여 사회주의의 이념과 논리, 그리고 그 정책의 현실정합성을 따지는 것 즉, '안'으로부터 이해하고, '안'으로부터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현상이든 일단 '안'으로부터 이해한 뒤에 그 검토는 '안'으로 부터만이 아니라 '바깥'의 기준을 가지고 검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 사회 혹은 이론에 대한 내재적 이해가 충분히 전제된다면 그것에 대한 평가나 검토는 내재적 정합성만이 아니라 외재적 기준에 의한 평가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종석은 북한연구에 대한 순서를 "A. 연구대상의 현황, 내재적 연구 → B. 문제점 발견(내재적·외재적 혹은 제3의 관점에서 문제점 지적 모두 가능) → C. 북한의 대응 추적 → D. 대응의 한계와 전망, 과제 발견"이라는 틀로 소개하고 있다(이종석, 『새로 쓴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24-27면 참조).

22) 김윤영, "북한소설의 갈등양상 연구", 수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20면.

의 변화 요인, 문예작품에 반영된 김정일 문예정책의 특성 도출이라는 분석틀로 나누어져 있다. 북한체제가 겪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은 김정일의 문예정책의 특성을 규정짓는 중요한 변화요인이 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석틀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분석틀: 김정일 문예정책의 특성



분석틀에 준거한 본 논문의 각 장에 대한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에서는 연구목적과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과 문예정책의 개념을 밝히고, 제 II 장 사회주의 문예정책의 형성배경에서는 사회주의 문예정책의 기본 이념과 특징 그리고 북한 문예정책의 기초와 김정일의 문예관 형성의 배경이 되었던 북한정권 수립 전·후의 문예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제 III 장 김정일 문예정책의 변천 과정에서는 북한 지배이념의 형성과 변화를 기준점으로 하여 김정일의 초기 문예관을 살펴본 후 김정일 문예정책의 체계화 과정을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공간을 시기별로 고찰

하고자 한다. 시기별 구분은 주체문예의 형성기(1960년대), 주체문예의 확립기(1970년대), 주체문예의 완성기(1980-1990년대 초), 주체문예의 강화기(1990년대 중반-현재)로 구분하여 논할 것이다. 시기 구분의 기준은 북한 지배이념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역사적 사건에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 연대기적인 순서에 따른 김정일 문예정책의 특징과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시기의 상황이나 구조가 만들어지고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친 특정한 역사적 계기나 사건 등을 찾고 그 상관성과 역동성을 찾아내고자 한다.

제IV장 김정일 문예정책의 실제와 대응에서는 남한을 대상으로 문예정책의 한 형태로 전개하여 왔던 김정일의 대남문예투쟁 지침과 그 평가를 분석한 후, 이에 따른 보안경찰의 대응책을 제언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대남문예투쟁 평가에서는 문학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계성을 보이는데, 이는 문예 분야의 모든 장르에 대한 북한의 평가서에 대한 자료 수집의 한계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제V장 김정일 문예정책의 정치적 함의와 전망에서는 김정일 문예정책이 가지는 권력세습체제의 정당화와 지배담론의 전과 기능에 대해 살펴본 다음, 김정일의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그리고 향후 전망을 진단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전술한 전반적인 내용을 총평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향후 남북한 문화통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학습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는 선행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문예정책의 개념

북한학 연구자들은 북한의 ‘문예정책’을 ‘문화예술’, ‘문학예술’의 준말

에 ‘공적인 기능을 의미하는 정책’²³⁾이란 용어의 복합어로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용어를 명확한 구분 없이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하거나 굳이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사용자마다 다르다는데 있다.²⁴⁾

이 논문에서는 북한의 문예정책에 대한 용어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문예라 함은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문학예술의 준말’²⁵⁾로 ‘문학,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미술, 교예’²⁶⁾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문예정책이라 함은 ‘문예’란 용어에 “주로 당이나 정부가 자기의 정치적 강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세우는 로선이나 과업 및 방침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들을 통털어 이르는 말”²⁷⁾인 ‘정책’이란 용어가 연결된 복합어(문예 + 정책)를 ‘문예정책’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문예정책’은 ‘당이 내세우는 문학예술의 노선(이론)이나 과업, 방침’ 등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문예이론’, ‘문예사상’, ‘문예작품’, ‘문예전선’, ‘문예학’, ‘문예평론가’ 등에서 ‘문예’란 ‘문학예술’의 준말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문학과 예술은 인민대중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양수단의 하나”²⁸⁾로 규정하고 있는 김일성의 교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논문의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북한의 문예정책은 북한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다.

23) 원용기, “문화정책의 발전 가능성과 「가치상호작용모델」의 시론적 검토”(『문화정책논총』, 1995), 238면; 오양열, “남·북한 문예정책의 비교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6면 재인용.

24) 위의 논문, 18면.

25) 『조선말대사전(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1187면.

26) 『문학예술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2), 1221면; 『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242면.

27) 『조선말대사전(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212면.

28) 『김일성저작선집』 2권, 356-357면; 『문학예술사전』, 1972, 364면 재인용.

II. 북한 문예정책의 형성 배경

이 장에서는 김정일의 문예정책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자 사회주의 문예정책의 이념과 특징을 살펴 본 다음, 김정일 문예정책의 형성 배경이 된 북한 문예정책의 기초와 북한 정권수립 전·후의 문예정책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사회주의 문예정책의 본질

가. 사회주의 문예정책의 기본이념

사회주의 문예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지도 원리에 기초하여 체계화되고 정당화되어 왔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창작된 문예 창작과 작품들의 이론적 근거는 대체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¹⁾ 세계관과 그로부터 파생된 미학원리에 근거하여 문예활동의 본질과 기능이 결정된다.

사회주의 문예이념은 자본주의 사회의 불가피한 멸망과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의 도래라는 역사발전의 필연적 법칙성을 연계시켜 정당화하고 구체화시킨 이념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주장에 의하면 문예란 특정 사회의 조건과 역사발전의 일반적인 법칙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한다. 즉, 예술이란 특정 사회의 물질적, 경제적 조건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문예이념이 자본

1) 레닌의 반영론은 예술을 통한 사회주의적 전유의 토대가 되었다. 반영론은 예술생산이 사회·경제적 발전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의해 예술작품을 규정하고 있다. 레닌은 마르크스 이론을 기초로 하여 예술의 기원을 원시사회에서의 실천적인 인간능력과 관련시켜 파악하고 있다. 정신적인 인식과정의 필연성은 노동과정 자체 내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서 최초의 인식형태 중의 하나는 예술적인 형상을 통해 나타난 세계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예술은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에서 미래 지향적, 집단적, 당파적 기능을 수행하는 근본적으로 유용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상부구조의 일부인 예술은 집단적 의식이라는 이데올로기 교육을 위한 것인 동시에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 체제의 계급투쟁의 무기가 된다는 것이다. 조형예술도 문학처럼 인간을 정치적·도덕적 그리고 미적으로 교육시킬 과제 즉, 사회주의적이면서 집단적으로 지향된 의식을 배양시키고 공산주의 사회 질서로 끌어들이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주의 사회의 문예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제 모순을 분석하면서 “자본주의적 생산은 미술과 시의 예에서 보듯, 정신적 생산의 일정 분야에 대해서 적대적”²⁾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자본주의와 예술의 적대적인 원리를 도출하고 있다. 특히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조건 하에서 인간의 정신적 세계는 빈곤화되고 인간의 고도한 정신적 요구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인간은 극한에 달한 전체적인 시스템의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된다”고 비판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예술은 인간의 감성적 쾌락, 오락, 위안거리, 마취약 혹은 지적인 수수께끼로까지 타락한 무사상적이고 퇴폐적인 부르주아계급예술이라고 주장한다.³⁾

이같이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 문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사회주의 예술문예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생성배경이 되고 있다.⁴⁾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기초로 사회주의 문예에 대한 ‘진보적’인 개념을 추가하게 되는데, 이것이 예술을 통한 ‘사회주의의 혁명적 건설’⁵⁾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 예술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하

2) Karl Marx, Theories of Surplus value 1, Moscow, 1975, 285면: 노재완, “김정일의 문예정책에 관한 연구”, 12면 재인용.

3) 소연방과학아카데미 편/ 논장편집부 역, 『미학의 기초』 2권 (서울: 논장, 1989), 183면.

4) 위의 책, 38면.

5) 사회주의 국가의 문예는 ‘혁명적 국가건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필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회주의 문예란 현실생활과의 관련성을 중시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추구하는 문예활동이란 현실세계를 재현하는 것이고 동시에 현실세계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미학의 기초』 2권, 38면).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적 의미를 지니지 않은 예술 활동은 예술을 위한 예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예술과 사회가 지닌 연관성과 그를 통한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현실과 인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예술은 참다운 예술이 아니라고 부정한다. 둘째, 사회주의 문예는 현실과 예술의 관련성을 실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 국가가 추구하는 혁명적인 사회건설을 위하여 문예는 현실의 모순성을 타파하고 사회주의 국가의 프롤레타리아 인민대중들이 계급 없는 이상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정주이, “북한문예정책의 변화와 특성”,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4, 11-12면).

나의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결국 사회주의의 문예 이념은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으로 시작하여 사회주의 세계의 건설과 사회주의적인 인간형을 창조하는데 근본 목적을 둔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예활동은 그 어떤 정신적 가치나 이념성도 갖추지 못한 반면, 사회주의 문예는 올바른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타락한 자본주의 체제를 흔들어 깨우는 정신적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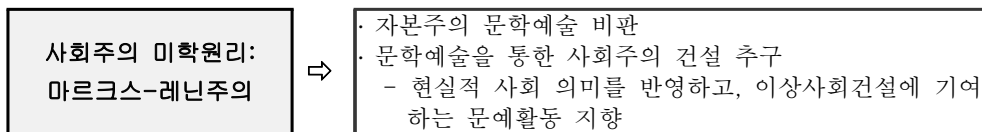
사회주의 예술이념에 있어 예술이란 현실인식의 수단일 뿐 아니라, 변혁을 위한 실천적 도구라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계급 없는 이상사회를 향한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적나라한 모순을 타파하고, 프롤레타리아 인민대중이 세계와 올바른 미적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현실’로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마땅히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술은 인민적이어야 하고, 계급적이어야 하며, 또한 프롤레타리아당의 지도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주의예술이념과 그에 근거한 문예정책에서는 예외 없이 예술의 ‘인민성’, ‘계급성’, ‘당성’을 그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다.⁶⁾

이와 같이 사회주의 문예정책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지도 원리에 기초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배경으로 출발하여 혁명적인 국가건설을 위한 도구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에서 문예활동은 단순한 미적 추구라는 의미를 넘어서 사회주의적 이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결국 사회주의 문예정책의 기본 이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미학원리’에 근

6) 사회주의 문예이론의 중심적인 개념은 ‘당성·계급성·인민성’의 원칙과 창작방법론으로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이다. 사회주의의 혁명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과 노동계급, 인민대중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념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창작방법에 의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주의 문예이론의 중심개념이다(윤재근박상천 공저, 『북한의 현대문학2』, 서울: 고려원, 1990, 50면).

거하여 ‘자본주의 문예’를 비판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추구’⁷⁾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1> 사회주의 문예정책



나. 사회주의 문예정책의 특징

자본주의 사회의 문예정책은 창작의 자유와 미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나, 사회주의 사회의 문예정책은 국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체제유지를 위하여 문예활동을 철저히 통제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예술을 예술 그 자체로부터가 아니라 다른 사회현상의 총체와 현실과의 연관에 의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의 물질적 기초 즉, 경제적 토대, 사회적 구성, 계급의 투쟁과의 연관”⁸⁾을 설명하는 등 예술 그 자체를 위한 예술을 부정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공식적인 예술론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의⁹⁾ 개념 자체는 1932년 스탈린에 의하여 처음으로 정식화되었다.¹⁰⁾ 즉,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소련에서 1920년대 말기부터 1930년

7)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문예를 통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자 현실과의 관련성을 지닌 사회적 의미가 있는 문예활동, 이상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문예활동 등을 지향하고 있다.

8) 소연방과학아카데미 편, 『미학의 기초』 2권, 39-40면.

9) 초기에는 프롤레타리아트 리얼리즘, 경향적 리얼리즘, 공산주의적 리얼리즘 등 다양하게 지칭되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명칭이 정착된 것은 1932년 스탈린이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명명한 이후로 보고 있다.

10) 그네도쉬윈/ 최철준 역, “사회주의 리얼리즘 예술의 제 문제”(『예술론 개요』, 평양: 국립출판사, 1956), 343면.

대 초기에 제창되고 1934년의 소비에트작가동맹 제1회 대회에서 통일적 창작방법으로 확립되었다.¹¹⁾ 이 대회에서 예술의 방법으로서 채택된 규약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현실을 그 혁명적 발전에 있어서 올바르게 역사적 구체성을 가지고 묘사할 것을 예술가에게 요구한다. 그때 예술적 묘사의 진실성과 역사적 구체성은 근로자를 사회주의정신에 있어서 사상적으로 개조하고 교육시키는 과제와 결부되지 않으면 안 된다”¹²⁾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특성은 ‘전형적인 상황에서 전형적인 성격들의 충실한 재현을 의미한다’는 엥겔스(Engels)의 설명에 잘 집약되어 있다. 문예작품은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충실한 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체제가 지향하는 특정한 경향성(tendency)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경향성이라는 것은 소망스러운 상태 혹은 이룩되어야 할 목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사회주의 예술은 정치적 이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국가가 문예활동에 개입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회주의 지도자들이 예술작품들의 창작과 감상을 계급투쟁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레닌을 비롯한 초기 사회주의 지도자들은 봉건적인 문화와 부르주아 문화를 청산하여 프롤레타리아트 사회를 완성하고자 프롤레타리아트 이념에 투철한 문예를 의도적으로 생산할 필요성을 요구하였다. 다시 말해 현실사회의 모순을 타파하고 더 진보적인 사회주의 국

11) 막심 고리끼의 장편소설 《어머니》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첫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1902년 니쭈니 노브고로드 근교 공업 지대에서 발생한 노동운동과 이와 관련한 노동자 투사 뽀뜨르 살로모프와 그의 어머니를 모델로 한 이 소설은 프롤레타리아의 역사적 해방론을 최초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유명하다. 이 작품은 후일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교과서적 모델로 평가되었고, 동시에 고리끼는 ‘소련 문학의 설립자’,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아버지’로 불리었다. 그의 작품은 소련 당국의 선전 정책을 통해 이상화되었다.

12) “사회주의 리얼리즘(Social Realism), 가우리 자료실(CAURY TEXT BLOG), <http://blog.naver.com/tongilgaury/120004867335>(2006.7.10 검색).

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문예활동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주의 문예활동에 정치적인 이념이 부여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사회주의 문예활동을 통제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문예활동뿐만 아니라 문예작품에 대한 감상 자체도 사회주의적 투쟁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문예작품에 대한 창작과 비판을 의도적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작가들이 요구하는 사상의 자유, 비평의 자유, 창작의 자유는 부르주아적인 개인주의로 비판 받았고, 오로지 공산주의적인 사상만을 표현해야 한다는 예술정책을 따라야만 했다.

사회주의 국가가 문예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¹³⁾

첫째,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공산당은 문예를 직접 담당하는 주체가 되고 있다. 때문에 문예활동을 당의 감독 하에 두고 당의 명령에 따라 활동하도록 한다. 당은 각종 문예 사업을 비롯한 신문, 출판, 인쇄, 배급 등 모든 문예관련 활동들을 통제한다. 특히 신문은 당 조직들의 기관지가 되고 있다.

둘째, 당의 이념에 부합되지 않는 문예활동은 철저히 배척하고, 당의 지도를 받지 않는 모든 창작품은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유산계급의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무산계급 문화라 할지라도 당의 지도를 받지 않고 독자성을 주장하는 경우 비판의 대상이 된다. 검열제도를 통하여 예술작품들 뿐만 아니라, 신문, 잡지 등의 내용도 엄격히 규제한다. 이렇듯 당의 철저한 지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문예활동에서는 검열제도를 철저히 정비하고 문예활동의 내용을 엄격히 규제한다.

셋째, 사회주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작가들을 당이나 국가가 직접

13) 노재완, “김정일의 문예정책에 관한 연구”, 16-17면.

발굴하여 양성한다. 발굴한 작가들은 작가조직에 편입시켜 작품 활동을 규제한다. 당원들을 중심으로 작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작가들이 당의 이념으로부터 이탈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넷째, 사회주의 국가는 문예정책을 주민에 대한 교양수단으로 인식하고 교육과 문예활동을 연계시키고 있다. 봉건적인 질서와 자본주의적인 의식에 빠져있는 ‘인민대중’을 재교육하고 조직화시키는 방편으로 문예활동을 활용한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문예정책은 문예 자체가 지니는 예술적이고 미학적인 가치를 창조하고 보급하기보다는 문예정책에서 수행되는 정치적 효과를 국가통치 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고자 했다. 결국 사회주의 문예정책은 새롭게 수립된 사회주의체제의 정통성 확립과 ‘인민의 의식개조’, 자본주의 국가와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 등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북한 문예정책의 정립

가. 북한 문예정책의 기초

북한의 문예정책은 곧 당의 문예정책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김일성의 주체적 문예사상을 실천하는데 있다. 김일성(1962.11.27)은 “작가 예술인들에게 문학예술은 절대로 혁명의 이익과 당의 노선을 떠나서는 안되며 자본계급의 취미와 비위에 맞는 요소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오직 당의 노선과 정책에 철두철미하게 의거하는 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근로대중을 공산주의 정신으로 교양한 강력한 무기로 될 수 있다”¹⁴⁾고 강조하면서, 문예정책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한계를 밝히고 있다.

북한에서 문학예술이라는 용어는 문학을 비롯하여 음악, 미술, 공연에

14) 유영옥, 『북한의 문예체론』(서울: 홍익사, 2006), 72면 재인용.

술 등 모든 예술 장르를 포괄하고 있다. 북한은 문학예술을 ‘근로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교화하는 수단’¹⁵⁾이자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는데 복무하는 수단’¹⁶⁾으로 인식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목적주의 예술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예관하에서 북한은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은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본질적 속성이며 중요한 특징”¹⁷⁾으로 규정한다. 원래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은 마르크스-레닌의 문예관으로부터 비롯된 예술의 기본 이념이지만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대두된 이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주체문예이론으로 대체하고 그 내용을 변형하여 문예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¹⁸⁾

북한의 문예창작에 있어 당성이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¹⁹⁾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성의 이념에 따라 “당을 옹호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바쳐 투쟁”²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지향하는 이념을 추구하고 당정책에 합당한 작품을 창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노동계급은 어느 계급보다 혁명성이 강한 ‘가장 선진적인 계급’이며 ‘혁명의 령도계급’으로,²¹⁾ 예술은 그 본질적 특성인 ‘노동계급성’에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복무하고 인민대중을 공산주의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며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²²⁾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작가나 예술가의 작품은

15) 김정일, “주체문학론”(『김정일선집(12)』, 평양: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325면.

16)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데서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62페이지)”(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평양: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1975;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북한의 문예이론: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서울: 도서출판 인동, 1989, 168면).

17) 위의 책, 14면.

18) 통일부 정보분석국, 『북한개요 2000』(서울: 통일부, 1999), 497면.

19) 『김일성 저작집』 35권(1980.1-1980.1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378면.

20) 위의 책, 378면.

21) 위의 책, 249면.

22) 『문학예술사전』, 1975, 364면.

일정한 계급의 편에 서는 것이며 사회주의 문예는 노동계급성을 띠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문예는 필연적으로 계급성을 띠게 되고 계급투쟁의 무기로 복무하게 된다.²³⁾

인민성이란 “인민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맞는 예술로 만든다는 것”²⁴⁾을 의미한다. 즉, 인민대중에게 맞는 예술을 대중화하여 “인민들을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그들의 역할을 높이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고 나가도록”²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인민성은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인민대중의 이익을 반영하고 인민을 공산주의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은 서로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 세 가지 본질 중에서 당성을 ‘노동계급성의 가장 철저한 표현이며 인민성의 가장 높은 형태’로 규정하여²⁶⁾ 당성을 노동계급성이나 인민성보다 우위에 놓고 당성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당과 수령의 혁명위업에 대한 철저한 복무성’으로 규정함으로써 중국적으로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로 모든 예술을 수용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이 당성을 철저히 구현하며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거기에 바로 근로대중의 현실생활이 당적 립장에서 정당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올바른 사상정치적 평가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에게 현실을 정치적으로 예리하게 분석판단하며 그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하게 옳은 자를 주는 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이다.”(밑줄 필자)²⁷⁾

23) 유영욱, 『북한의 문예체론』, 72면.

24) 『김일성 저작집』 13권(1959.1-1959.1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24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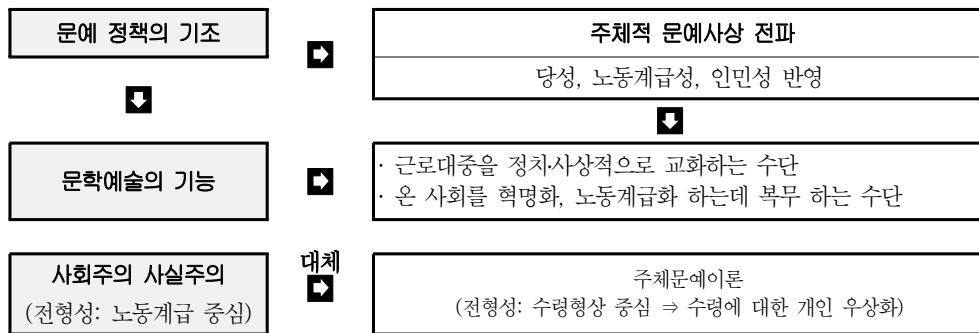
25)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북한의 문예이론: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110면.

26) 위의 책, 91면.

27) 위의 책, 96면.

위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북한의 문예는 김일성의 주체사상만을 ‘유일하게 옳은 자’로 인정하여 다른 어떤 선택도 있을 수 없는 오직 김일성 유일사상과 당의 정책과 지도에 의해서 문예작품을 창작해야 하는 체제 종속예술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표 2-2> 북한 문예정책의 기초



나. 북한의 초기 문예관

1) 정권수립 이전

북한의 문예관 형성은 1920-30년대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이 1926년 ‘타도제국주의동맹(트.디)’(1926.10.17)을 조직하게 되는데, 이것이 ‘참민족해방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았으며 이에 따라 문예사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한다.²⁸⁾

이 시기에는 ‘사회주의 사실주의’에 의한 문예활동이 시작되고 반일문학단체인 ‘조선프롤레타리아 예술가동맹’(KAPF, 1925년)이 결성되어 활동하였다. 또한 김일성이 1926년 12월 15일 ‘새날청년동맹’을 조직하여

28) 『정치용어사전』, 609-610면 참조.

“첫 혁명적 맑스-레닌주의신문인 새날청년동맹의 신문인 《새날》을 창간”함으로써, ‘진정한 노동계급의 혁명적 출판물을 가지기 위한 조선인민과 공산주의자들의 염원을 실현’하고 ‘노동계급의 혁명적 출판물들의 새 기원을 열어 놓았다’는 것이다.²⁹⁾ 그럼에도 북한은 시대적 한계와 작가역량의 한계, 그리고 당의 영도가 없었기 때문에 ‘기념비적 대작’을 창작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930년대에는 김일성이 ‘항일혁명투사들과 광범위한 군중들속에 혁명가요와 혁명연극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문학예술을 적극 조직 동원’하도록 지도한데 따른 항일무장투쟁과 결합한 혁명문예작품이 창작되었던 시기이다. 즉, 김일성이 1936년 2월 남호두회의에서 밝힌 “우리의 선전선동사업은 언제든지 우리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적응하게 계급적 내용을 담은 교양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한 이 교시가 “강력한 선전선동 수단인 항일혁명문학예술의 창작과 보급에서 철저히 견지해야 할 지도적 지침 되었다”는 것이다.³⁰⁾ 북한은 이 시기에 김일성이 창작하였다는 혁명가극 <피바다>, <한 자위단의 운명>, <경축대회>, <성황당>, 혁명가요 <조선인민혁명군>, <유격대행진곡>, <총동원가> 등을 대표작으로 평가하고 있다.³¹⁾

항일혁명투쟁 첫 시기³²⁾와 둘째 시기(1932.1-1945.8)³³⁾에 창작된 일련의 혁명적 문예작품들은 오늘날 북한문예가 계승해야 할 중요한 문예

29) 북한은 <새날>을 “진정한 노동계급의 혁명적출판물을 가지기 위한 조선인민과 공산주의자들의 염원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노동계급의 혁명적출판물의 새기원을 열어놓으시였다”고 평가하고 있다(『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1203면).

30) 『문학예술사전』, 1972, 925면.

31) 『정치용어사전』, 644-645면.

32) 북한은 1926년 10월부터 1931년 12월까지를 ‘항일혁명투쟁 첫 시기’로 주장하고 있다.

33) 북한은 김일성이 “1932년 4월 25일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여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직접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을 새로운 가장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시였으며 이 투쟁을 통하여 일제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타격을 가하시여 우리 인민을 착취하고 억압하던 일제를 패망시키고 조국을 해방하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정치용어사전』, 643-644면).

사적 전통으로 북한 현대문예사의 근간이 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 등은 1920-30년대 혁명적 문예작품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작품들이다.

김일성은 1946년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는 연설을 통하여 “우리가 반동세력을 분쇄하고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동무들이 문화전선에서 잘 싸우는가 못 싸우는가에 달려있습니다”³⁴⁾라고 강조하면서 문예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1946년은 사회주의 이념을 예술적 실천 목표로 한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1946.3.25, 이하 북조선예총)³⁵⁾이³⁶⁾ 결성되었다. 이 조직은 이미 서울에서 결성된 <조선문학가동맹>(1946.2)과 분리되어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북한지역의 독자적인 문예활동을 장악했던 문예단체이다. 북조선예총은 문예운동의 방향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미학을 바탕으로 공산당의 정치노선에 종속시키고, ‘중앙예술공작단’(1946.5)을 조직하여 사회주의 선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른바 ‘건국사상동원운동’은 당시 북한 주민의 사상을 공산주의로 개조하기 위한 의식 개혁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예인들이 선봉에 나서서 교화 계몽운동을 담당했던 것이다.

1947년 3월 당중앙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채택한 ‘북조선에 있어서

34) 김일성,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1946.5.24)(『김일성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96면.

35) 이 조직의 중심인물들은 대부분 서울에서의 활동을 포기하고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새로운 문예활동을 위해 월북한 한설야, 이기영, 안함광, 송영, 박세영 등이다. 이들은 ‘진보적 민주주의에 의한 민족문화의 수립, 반봉건 반민족적 예술 세력과 관념의 소탕, 민족문화 유산의 비판적 계승’ 등의 슬로건을 내세우며 북한 지역의 모든 문예활동을 장악하게 된다.

36) 1946년 3월 25일 전체대회를 통해 결성된 북조선예총은 강령을 채택하고, 동 단체의 노선을 확정하는 한편, 임원을 선출하고 단체의 규약을 만들었다. 북조선예총의 강령은 ①인민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족문화예술의 수립 ②조선예술조직의 (전국적)통일 조직의 축성 ③일제적, 봉건적, 민족반역적, 파쇼적 모든 반민주주의적 반동예술의 세력과 관념의 소탕 ④인민대중의 문화적, 창조적, 예술적 계발을 위한 광범위한 계몽운동의 전개 ⑤민족문화유산의 정당한 비판과 계승 ⑥우리 민족예술문화의 국제문화와의 교류 등이다.

의 민주주의 민족문화 건설에 관하여’라는 결정서에서는 문화예술이 조국과 인민에게 복무해야 한다는 전제가 내세워져 있으며, 문화 예술이 프롤레타리아 독재하에서 대중을 사회주의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데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곧바로 북한의 모든 문예가들에게 하나의 복무 조항으로 강요되었다.³⁷⁾ 즉, 당 조직 내에서도 문예운동의 노선과 그 정책의 방향을 고정시키기 위해 자체 내의 이론과 정강을 정리하였다. 결국 북한은 김일성의 혁명전통 역사를 중심으로 놓고 있는 만큼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나온 혁명적 문예작품 역시 북한 문예사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2) 해방에서 1967년까지

해방이후 1967년까지 북한의 문예정책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과 체제의 정립을 위해서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에 대한 선전과 계몽에 앞장섰던 시기였다. 북한정권 수립 후 초기 문예정책의 이론적 바탕은 사회주의 사실주의³⁸⁾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현실을 혁명적 발전 속에서 역사적 구체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묘사하는 우리시대의 유일하게 옳은 창작 방법’이라면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인류가 축적한 문학예술창조의 경험과 성과들에 기초하여 발생 발전한 가장 선진적인 창작방법으로서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고 있으며 오늘의 현실 묘사에서 미래의 싹을 예술적으로 확인하고 혁명적 낭만성의 원칙을 그의 유기적 구성성분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³⁹⁾

37) 노재완, “김정일의 문예정책에 관한 연구”, 32면.

38) 김일성은 사회주의 사실주의에 대해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특징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있는 작품들은 현대의 유일하게 옳은 창작방법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의해서만 창조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29페이지)”(『문학예술사전』, 1972, 497면).

39) 『정치용어사전』, 498면.

이 당시 북한사회는 해방 직후의 불안과 6.25전쟁으로 인한 파괴 그리고 전후 복구 작업을 위한 동원 등으로 이어지는 혼란 속에서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정립을 위한 사상이념의 선전과 계몽이 무엇보다도 필요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예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다. 문예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은 1946년 강령,⁴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1948.9.8),⁴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정강(政綱)(1967.12.16)⁴²⁾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북한 문예정책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라고 한다면⁴³⁾ 공식적으로 “카프문학의 위대한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우리나라 문학”⁴⁴⁾이라고 하듯이 구체적인 창작이론으로 일제시대 카프의 전통을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카프의 문예이론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일제하라는 식민지 상황에서 초래된 민족주의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조된 것이다.⁴⁵⁾ 카프적인 경향은 남로당이 숙청된 이후 1950년대

40) 1946년 조선노동당 창립대회에서 채택된 강령 8조와 10조는 문화와 관련된 부분으로 “조선인민에게 언론, 출판, 집회, 연설대회, 시위운동, 당조직, 동맹조직 및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것”(8조)과 “조선민족문화 예술 및 과학의 정상적 발전을 도모할 것”(10조)을 강조하고 있다.

41) 1948년 헌법은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 10조에서는 “국가는 국내의 경제 문화의 부흥과 발전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으며, 11조는 “공민은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라 하고, 20조에서는 “공민은 과학 또는 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권 및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하였다.

42) 1967년 12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 회의에서 김일성이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는 제목으로 발표한 정부의 10대 정강에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북한의 지도적 지침으로 하였다. 이 정강에서는 “공화국정부는 조선노동당의 령도 밑에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더욱 강화하며”(3항), “공화국정부는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에 튼튼히 의거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며 사회주의적 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할 것”(6항)을 밝히고 있다(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김일성저작선집 4』,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8, 527-586면; 이찬행, 『김정일』, 서울: 백산서당, 2001, 245-246면).

43)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대의 특성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예술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 풍부화시키었다”(『문학예술사전』, 498면).

44) 『조선중앙년감 1957』(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7), 111면.

45)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은 우리식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예술이며 그 력사적인 뿌리도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마련된 우리식의 새로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로부터 내리기 시작하였다.”(김정일, “주체문학론”, 『김정일 선집(12)』, 평양: 조선노동당출사, 1997, 385면).

이후까지 지속되었다.⁴⁶⁾

1950년 6.25전쟁은 북한의 문예정책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북한은 6.25 남침을 ‘조국해방전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문예부문을 전시체제로 개편하여 전투적이며 기동적인 작품을 창작해야할 것을 요구하였다.

6.25전쟁 발발 이후 수많은 작가들이 전선부대에 종군작가로 배속되어 전시창작 활동을 수행했다. 전쟁 말기로 접어들면서 전쟁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북한 내부에서 당내 지방주의적이고 종파주의적 경향을 극복하고 청산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남로당의 정치적 몰락과 상당수의 월북문인들이 문단에서 숙청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1952.12.15-18)⁴⁷⁾ 결과 정치부에서는 박헌영과 남로당계 인사들이, 문예분야에서는 임화·김남천·리태준 등이 미제 간첩과 종파분자 등으로 몰려 숙청되었다.⁴⁸⁾ 이 사건은 문예를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것으로 급속히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51년에 결성된 <조선문학예술총동맹>⁴⁹⁾ 해산(1953)되고, 당의 문예정책을 실현할 조직으로 <조선 작가 동맹>, <조선 미술가 동맹>, <조선 작곡가 동맹> 등 3개 조직으로 개편되는 계기가 되었다.⁵⁰⁾

46) 이우영,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7면.

47) 『정치사건』, 790-791면.

48) 당시 임화·김남천·리태준 등은 종파행위를 감행하여 작가·예술인 대열의 통일과 단결을 와해시키려고 책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연주의적이며 퇴폐주의적인 문학예술작품들을 통하여 반동적인 부르조아사상, 패배주의, 염전사상 등을 전파함으로써, 대중의 계급의식과 혁명의식을 마비시켰다고 비판받았다.

49) 전쟁초기 북한이 연승하게 되자 남한에 있었던 작가·예술인들이 북한의 문단에 합류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된 조건에 맞게 북한과 남한의 문학예술단체들을 통합할 것에 대한 조치가 1950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1951년 3월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 결성되어, 북한에서는 처음으로 전국적 차원에서 문학예술 단체가 조직되었다.

50) “결정서(二)”, 《조선문학》 1953.10호(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53), 142면.

전쟁직후의 전후복구 사업에 들어서기 전에 문단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은 문예인들의 당(黨)적 통일성을 파괴하려는 일체의 종파주의적 파괴행위를 제거하고 대중의 혁명 투쟁의식과 전투의식을 마비시키는 부르주아 문예사상을 분쇄해야한다는 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문단숙청과 사상통제를 실현한 후에 전후 복구사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문예인들을 재조직하여 동원하였다. 즉, 천리마운동(1956)을 통하여 전후 복구사업의 수행과 사회주의 체제의 정착 그리고 대중에 대한 사상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1956년 ‘8월 종파투쟁’⁵¹⁾은 김일성 개인에게 권력집중이 가속화되고 유일사상체계가 성립되는 계기가 되었고, 문예정책 또한 유일사상체계가 성립되는 정치적 환경을 반영하게 되었다. 이 당시는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과의 사상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1956년 2월 16일 당중앙위원회 상무회의에서 사회주의 문예의 기본원리라는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의 원칙이 당의 문예정책 관철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천명되고,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1960년대의 문예정책의 의미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지향

51) 소련공산당은 1956년 2월 개최된 제20차 당 대회를 통해 스탈린 개인숭배를 비판하고 평화 공존을 제창하며 사회주의 이행의 다양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소련공산당은 각국 공산당에 자신들의 새로운 노선을 수용하도록 강요하였다. 북한 조선노동당은 1955년 말부터 이러한 소련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이는 북한 체제의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북한의 단일지도체제의 개인숭배 현상은 소련의 스탈린 개인 숭배체제와 유사하기 때문에 소련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에서는 1956년 2월 말부터 신문과 방송에서는 ‘경에 하는 수령’이라는 호칭이 사라지고 집체적 지도의 상징인 ‘당 중앙위원회’가 강조되면서 김일성 대신 ‘조선인민의 정치적 수령’을 강조하게 되고(이종석,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232면), 당내에서는 반김일성운동이 일어났으나 김일성계열에 의해 저지되었다. 같은 해 8월 전원회의에서는 김일성 반대파의 움직임을 ‘반당종파행위’로 규정하고 “당내에서 불순한 종파행동은 무조건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그것이 어떠한 구실 밑에서 진행되든지간에 또한 어떠한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당의 단결을 와해하는 범죄적 행동으로서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문석불, 『당 대렬의 통일: 우리 당 위력의 원천이다』; 이종석, 위의 논문, 241면 재인용)는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1956년 8월 종파사건은 김일성에게 위기를 가져다주기도 했지만 오히려 당내에서 김일성의 위상을 굳히는 계기로 작용했다.

점은 바뀌기 시작했다. 첫째, 1956년부터 시작된 천리마운동의 결과 천리마시대의 영웅들을 부각시키는 문예작품이 요구되었다. 즉, 천리마운동을 시작으로 주민들의 노력동원을 선전하고 집단적인 사상교양을 추진하고자 천리마시대 일꾼들의 영웅적 투쟁모습을 그린 문예작품들이 창작되었다.⁵²⁾ 김일성은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1960.11.27)는 연설을 통하여 문학예술이 천리마시대의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할 것과 천리마기수들의 전형을 창조할 것을 지시하였다.

“《우리 혁명과 새생활 건설의 주인공들을 형상화하여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당과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할 무거운 사명이 작가, 예술인들에게 지워져 있습니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기적들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변하고 있으며 천리마의 대진군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생동하게 그리며 시대의 영웅인 천리마 기수들의 전형을 창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또한 조국의 해방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오래동안 간고한 투쟁을 전개한 공산주의 투사들의 형상을 통하여 그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으로 우리 세대의 인민을 교양하는 사업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계속하여야 할 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27페이지)⁵³⁾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천리마시대사람들의 보람찬 생활과 영웅적투쟁모습을 그려야 하며 그들의 희망과 념원을 뚜렷이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⁵⁴⁾

둘째, 항일혁명문예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항일혁명문예는 1959년에서 1960년까지 보급된 『항일빨치산참가자들의 회상기』(1-4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회상기는 항일혁명문예를 통하여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활동을 정당화하고, 김일성 개인 우상화에 목적이 있었다. 항일혁명문예의 등장은 유일사상을 문예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문예

52) 천리마운동을 반영한 문예작품은 대체적으로 ‘수령의 형상창조와 항일혁명전통’, 전쟁, ‘조국통일과 남한 인민들의 투쟁’, 천리마시대 현실, 계급교양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53) 사회과학원문학연구소, 『북한의 문예이론: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18-19면.

54) 김일성,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 작가, 작곡가, 영화부문일군들과한 담화, 1960년 11월 27일; 『김일성 저작집 14』(1960.1-196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정책을 통하여 김일성우상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항일혁명문예의 원칙하에 창작된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김일성의 항일빨치산운동 시기의 일화들을 다루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혁명가극 <피바다>, <한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 등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해방 직후부터 1967년까지의 북한 문예는 그 이전 시기와는 달리 합법적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통해 ‘항일혁명문학예술’의 전통을 이어 받으면서 ‘인민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토대’ 등 사회역사적 현실을 반영하는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예정책을 추진했던 시기로 김일성을 찬양하는 송가형식의 작품들과 항일혁명투쟁의 전통을 형상화한 일련의 작품 및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을 주제’로 한 문예작품들이 대거 창작되었다.⁵⁵⁾ 이 시기 문예작품에 형성되었던 중심적 주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화되고 있다.

55) 김일성에 대한 충성을 노래한 송가작품의 시(詩)로는 리찬의 <김일성장군의 노래>(1946), 백인준의 <그이를 우리의 태양이라 노래함은>(1947), 김복원의 <6월 14일>(1947), 박세영의 <햇볕에서 살리라>(1946) 등이 있다. 이 주제에 속하는 조기천의 서사시 <백두산>(1948)은 당시의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항일혁명전통은 주로 시문학과 극문학형식으로 창작되었다. 리원우의 <우리는 나서자 영예로운 길로>(1947), 한명천의 <장백산>(1947) 등의 시와 박령보의 희곡 <태양을 기다리는 사람들> 등이 있다.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을 주제로 한 작품들의 경우 여순사건이나 4.3제주사건 등을 주제로 다루었다. 조기천의 연시 <항쟁의 려수>(1949), 강승환의 서사시 <한라산>(1948), 남궁만의 희곡 <하의도>(1949) 등이 있다. 특히 이 시기 문학작품 가운데서 당대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수행을 위한 투쟁들을 형상화’한 작품들이다. 토지 개혁이나 중요산업 국유화와 관련하여 변화된 현실을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 이기영의 <개벽>(1946), 리북명의 <로동일가>(1947), 리기영의 <명>(1948-49, 1부) 등의 소설과 리찬의 시 <새소식>(1946), 김순석의 가사 <벼가을하러 갈 때>(1948), 남궁만의 희곡 <복사꽃 필 때>(1946) 등이 있다.

Ⅲ. 김정일 문예정책의 변천 과정

북한의 문예정책은 1967년의 문학예술계 반종파투쟁을 기점으로 그 양상이 바뀌게 된다. 이전에는 당 문예정책의 근간이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창작방법이었다면, 1967년을 넘어서면서 ‘주체 문예이론’이 문예정책의 강령(綱領)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김정일의 문예정책은 1967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한다. 이 논문의 특성상 김정일 시대의 문예정책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는 점에서 1967년 이후 현재까지를 김정일의 문예정책기로 설정하였다. 이미 앞 장에서 김정일의 문예관 형성 배경을 추론하기 위해서 8.15 해방을 전·후한 북한 문예정책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김정일의 문예정책의 변화과정을 1967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 지배이념의 형성과 변화에 따라 시기를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 3-1> 북한 문예정책의 변화 과정¹⁾

구분	1940·50년대	1960년대 주체문예의 형성기	1970년대 주체문예 확립기	1980년대 주체문예 완성기	1990년대-현재 주체문예 강화기
문예정책의 목표	사회주의 문화건설을 위한 근로자 교양: 당성·로동계급성·인민성이 구현되는 문예작품 창작				
문예정책의 이념	·민족주의·사회주의	·주체사상 형성기, 민족주의·사회주의	·주체사상, 민족주의·사회주의		
문예이론	·사회주의 리얼리즘: 카프전통 및 소련의 문예이론 영향	·항일혁명문예, 주체문예이론의 탄생기	·주체문예이론·중자론		
문예정책의 주안점	·사회주의 확립 ·민족주의 지향 ·카프 전통계승 ·반제의식 확산 ·전후 복구건설	·사회주의 발전 ·민족주의 지향 ·김일성 우상화 ·주체문예이론 수립 ·항일혁명문예 추구	·불멸의 고전들의 복구 ·노력동원 ·김정일 우상화	·인민성 제고 ·김정일 세습 당화	·고난의 행군과 사회주의 붕괴에 따른 주체사상 강조 ·김정일 후계 체제 확립

1. 김정일의 초기 문예관

김정일은 1964년 김일성종합대학 졸업과 동시에 당중앙위원회에 배속되어,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와 조직지도부에서 지도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당 사업을 시작하여²⁾ 1969년까지 지도원, 과장, 부부장 순으로 빠르게 승진하였다. 1973년 당중앙위원회 제5기 7차 전원회의에서는 당 조직 및 선전담당 비서로 선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은 선전선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영화부문을 비롯하여 교예, 무용 표기법, 총서 ‘불멸의 역사’ 발간작업의 지도까지 다양한 장르에 걸쳐 실무경험을 쌓았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김정일은 일찍이 문예 분야가 권력 장악과 그 당위성을 선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게 되었다.

마르크스는 이데올로기란 지배를 위하여 은폐하고 대체하는 허위의식의 관념체계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중들이 이데올로기를 허위의식으로 간파하게 되면 그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지배는 정당성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 때문에 이데올로기는 계속해서 선전선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처럼 다양한 부문에서 정당성의 위기에 직면한 정권에서는 이것이 체제지속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주체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해석권과 그 전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선전과 선동업무에 대한 장악은 북한체제 전반에 대한 권력 장악을 의미한다. 김정일이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선전선동부분을 장악하여 후계자로서 면모를 구축해 왔던 것은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³⁾

문학예술의 중요성에 대한 김정일의 인식은 1960년대 초반의 문헌들

1) 이우영, 『남북한 문예정책 비교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108면 참조.

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략력』 제2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28면.

3) 노재완, “김정일의 문예정책에 관한 연구”, 37면.

에서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다. 김정일은 1964년 문학예술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첫째, 문예를 정치적 교양의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사회주의적 내용을 민족적 형식에 담아야 한다. 셋째, 문학예술 작품은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김정일의 문예관에서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 창작’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있으나, 마르크스-엥겔스와 레닌 그리고 모택동 등이 강조했던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은 북한의 사회주의 현실을 반영한 작품, 지난 시기 계급투쟁과 혁명투쟁을 반영한 작품, ‘남조선 현실과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투쟁’, 다른 나라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다루는 작품 등은 ‘인민들을 혁명적, 계급적으로 교양하는 혁명적인 문학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⁵⁾ 이 시기 남한의 4.19를 소재로 창작한 영화 <성장의 길에서>(1965)에 대해 김정일은 ‘혁명적 문학예술 작품’을 창작할 데 대한 김일성의 뜻을 받들고 나온 첫 성과 작품으로 평가하였다.⁶⁾

김정일의 초기 문예관에서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은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구현하여야 할 옳은 창작방법”임을⁷⁾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의 고유한 혁명전통을 전적으로 무시한 것은 아니다. 김정일은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고 하여 혁명전통이 ‘항일혁명투쟁’임을 밝히고 있다.⁸⁾ 그리고 ‘항일혁명투쟁을

4)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이란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 내용을 그들의 구미에 맞는 민족적형식에 담아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작품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은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계급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작품입니다.”(김정일,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 창작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문학예술부문 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64년 12월 10일), 『김정일선집(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50면).

5) 위의 책, 49-50면.

6) 위의 책, 60면.

7) 김정일, “군인교양에 이바지할 혁명적인 영화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조선인민군 2.8영화촬영소를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64년 9월 15일)”(『김정일선집(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6면).

8) 김정일,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 창작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 51면.

승리에로 조직 영도한 수령님의 혁명역사와 혁명업적을 깊이 있게 형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김일성과 그를 추종하던 빨치산들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생동감 있게 창작해야할 것을 독려했다.⁹⁾ 결국 김정일은 '김일성이나 빨치산의 투쟁기' 등 '고유한 혁명전통'을 문예작품 창작의 중요한 소재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김정일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기본 속성을 유지해 오던 그동안의 문예관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되면서, 그의 문예관은 점차적으로 변화하였다. 1966년 2월 7일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할데 대하여”에서, 김정일은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하자!”를 “오늘 우리문학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로 규정하는 한편,¹¹⁾ “새로운 혁명문학 건설에서 중심고리를 풀자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의 발전력사부터 심중히 검토총화해 보는것이 필요할것”임을 강조하며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 최고령도자로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결정적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도 마땅히 수령에 관한 문제를 첫째가는 중심문제로 제기하고 바로 풀어나가야 할것”임을 역설하는 등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였다.¹²⁾

김정일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대한 재해석은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는 차이를 보인다.¹³⁾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9) 위의 책, 52면.

10) 이 외에도 “해방후 당 및 인민정권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과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투쟁,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은 다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투쟁”이며,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형상한 작품”의 창작 등을 강조하고 있다(위의 책, 53-54면).

11) 김정일,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하자!(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1966년 2월 7일)”, 『김정일선집(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112면.

12) 위의 책, 113-114면.

13)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공산주의적 인간의 기본품성이고 성격의 핵이며 바로 여기에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공고성을 담보하는 기본 요인이 있다. … 이것은 우리문학이 창조하는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선행한 주인공들과 구별 짓는 기본 징표로 나아가서는 우리의 주체사실주의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구별 짓는 중요한 징표로 되었다.”(최언경,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전형 창조에 대한 완벽한 이론적 해명”, <문학신문>, 1993.5.7; 전영선, 『북한의 문학예술 운영

서 강조되는 전형성은 노동계급이 중심이 되고 있으나, 김정일은 ‘수령형상문학’을 ‘새로운 혁명문학’으로 규정하면서 노동계급의 혁명적 역할을 형상화하는 것보다 수령이라는 개인에 대한 이상화를 문예창작의 일차적인 의의로 삼고 있다. 그 예는 다음의 인용문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혁명문학은 명실공히 수령을 형상한 문학을 의미합니다. …(중략)…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은 역사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노동계급과 운명을 같이하여왔습니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역사적사명은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노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로 인민대중을 불러일으키는데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이 종래의 투쟁과 구별되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그것이 노동계급의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령도된다는데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은 곧 수령의 위업입니다.”(밑줄 필자)¹⁴⁾

이러한 김정일의 문예관의 변모 양상은 문예작품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정일은 당시 문학예술부문의 현 실태에 대해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작품이 많지 못할 뿐 아니라 창작 중에 있는 작품도 얼마 없고, 해방직후에 나온 조기천의 장편서사시 《백두산》¹⁵⁾을 능가할만한 작품이 나오지 못한 것¹⁶⁾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의 초기 문예관은 사회주의 국가의 전통적인 문예이론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수용하면서도 일제하 문예운동인 카프의 전통을 계승하여 왔다. 김정일이 1960년대 문학예술 부분을 담당하면서도 그러한 문예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1966년을 고비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대한 재해석의 필요성을 느끼고 김정일은 김일성의 항일혁명운동을 소재로 삼는 항일혁명문예와 수령형상화문예의 중요성을

체계와 문예이론』, 188면 재인용).

14) 김정일,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하자!”, 112-113면.

15) 김일성 형상화 작품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조기천의 장편 서사시 <백두산>은 1946년에 창작되었다.

16) 김정일, “소년단사업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자(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 1966.6.6)”, 『김정일선집(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126면.

강조하게 되었다. 이후 김정일은 수령(김일성)이라는 개인에 대한 우상화를 중요시하는 문예관으로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김정일의 문예관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일련의 사회주의적 문예이론들을 체계화하는 기초가 되었다.

2. 김정일 문예정책의 체계화 과정

가. 주체문예의 형성기(1960년대)

1) 문예계의 종파투쟁

1967년을 기점으로 김정일의 문예관은 기존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구별되는 변화의 계기를 맞이한다.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1967.5.4-8) 이후 당조직지도부 책임지도원에서 선전선동부 문학예술지도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상사업에 총력을 기울게 되었다.

이 전원회의에서는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문제에 대한 토의’를 통해 전당을 수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고,¹⁷⁾ 문예 분야에서는 카프의 맥락을 이어왔던 박팔량·박금철·안함광 등 일단의 문인들을 수정주의자, 반당반혁명분자로 몰아 숙청하는¹⁸⁾ 등 ‘종파투쟁’을 전개하였다. 다시 말해 김정일은 ‘반당반혁명 수정주의자’의 병폐가 문예부문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이 부문을 철저히 장악하고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주력하였다.¹⁹⁾

17) 이 전원회의에서 ‘유일사상체계 확립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등장한 것은 권력 핵심부 내에 일부 퍼져 있는 ‘반(反)유일사상체계’의 움직임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일이 반유일사상체계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숙청을 주도함으로써 정치활동에서 본격적인 두각을 나타내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준 회의이기도 했다(이찬행, 『김정일』, 234면).

18) 1967년의 문학예술계 반종파 투쟁을 통하여 구카프계열의 문학예술인은 제거되고 문학예술분야에서도 김일성 중심의 인맥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김정일은 이 전원회의 이후 전국의 ‘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을 ‘김일성동지혁명연구실’로 재편하고 ‘김일성동지혁명연구실록’을 편찬하는 등 사상사업을 강화하면서 자신의 위상을 높여갔다.

이같이 1967년 문예계의 반종파투쟁은 북한문예의 이념적 지향을 변화시키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여 기존의 문예작품들은 수정주의와 반동주의 그리고 사대주의로 비판되었고, 수령형상화를 소재로 하는 교주의적 문예관이 확립되었다. 따라서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유일사상체계를 전면화하는 작업은 절대적으로 쟁취해야 할 과제가 되어 ‘수령형상문학’과 ‘항일혁명문학’이²⁰⁾ 문예 분야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항일혁명문학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전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북한 문예인들은 종파투쟁을 계기로 “당 정책을 무조건 지지옹호하는 견결한 입장”²¹⁾을 수용하게 되고 문예작품의 평가 기준 역시 미학적인 기준보다는 정치적이고 사상적인 기준을 중시하게 되었다.

2) 유일사상체계 확립

1967년 제4기 15차 전원회의 결과 정치분야는 물론 문예계에도 엄청난 파급을 가져왔다. 김정일은 이 전원회의를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회의”²²⁾로 평가하면서, “사상투쟁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진

19) 김정일,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하여”, 『김정일선집(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37면.

20) ‘수령형상문학’은 김일성의 위대성을 부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항일혁명문학’은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활동을 소재로 창작한 문학작품들을 의미한다.

21)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3), 231면.

22) 김정일,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하여”, 230면.

행”²³⁾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김정일은 1967년 7월 3일 ‘당사상사업부문 및 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를 통해서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 것에 대하여” 강조하였다.²⁴⁾ ‘영화예술 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1969.9.27)에서는 “《피바다》는 내용과 형식, 창조 체계와 방법의 모든 영역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²⁵⁾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1970년 2월 19일 ‘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에서는 사람들의 혁명의식 과정과 혁명적 세계관이 형성 발전하는 과정을 심도 있게 형상화할 것을 지도하였다.²⁶⁾ 1972년(11.7) 담화 “주체시대에 맞는 새로운 혁명연극을 창작할데 대하여”를 통해서 “주체시대에 맞는 새로운 혁명연극 창작에서 일대 전환”²⁷⁾을 일으켜야할 것을 교시하였다.

이같이 김정일은 1967년 종파투쟁을 계기로 문예부문을 장악하고 모든 장르에 대한 직·간접적인 관여와 지속적인 지도사업을 통해 ‘혁명연극’, ‘혁명적인 문학작품’, ‘영화혁명’ 등의 창작사업을 통해 ‘유일사상체제’를 확립해 나갔던 것이다.²⁸⁾ 또한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67.6.20)를 통해 당의 지도 밑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령형상창조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4·15 문학창단’²⁹⁾의 설립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23) 위의 책, 237면.

24) 김정일,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김정일선집(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74-286면 참조.

25) 김정일, “불후의 고전명작 《피바다》를 영화로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김정일선집(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482면.

26) 김정일, “문학예술작품에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 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릴데 대하여”, 『김정일선집(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44-51면 참조.

27) 김정일, “주체시대에 맞는 새로운 혁명연극을 창작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473면.

28) 1964년 12월 10일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 창작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라는 연설은 문학 분야에서 김정일이 처음으로 현지지도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시작된 것은 1967년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철저히 세울 데 대한 방침”이 나온 이후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로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하는 새로운 혁명문학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수령형상창조를 기본으로 하는 창작집단을 따로 내오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령형상창조를 기본으로 하는 창작집단을 따로 내오지 않고서는 수령형상창조사업을 당의 유일적지도밑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으로 진행해나갈수 없습니다. ... 수령형상창조사업은 철저히 당의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사업으로 되여야 합니다. 수령형상창작집단을 따로 내오고 창작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이 사업에 대한 당적인 지도체계를 정연하게 세울수 있고 수령형상창조를 기본으로 하는 창작사업을 당사상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성있게 통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습니다.”(밑줄 필자)³⁰⁾

위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4·15 문학창작단 설립 목적 외에도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김일성에 의해 창작되었다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소설로 옮기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영화부문에서는 당의 사상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김정일은 항일혁명투쟁시기 김일성이 직접 창작했다는 <피바다>를 영화화하기 위해서 ‘영화혁명’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김일성은 영화 <피바다>를 보고 ‘영화가 좋다’고 하며 ‘영화가 나가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이라고 평가한데 이어서, 김정일에게 영화예술 전반에 대한 권리를 맡기게 되었다. 이에 고무된 김정일은 영화 <피바다>를 혁명적 예술영화의 기본으로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미술 분야 역시 ‘10대정강’(1967)을 통하여 “항일무장투쟁과 그것을 계승한 현시기 인민의 장엄한 투쟁모습, 약동하는 현실을 형상한 혁명적

29) 4·15 문학창작단은 김일성과 관련된 문학작품만을 전문적으로 창작하는 작가 단체이다. 김일성의 생일 4월 15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인 이름으로 1967년 6월 20일 김정일의 발기와 주도로 설립되었다. ‘수령형상문학’ 작품은 이 창작단에서 전문적으로 창작하고 있다. 이 창작단은 소설가, 시인, 희곡작가 등 50-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동 창작단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북한소설 50년사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자평되고 있는 <불멸의 력사>와 <불멸의 향도> 시리즈가 있다.

30) 김정일, “4·15문학창작단을 내올데 대하여”, 『김정일선집(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45면.

작품을 창작하여 전 사회의 노동계급화·혁명화에 이바지할 것”³¹⁾이 강조되었다.

나. 주체문예의 확립기(1970년대)

1) 주체문예이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하여 ‘미학적 관점이 계급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계급성과 인민성이 강조되고,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거쳐 갈 수밖에 없는 프롤레타리아 당 독재의 안정적인 실현을 위해 당성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문예이론과는 달리 북한의 주체문예 이론은 ‘주체적 사실주의’를 기본 틀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정권 수립 후 초기 단계에서의 문예이론은 일반 사회주의 요소가 중요시되었고, 이 과정에서 계급성, 당성, 인민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국가이념이 일반 사회주의 이론으로부터 ‘주체사상’으로 옮겨가면서 문예이론 역시 ‘주체적 사실주의’를 표방하게 되었다.³²⁾

북한에 있어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인정하고 김일성의 존재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통치이념이 되었다. 북한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의 원칙을 내세워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선전하고 있는데, 이를 문예이론에 반영한 것이 주체문예이론이다. 북한은 주체문예이론을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이익과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갈 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하여 자기나라 인민과 자기나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

31) 북한연구소편,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83), 1095-1096면.

32) 전영선, 『북한의 문학예술 운영체계와 문예이론』, 186면.

켜 나갈 방향과 방도'33)로 설명하고 있다

주체문예이론은 문예에서 주체 확립의 실질적인 내용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궁극적으로 세습체제의 확립이라는 현실적 조건과 그리고 이에 연관된 예술발전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주체문예이론은 김일성주의를 체현한 공산주의자의 절대적인 전형으로서 김일성의 형성화를 최우선적 과제로 삼았으며, 김일성의 절대화 이상화를 위해서 그의 일가 전체를 신격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인민들은 김일성에게 절대 순응, 복종하고 그의 명령과 지시를 헌신적으로 실천하도록 노골적으로 요구받게 되었다.34)

김정일에 의해 주체문예이론이 종합되면서, 문예창작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모든 문예작품과 이론에 김일성부자의 교시나 모습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문예창작 과정에서 김일성부자에 대한 칭송과 예찬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둘째, 김일성부자의 절대화, 이상화에 따라 그들의 가계도 신성한 차원에서 묘사한다. 셋째, 김일성부자에 철저히 귀의, 순응, 복종, 실천하는 인간상을 구현해야 한다. 곧, 모든 인간과 사회상은 김일성부자의 의지대로 이루어져야 한다.35)

주체문예 이론의 창작방법으로는 전형화론,36) 종자론, 속도전 등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이론들은 김일성의 교시와 당 정책을 관철하고 이를 통해 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무장시킴으로써 김일성 유일

33) 사회과학원문학연구소, 『북한의 문예이론: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15면.

34) 유영옥, 『북한의 문예체론』(서울: 홍익재, 2006), 75면.

35) 위의 책, 75면.

36) 전형화론이란 공산주의적 인간을 기본 주인공으로 중심에 내세우고 그의 사상성과 생활을 형상화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산주의적 인간이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주체의 혁명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인물'을 말한다. 이러한 전형화 이론에 따라 북한의 문학예술은 '비타협적 투쟁으로 긍정인물이 승리'하고 '부정적 인물은 결국 교양·개조'되며 사회주의 우월성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작품에서는 갈등을 설정하지 않는 획일적인 예술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사상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김정일이 당 총비서를 취임하는 1989년 9월을 계기로 주체사상을 대체하는 새로운 하위 통치이념으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 ‘붉은기 사상’, ‘고난(苦難)의 행군(行軍)정신’³⁷⁾ 등을 매 시기마다 내세우면서, 이를 예술작품에 반영하도록 작가·예술인들을 독려하기도 했다.³⁸⁾

주체문예이론은 사회적 성격규정과 더불어 민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재해석을 시도하여 계승해야 할 것을 주장하면서, 항일혁명문예의 전통과 아울러 민족의 문화유산들도 중시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단순히 사회주의적 미학의 추구로서 항일혁명문예의 계급성만을 추구하는 것은 민족의 문제나 민족주체의 정립을 간과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주체사상 자체가 항일운동이란 민족적 실천을 통하여 형성된 것이기에 주체문예론 또한 강렬한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항일 빨치산 시기 이전의 문예물들을 재평가하고 항일혁명문화도 민족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려 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형식과 내용을 계승하자며 민족 주체적 문화의 계승과 창조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³⁹⁾

결국 주체문예이론은 주체사상의 확립과정과 더불어 문예라는 대중적인 매체를 통해 김일성부자의 예찬과 당의 정책과 노선을 전파하여 김일성 체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7) 북한이 주장하는 “고난의 행군” 정신은 김일성 사망과 뒤이은 자연재해 및 경제난 심화 등에 따른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대중 노력 동원 캠페인이다. 김정일은 1990년대 중반 시기를 1938년 겨울관동군의 대추격 속에서 혁명역량을 보존하고 새로운 반격을 준비하기 위해서 남페자에서 장백지구까지 100일간에 걸쳐 김일성과 항일빨치산들이 강행군한 것을 고난의 행군에 비유했던 것이다. 북한은 역대 ‘고난의 행군’에 대한 역사적 개념을 정리하면서, 김일성이 1938년 12월부터 1939년 3월까지 중국 몽강현 남페자(현 길림성 정우현)에서 압록강 연안 장백현까지의 100일간의 행군을 ‘첫번째 고난의 행군’,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전후하여 천리마 운동이 전개되었던 시기까지를 ‘두 번째 고난의 행군’, 그리고 상기 1995-1997년 간을 ‘세 번째 고난의 행군’으로 평가하고 있다.

38) 김윤영, 『김정일 체제의 위기와 위기관리』 (용인: 치안정책연구소, 2005), 18면.

39) 전영선, 『북한의 문학예술 운영체계와 문예이론』, 188면.

2) 종자론

주체문예이론의 구체적인 예술작품 창작방법으로 ‘종자론’과 ‘속도전’이라는 독특한 개념이 제시되었다. 종자(種子)론은 1970년대부터 도입된 문예 이론으로 김정일의 ‘영화예술론’에서 정식화되었다.

김정일은 영화예술론을 통해서 종자란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⁴⁰⁾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바탕으로, 그 가치를 담보하는 결정적 요인”,⁴¹⁾ “소재와 주제, 사상을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품의 기초이며 핵”⁴²⁾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종자란 말 그대로 문예 작품의 사상예술적 핵심을 의미한다. 작품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핵심적인 미적 요소이자 사상적 요소가 종자라는 것이며, 이 두 가지 요소 가운데서도 사상성을 더 중요시 취급한다.⁴³⁾ 종자에 있어 기본은 사상에 두어야 하고 소재와 주제의 요소들은 사상적 알맹이에 의하여 제약되며 거기에 복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체문예이론이 미학의 원리라면 종자론은 예술창작에 있어서 실천 강령으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 문제이자 작품의 사상예술적인 핵이라 할 수 있다.⁴⁴⁾

김정일은 수령형상 문예창작에 있어 종자란 김일성주의라고 설명하고 있다.

40) 김정일, “영화예술론”(1973.4.11)(『김정일선집(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45면.

41) 위의 책, 47면.

42) 위의 책, 45면.

43) 종자에 있어 기본은 사상에 두어야 하고 소재와 주제의 요소들을 사상적 알맹이에 의하여 제약되며 거기에 복종된다. 종자의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 정책의 요구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종자의 본성은 작품의 사상예술적핵으로 된다는데 있다. ... 작품의 주제와 사상은 종자에 의하여 규정되며 예술적형상도 종자에 따라 좌우된다. ... 창작가들이 자신을 사상미학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문학예술사건』, 769-770면).

44) 『문학예술사건』, 769-770면.

“종자는 수령의 혁명사적에서 찾아내게 되며 수령의 위대한 품모를 높이 부각시키는 방향에서 실현되게 된다. 종자 뿐 아니라 주제나 사상인 경우도 같다. 작품의 주제는 수령의 품모와 혁명활동, 업적과 관련되는 문제로 되어야 하며 사상은 수령의 위대성을 높이 칭송하려는 작가의 사상미학적 주장으로 나타나야 한다.”⁴⁵⁾

결국 ‘종자의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 정책의 요구에 맞는 것’⁴⁶⁾이라고 할 때, 종자론은 문예를 통해서 김일성 유일사상과 당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귀착된다. 그리고 ‘종자=김일성주의’라 할 때, 주체사상이나 김일성주의의 실천적 강령이 종자론이라 할 수 있다.

3) 속도전

속도전⁴⁷⁾에 대한 용어는 1950-1960년대를 통하여 주민들의 노력동원 과정에서 나타난 노력경쟁운동을 의미한다. 이 용어가 논리적으로 체계화된 것은 1970년대 초반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1970년대 초에 조선 예술영화촬영소에서 예술영화 <한자위단의 운명>을 제작하던 중 영화제작에서 낡은 틀을 타파하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창조성원들이 ‘제작사업에 전력함으로써 종전 같으면 1년은 걸린 영화를 불과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한 것이 속도전의 효시라고 주장한다. 이후 김정일은 이러한 경험을 문예 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 전투양식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45) 김정일, “주체문학론”(1992.1.20), 『김정일선집(II)』(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447면.

46) “종자를 골라잡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활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의 요구에 맞는 종자를 골라잡는 것이다”(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북한의 문예이론: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215면).

47) 1974년 2월 북한 노동당 중앙위 5기 8차 전원회의에서 공식화된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원칙이다. 1974년 2월 18일자 노동신문에 의하면 속도전은 “집단의 성원들이 혁명적 열정을 높이고 일을 짜고들어 자기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동원하며 일단 시작한 일은 전격 전·섬멸전으로 전개, 속도를 높이는 가장 우월한 혁명적 전투원칙”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예작품 창작의 제일 요건이 종자라고 할 때 이 종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속도전이다. 문예창작에서 속도전이란 ‘작가, 예술인들의 정치적 자각과 창작적 열의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가장 짧은 기간에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작품을 성과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당사상사업의 요구를 제때에 정확히 관철해나가는 혁명적인 창작원칙이며 창작전투의 기본형식’⁴⁸⁾을 의미한다. 문예창작에서 속도전의 요체는 단기간 내에 사상예술성이 높은 우수한 작품을 많이 창작해 내는데 있다. 다시 말해 속도전이란 문예작품을 빨리 창작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혁명사상과 당의 유일사상에 맞추어 단기간 내에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함축할 수 있다.

김정일은 “창작에서 속도전을 벌리려면 반드시 종자를 바로 쥐여야 하며 작품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하고, “창작에서 종자를 바로 잡는것은 속도전의 선결조건으로 된다.”⁴⁹⁾고 강조하면서 종자와 속도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정일은 예술 창작에서 속도전을 벌일 때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가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 정신적 무장이라고 했다. 즉, “속도전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것은 결정적으로 문학예술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사상정신상태에 달려 있다”⁵⁰⁾는 것이다.

김정일이 속도전 방침에 대해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건설의 기본 전투형식 문제가 해명되었으며 노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이론실천적 무기를 가지게 되었다”⁵¹⁾고 설명하듯이, 그가 주체의 문예이론에서 속도전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김일성과 당이 제시하는 노선과 정책을 빠른 속도로 문예작품에 반영

48) 김정일, “영화예술론”, 366면.

49) 위의 책, 369면.

50) 위의 책, 371면.

51) 『조선백과사전』 14권(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355면.

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사상의식 강화 수단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결국 속도전은 문예작품 창작 과정에서 개인의 역량보다는 조직을 통한 실천을 강조한 것으로 창작자들을 조직화·집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문예창작과정을 통해 김일성의 교시를 관철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4) 문예활동의 제도정비

김정일은 1970년 이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문예부문에 구체화시키는 정치·사상투쟁을 주도하는 한편, 문예활동의 제도를 정비하고 작품에 대한 심의제도를 개선하는 문예정책을 추진하였다.

김정일은 제도정비 차원에서 문예창작에 대한 당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문예체계를 정비하였는데, 이것이 구체화된 결과가 김일성이 제안하고 김정일이 실천하였다는 3위 1체이다. 3위 1체는 수령을 중심으로 노동계급의 당과 문학예술행정, 사회단체가 문예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⁵²⁾ 다시 말해 3위 1체란 작가들은 문예총이나 작가동맹과 같은 조직에 소속되어 작품을 창작하고, 문화성과 같은 행정조직은 창작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작품의 내용이나 작가의 활동은 당이 감독한다는 것이다.

3위 1체하에서의 작가는 문예창작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문예조직과 행정조직 그리고 당의 규제 아래 창작활동이 장려되기 때문에 작가의 자율적인 영역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반면에 당의 지배력은 강화되었다는 의미이다. 문예총이나 작가동맹의 위상 역시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당의 지배력은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은 3위 1체와 함께 문예에 대한 심의제도를 개편하였다.⁵³⁾ 김

52) 현종호·홍국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학예술업적 3: 우리식 문학예술사업체계의 확립과 작가, 예술인 대오육성』(평양: 문예출판사, 1990), 34-49면 참조.

정일은 심의제도가 미비하여 작품창작에 혼란이 온다고 판단하고 작품심의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작가들은 개별 작품을 심사하는 ‘심의성원’의 ‘종합심의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존중’해야 하며,⁵⁴⁾ 심의성원은 작품창작이 완성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심의성원은 ‘개인적인 취미’로 작품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의 혁명사상과 당의 정책, 김일성이 제시한 문예에 대한 교시와 문예방침’에 따라 작품을 심의해야 한다.⁵⁵⁾ 김정일이 강조하는 ‘집체창작’ 또한 작품창작 과정에서부터 작가 개인들의 문화적 가치나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구조 장치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문예통제방법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은 문예창작에 대한 새로운 심의제도를 통해 작가 개인의 취향보다는 수령의 혁명사상과 당의 정책, 김일성 교시 등에 부합되는 작품이 아닌지를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여 문예에서 당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였고, 궁극적으로는 김일성 우상화를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1972년 개정헌법에서는 문화에 대한 장을 독립시킴으로서 제도의 정비를 더욱 확고하게 추진했다. 개정헌법에서 문화를 다루고 있는 부분은 제3장 35조에서 48조까지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북한이 추구하는 문예정책의 이념과 국가의 역할이 명시되었다. 개정헌법의 문화관련 조항들은 북한이 문예정책을 통해서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지향하며 주민들을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양성시키고자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53) 위의 책, 53-57면.

54) 김정일, “영화창작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영화문학작가들과 연출가들 앞에서 한 연설 1971년 2월 12일)” 『김정일선집(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174면.

55) 김정일, “영화창작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176면.

5) 수령 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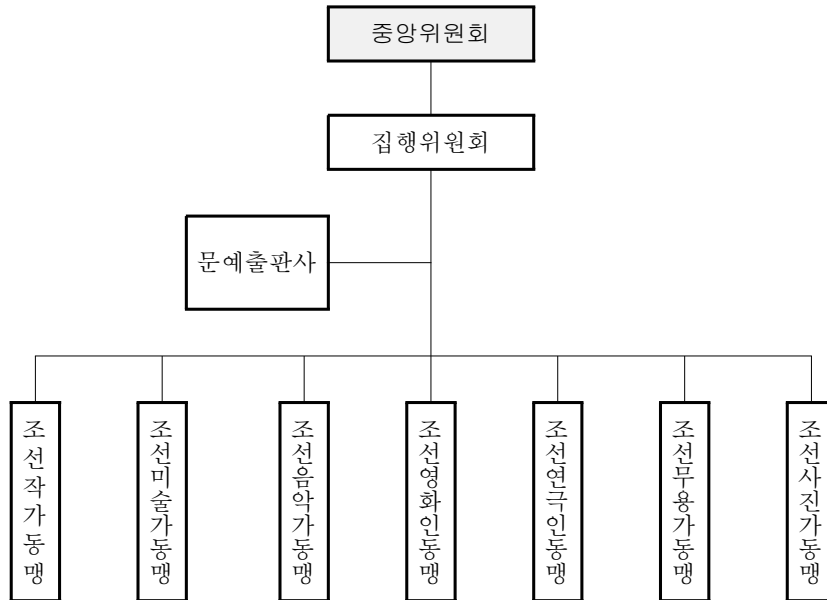
1970년대는 문예활동의 제도정비와 더불어 문예관에 적합한 문예작품 창작을 독려하기 위해서 김정일은 ‘수령형상화’라는 새로운 작품경향을 제시하였다.⁵⁶⁾ 김정일은 1972년 9월 6일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하 문예총)⁵⁷⁾ 산하 창작가들의 사상투쟁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결과 연설문을 통해 문예총 산하 당원들과 창작가들이 여전히 수정주의, 사대주의, 봉건유교사상,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으로 비판하는 한편,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열정’을 회복하여 “수령님의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리론을 창작의 지침”으로 삼아야할 것을 강조하였다.⁵⁸⁾

56) 김정일은 “수령의 위대한 품모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수령의 혁명역사와 업적을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형상해야 한다.”(김정일, “주체문학론”, 『김정일선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437면)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령의 혁명역사’와 업적을 체계적, 전면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김정일의 독창적 이론이라는 ‘총서’ 형식의 장편소설을 창작하고 있다. 김일성의 위대성을 형상한 장편소설 총서 <불멸의 력사>와 김정일의 위대성을 형상한 장편소설 총서 <불멸의 향도>가 있다.

57) 문예총은 민간단체로 포장되어 있지만 북한의 모든 문학예술활동이 당의 정책과 주체사상에 충실하도록 문학예술 업무를 조직·운영하는 실질적 통제기구이며, 전업 문예인의 등용과 축출까지 결정한다. 문예총은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의 지도·통제를 받으며, 내각 문화성의 행정적 관리아래 문예작품의 생산계획까지 하달 받고 있다. 문예총은 해방 직후 소련군 당국과 북한 집권자들이 당시 북한지역에 있던 평양예술문학협회를 강제 해산하고 1946년 3월에 ‘북조선 문학예술가동맹’을 결성한 후, 그 해 10월에 각 부문별 동맹을 두는 ‘북조선 문학예술총동맹’으로 개칭한 것이 그 모체이다. 그 후 1951년 ‘남조선 문학단체 총연맹’과 합하여 ‘조선문학예술 총동맹’이라는 단일조직으로 개편되었다. 1953년에는 이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작가동맹, 작곡가동맹, 미술가동맹의 3개로 개편되었는데, 1961년 문예총 결성대회에서 다시 이들 3개 단체를 통합하여 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개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문예총 산하에는 작가동맹과 음악가동맹, 미술가동맹, 연극인동맹, 영화인동맹, 무용가동맹, 사진가동맹 등 7개 단체가 있다. 그리고 각 공장과 기업소 및 협동단체 등에는 예술소조가 조직되어 있다. 근로인민대중들의 예술활동은 이러한 소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술소조는 문예총과 별개의 군중문화단체로 활동하지만, 소조원들의 창작품은 각 동맹의 기관지에 발표되기도 한다.

58) 김정일,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조선문학예술총동맹산하 창작가들의 사상투쟁회의에서 한 결론 1972년 9월 6일)”, 『김정일선집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432-433면.

<표 3-2> 조선문학예술총동맹⁵⁹⁾



김정일은 1973년 영화예술론을 통하여 문예이론에서도 주체사상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주체적 문학예술’을 ‘새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공산주의적 문학예술’로 공식화함으로써,⁶⁰⁾ 새로운 문예창작 기법이라 할 수 있는 수령형상문학을 정립하게 되었다.

김정일은 1974년 5월 7일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제3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출판·보도부문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이바지하는 사상적 무기이다”는 연설을 통하여 조선노동당 출판보도물을 김

59) 문예총의 각 동맹산하에는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각 시·도에는 총동맹 시·도위원회와 부문별 동맹 시·도위원회가 있다(『문학예술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502면: 『2000 북한개요』, 503면).

60) 김정일은 영화예술론에서 “새로운 역사적시대를 반영하는 문학예술은 응당 주체의 문학예술로 되어야 한다. 주체의 문학예술은 새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공산주의적 문학예술이다”고 주장했다(김정일, “영화예술론”, 30면).

일성주의로 일색화하여 당의 정책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교양사업에 충실해야할 것을 역설한 바 있다.⁶¹⁾ 이는 문화, 예술, 언론, 출판 등이 김일성 우상화와 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사상적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김정일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1970년부터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서 수령형상화라는 문예창작기법을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다. 수령형상화는 말 그대로 수령의 위대성을 그리는 것으로 “당원과 노동자들이 수령님의 위대성을 전면적으로 깊이 체득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수령님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일편단심 수령님을 충직하게 받들고 따르도록 한다”⁶²⁾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수령형상 창조를 통해 주민들로 하여금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알고 수령을 중심으로 존경하고 받들며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깊이 새기고 수령의 위업에 충실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문예작품을 통한 김일성주의로 일색화하는 작업은 연극이나 가극분야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전 시기 김정일이 지시했던 혁명가극 <성황당>이 수차례의 시연과 수정 작업을 거친 후 <성황당>의 대본을 완성(1978.2)하고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초연(1978.8.31)되었다. 김정일은 <성황당>을 혁명연극의 첫 작품으로 선택한 것에 큰 만족감을 나타내며 ‘<성황당>은 인류 연극사상 최초로 독특한 긍정인물을 주제로 풍자 희극화한 특징이 있다’라고 그 독창성을 강조하면서, “《성황당》은 우리당이 내놓은 혁명적연극창조에 관한 주체적문예리론과 방침이 빛나게 구현된 첫 작품”⁶³⁾으로 평가했다.

김정일은 수령형상문예 작품의 창작을 독려하고자 장르별로 창작단체

61) 이 문헌은 북한 신문, 보도, 출판물의 기능과 사명을 규정한 김정일의 연설로 일명 ‘5.7문헌’으로 불리기도 한다. 오늘날 북한 언론, 출판활동의 교본이기도 하다(『김정일 주체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125-138면).

62) 윤기덕, 『수령형상문학』(평양: 문예출판사, 1991), 163-164면.

63) 김정일, “연극예술에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8년 4월 20일)”, 『김정일선집(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166면.

를 결성하여 집체적 창작방법을 정착시켜 나갔다. 김정일은 문예창작에 있어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으로 하는 ‘집체창작단’을 중요시하고, ‘집체 창작은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보았다. 새로운 혁명문학은 수령형상의 창조이고, 수령을 올바르게 형상화하고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창작집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⁶⁴⁾ 이에 따라 영화부분의 ‘백두산창작단’(1967.2)과 문학부문에서의 ‘4·15창작단’(1967.6)을 조직하였는데, 이들은 작가동맹에 소속되어 수령형상문예창작을 주로 담당하게 되었다. 결국 김정일이 수령형상창조 전문창작집단을 설립한 것은 작가들을 당의 유일적 지도 밑에 두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령형상 창조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주체문예의 완성기(1980-1990년대 초)

1980년대의 북한은 주체적인 문예정책을 확립하여 북한 정권이 추구하고자 하는 지향점과 그 맥락을 같이하도록 했다.⁶⁵⁾ 당시 북한의 문예정책에 드러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조선민족제일주의’ 등은 주체사상의 확립과 수령 독재체제에 대한 공고화와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이라는 외부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급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 제2차 문예혁명

1970년대 중반 김정일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첫 번째 문예혁명⁶⁶⁾ 이어

64) 김정일, “4·15 문학창작단을 내올데 대하여(1967.6.20)”, 『김정일선집(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47면.

65) 1990년대의 북한의 문예정책은 그 이전까지의 모습과는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북한의 문예정책이 추구하는 정치적 선전선동의 의미는 여전히 지속되었으나, 당시 북한의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문예정책의 지향점은 다소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66) 제1차 문예혁명은 김정일이 공식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하면서 후계자 교육을 받는 시기에 이루어졌다. 1차 문예혁명의 목적은 김정일의 주도하에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혁명전통을 공고히 하며, 절대적인 권위로 신격화하는 것이었다. 김일성 가계에 대한 절대화를 통해 김정일 자신

1990년대 초 두 번째 문예혁명이 진행되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문예인들의 무사안일과 나태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김정일은 1992년 5월 23일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전선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는 제하의 글을 통하여 ‘일부 창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문학예술혁명이 이미 1970년대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며,⁶⁷⁾ 특히 “일부 창작가들은 지난 시기에 쓰던 창작방법과 창작태도를 구태의연하게 되풀이하면서 우리시대 주인공들이 지니고 있는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진실하게 그리지 못하고”⁶⁸⁾ 있는 것으로 비판하는 한편, “창작가, 예술인들은 문학예술작품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상가, 탁월한 정치가, 천재적인 전략가로서의 우리 수령님의 높은 권위를 깊이 인식시켜며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존경심과 흠모의 정을 키워주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라고⁶⁹⁾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이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완전히 개조될 때까지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예인 대다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대중들로부터 유리된다고 비판하면서, 문예정책의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였다.

제2차 문예혁명이 진행된 1990년대 초반은 급격한 사회주의권 변화와 동서독의 통일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이 작동했던 시기였다. 동시에 김정일이 현장에 대한 실무지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김정일이 최고 권력에 접근함으로써 세부적인 지침을 더 이상 내릴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다시 한 번 문예부문에 대한 실무지도를 통해 입지를 강화하고자 했던 것으로 내용적인 면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다. 작품

이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후계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67) 김정일,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전선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 예술인들과 한 담화, 1992년 5월 23일)”, 『김정일선집(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76-77면.

68) 위의 책, 88면.

69) 위의 책, 79면.

의 변화는 보이지만 이는 부분적이며 세부적인 변화이지 전반적인 변화는 아니었으며, 이전에 강조해 오던 문예이론들이 여전히 강조되었다.⁷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이념의 창출도 미비한 상황이다. 다만 인민들의 노동계급화와 혁명화에 두어졌던 작품의 중심 주제가 김정일 체제의 보위의식 함양으로 옮겨지는 등 무게 중심의 차이는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의 통치자로 김정일을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진 ‘실천적 산물’로 ‘피바다=김일성’, ‘민족과 운명=김정일’ 등식으로 나타났다.⁷¹⁾

이와 같이 특별한 이론적 변화 없이 표면적으로 ‘문예계의 나태와 안일’에 기인해 진행되었던 제2차 문예혁명의 정치적 의미는 김정일 후계체제의 완료 및 김정일 체제 출범이라는 의미가 더욱 크다.⁷²⁾

첫째, 문예혁명 시기에는 문예 분야와 관련한 김정일의 이론서들이 창작되었다. 제1차 문예혁명기인 1973년 4월에는 『영화예술론』이 발표되었으나, 제2차 문예혁명기인 1992년을 전후해서는 『무용예술론』(1990.11.30), 『건축예술론』(1991.5.21), 『음악예술론』(1991.7.17), 『미술론』(1991.10.16), 『주체문학론』(1992.1.20)⁷³⁾ 등 주체사상에 기초한 일련의 사회주의적 문예이론에 관한 다양한 저술들이 체계적으로 발표되었다. 그리고 김정일이 어린 시절에 창작했다는 <공화국 기발>, <초상화> 등의 동시들이 발표되기도 했다.

70) 제2차 문예혁명에서는 제1차 문예혁명기간 동안 강조되어온 속도전적 요소 등이 여전히 강조되었다.

71) 김용범 외, 『90년대 북한 문화예술계의 정책적 변화양상과 향후 남북문화교류 방안』 정책과제 98-3(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22-23면.

72) 위의 책, 23-2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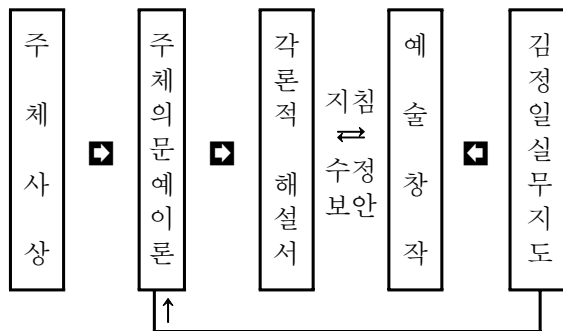
73) 주체문예이론서 가운데 핵심은 『주체문학론』이다. 『주체문학론』은 김정일이 지향하는 문예관의 총체적 개론서에 해당하지만, 영화, 연극 등의 각 장르별 이론서들이 발표된 이후에 가장 늦게 발표되었다. 이미 앞선 이론서들 역시 주체문학론에 입각하여 쓰여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시기가 가장 늦었던 것은 실무지도와 각론적 해설서를 통한 문예 현장에서의 적용과 문제를 검토한 이후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즉, 예술창작의 현장에서 실무 지도를 통해 구체적인 창작방법이 구체화되고 검증된 이후 이를 정리하였던 것이다(전영선, 『북한의 문학예술 운영체계와 문예이론』, 177면).

<표 3-3> 주체문예이론의 흐름도



김정일이 발표한 각론적 문예 이론 지침서들은 김정일의 실무지도 내용을 이론화하는 경우와 각론 이론서를 근거로 창작된 예술창작물에 대한 김정일의 이론, 그리고 문예단체나 조직의 운영에 대한 정책 지시 등이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북한의 모든 작가들과 문예단체들의 구성원들은 김정일의 실무지도 내용이 집약된 이론서에 근거하여 작품창작에 임하고 있다. 이시기를 통하여 주체사상의 역사적 변화 과정과 내용들은 김정일의 문예관리에 주된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

<표 3-4> 예술창작에서 행해지는 실무지도의 과정⁷⁴⁾



74) 문화체육부, 『김정일 문예관 연구』 (서울: 문화체육부, 1996), 10면.

둘째, 제2차 문예혁명은 문예인들의 세대교체에 있었다. 특히 작가들에 대한 세대교체가 두드러졌다. 김정일은 1992년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는⁷⁵⁾ 담화를 통해 문예계의 세대교체를 역설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인위적인 세대교체를 지시한 것으로 이후 두각을 나타냈던 신예 또는 중견 작가들로는 동기춘, 홍석중, 강능수, 김만영,⁷⁶⁾ 이성식, 원영실, 김영애, 남대현, 장형준, 전권, 석란희 등 20여명 정도이다. 이들 작가들의 작품은 주제가 다양하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주제와 소재의 다양화는 사상만을 강조한 기존의 작품들이 청소년 등 주요 독자층으로 외면당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대중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였다.⁷⁷⁾

영화계 역시 주제와 소재의 다양화와 더불어 신인들의 출현으로 인한 세대교체가 단행되었다. 영화부문의 변화는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이 기점이 되었다. 이 영화에서는 예전의 북한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남한의 카페풍경과 대중가요가 삽입되기도 했다.⁷⁸⁾

75) 김정일,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 예술인들과 한 담화 1992년 5월 23일)”, 『김정일선집(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61-112면.

76) 김만영은 김일성을 애도하는 추모 서사시 <위대한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네>로 급부상하였다. 장형준은 평론계의 대표주자이고 이성식과 <청춘송가>의 남대현은 소설계에서 새바람을 일으킨 작가들로 급부상했다.

77) 이에 해당되는 작품으로 단편소설 <사랑의 물소리>, <종달새>, <거대한 날개> 등이 있다. 양의선의 단편소설 <거대한 날개>(《조선문학》 1993.1호,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에서는 구체적인 애정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즉, “... 그는 아연해 있는 보옥을 다짜고짜 끌어 안았다. 보옥은 부끄러웠다. 부끄러우면서도 온몸과 얼굴로 그 품속에서 더 깊이 파고들었다.”, “처녀의 이와 같은 아름다움은 림옥으로 하여금 야릇한 위축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늘씬한 키, 미출한 다리, 설렁한 목 ...”(《거대한 날개》 중).

78) 조명이 휘황한 남한의 카페풍경과 그 카페에서 노래 부르는 여가수와 남한의 대중가요들이 영화 속에 삽입되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상투적인 북한체제 찬양물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영화에 삽입된 남한의 대중가요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널리 불리어지기도 했다. 영화에 삽입된 남한 가요로는 <그때 그 사람>, <낙화유수>, <홍도야 우지마라> 등이다.

셋째, 김정일의 권력장악을 기본 명제로 그를 ‘인민의 아버지’로 묘사한 작품들이 1992년 이후 본격적으로 창작되기 시작했다. 김일성 사망 이후에는 김정일을 지도자로 정당화하고 찬양하는 문예작품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들 작품에서는 김정일을 수령에 버금가는 인물로 묘사하고, 원수나 아버지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가요로는 <우리의 아버지 김정일 원수님>과 <우리 아버지> 등이 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제2차 문예혁명이 추구하는 바가 바로 대중성에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영화, 소설, 음악 등에 다양성이라는 새로운 바람을 주입하고 있는 것도 대중성이라는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결국 ‘인민대중’이 읽고, 보고, 듣고 싶어 하는 문예창작물을 전파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사상교양에 실효를 거두겠다는 것이다.⁷⁹⁾

2)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북한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를 관통하여 주체의식을 고조시키기 위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들고 나왔다.⁸⁰⁾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하면 ‘인민대중’이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고 수령·당·대중이 사상 의지적으로 혼연일체로 통일 단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도와 대중의 결합’은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영도이며 그것은 곧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수령의 두리에 조직 사상적으로 통일 단결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는 인민대중이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인민대중이 오직 옳은 지도를 받

79) 김용범 외, 『90년대 북한 문화예술계의 정책적 변화양상과 향후 남북문화교류 방안』, 25면.

80) 북한 주체사상의 특징은 ‘수령에 의한 국가 및 인민들에 대한 지도’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즉, 미숙한 대중들은 수령이라는 뇌수로 인해 진정한 하나의 개체로 존재할 수 있으며, 진정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민들은 생명을 불어넣어 준 수령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며 마치 하나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처럼 지극한 효성으로 수령을 모셔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생겨난 이론이 ‘사회주의 대가정’이다.

을 때에만 자주적인 주체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⁸¹⁾

북한의 문예정책 역시 “당의 령도는 로동계급의 혁명적 문학의 생명선이다”⁸²⁾라고 강조하면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잘 구현해야할 것을 강조한다. 때문에 문예작품 창작에서는 수령을 아버지로, 인민들을 충실한 효자로 설정하고 혈연적 관계로 이끌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수령과 대중 사이에 혈연적 유대를 기본으로 ‘충신과 효자’를 묘사한 작품들은 주체 문예창작의 전형이 되었다. 따라서 주체문학론에서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바탕으로 한 전형의 창조를 중요시하고 있다. 김정일은 “주체문학론”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존재와 활동원리에 맞게 문학의 모든 문제를 새롭게 풀어나가야만 공산주의문학건설의 역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해 나갈수 있다. 우리 문학에서 사회정치적생명체는 영원한 형상원천으로 된다. 사회정치적생명체는 우리 문학이 오늘은 물론, 미래에도 영원히 형상의 원천으로 삼고 시종일관 옹호하고 복무하여야 할 항구적인 대상이다. 문학의 형상원천에 관한 문제는 그 복무대상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작가는 원래 자기가 복무하는 계급의 이해관계와 요구에 따라 형상대상을 설정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복무하는 작가는 혁명의 자주적주체인 사회정치적생명체를 형상의 기본원천으로 삼게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는것은 수령, 당, 대중의 관계이다. 수령, 당, 대중의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리해할수 없고 그 본질을 밝혀낼수 없다. 문학이 우리 나라의 현실을 진실하게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마땅히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관계를 화폭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사회정치적생명체를 형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수령, 당, 대중의 3위1체의 원칙을 구현하는것이다.”(밑줄 필자)⁸³⁾

위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김정일의 문예정책에 드러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수령, 당, 대중’이란 ‘3위 1체’ 아래 혁명적인 수령관을 확립

81) 고유한, “김정일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론”, 『안보연구』 (서울: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1994), 26면.

82) 김정일, “주체문학론”, 『김정일선집(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575면.

83) 위의 책, 421면.

하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수령중심의 1인 체제를 보장받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동시에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중국의 개혁·개방 그리고 체제내부에 만연한 경제난 등 여러 위기 요인 아래 사회를 통합하고, 북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대내외적으로 강조하고자 한 위기관리 차원에서 강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북한 문예정책에 반영된 ‘사회주의 생명체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5> 북한 문예정책의 사회주의적 생명체론

기능	문예정책에서 사회주의적 생명체론
수령독재 정당화	·혁명의 주체는 수령·당대중의 3위 1체의 명제 아래 수령관을 확립하여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 ·혁명적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영도 하에 조직 사상적으로 통일 단결시키기 위한 것.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하여 개인의 육체적 생명의 유한성과 구별되는 사회정치적 생명의 영생을 강조함으로써, 수령중심의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를 확립하고, 수령의 계승 즉, 김일성-김정일 권력계승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
체제유지 공고화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중국의 개혁·개방, 북한 내의 경제난 등의 위기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통합 강조. ·북한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강조.

3) 조선민족제일주의⁸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은 1980년대 후반의 수정주의와 교조주의 그리고 사대주의에 의한 잘못된 사조(思潮)가 체제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잘못된 사조들의 유입은 제국주의의 사상침습이 주된 요인이라 보았다.⁸⁵⁾ 당시 북한은 사회주의권이 급변하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

84) 김윤영, “김정일 체제의 위기와 위기관리”, 43-47면.

85) 김정일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는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사상교양사업을 약화시키면 부르조아자유화바람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공공연한 침략에 앞서 사상적침투를 감행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수법입니다. 사회주의나라에 부르조아자유화바람을 불어넣어 내부로부터 사상적으로 와해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해서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민족적 구호’를 통하여 개혁과 개방에 동요하는 ‘사대주의자’를 경계하였다.

북한은 소련이나 동구 그리고 중국과는 다른 특별한 사회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있기 때문에 제국주의의 사상적 침투를 차단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1985년을 기점⁸⁶⁾으로 하여 ‘조선민족제일주의’⁸⁷⁾라는 민족주의를 대대적으로 동원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강조하게 된 것은 소련이 추진한 페레스트로이카의 영향에 따른 충격 때문이기도 했다.⁸⁸⁾ 고영환의 『우리민족제일주의론』(1989, 총 206면)⁸⁹⁾은 ‘민족주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정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민족주의’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개념에 근거하여 정의하는 등 ‘민족주의’를 거부하여 왔다.

북한은 1985년부터 민족의 징표와 민족주의를 해설하는 논문들을 대거 발표하기 시작했다.⁹⁰⁾ 김정일이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986.7)를 통하여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을 강조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담화, 1991년 5월 5일”, 『김정일선집(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67면).

86) 1985년까지만 해도 민족주의를 “전인민적 리익을 내세우면서 자기민족내의 부르조아지의 리해관계를 합리화하는 사상, 결국 계급적 모순을 은폐하고 로동계급이 자기의 근본리익을 위하여 투쟁할 수 없게 하며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약탈을 합리화하는데 복무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족주의를 거부하여 왔다.

87) 북한이 1985년 이후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그동안 민족주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종래의 시각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복권작업을 시도하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김정일, “조선민족 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당중앙위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9년 12월 28일)”, 『김정일선집 (9)』,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443-468면 참조). 그 결과 민족, 민족성과 그 귀결인 ‘애국애족’이 주체사상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강조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 하나는 ‘조국통일 위업의 달성’을 위한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나타나고, 다른 하나는 대내적으로 민족문화유산 발굴 작업을 벌이는 것과 함께 ‘김일성조선’(1995.1), ‘김일성민족’(1995), ‘김정일민족’(1996.7), ‘김일성-김정일민족’(1998.9)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

88) 1985년은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기 시작한 해였다.

89) 고영환, 『우리민족제일주의론』, 평양: 평양출판사, 1989.

90) “정론 민족의 징표”, 『남조선문제』, 1985.10; 리규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민족의 개념에 대한 리해”, <사회과학>, 1986.2; 최길산, “우리당이 밝힌 민족문제에 관한 리론”, 『남조선문제』, 1986.2; 고영환, 『우리민족제일주의론』 등이 있다.

면서 ‘우리 민족제일주의’가 본격적으로 강조되었다.⁹¹⁾ 김정일은 민족을 구성하는 ‘민족의 징표’로 ‘핏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⁹²⁾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민족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모든 논문에서 교과서적으로 인용되고 있다.⁹³⁾ 북한의 민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사회주의국가들이 겪고 있는 개혁과 개방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폐기하고 민족주의, 그것도 핏줄과 언어의 공통성으로서의 민족주의를 강조한 것은 조선 민족은 중국, 소련,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민족과는 핏줄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다는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북한이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독자노선과 ‘우리식 사회주의’ 노선을 더욱 더 공고히 하고자 하는 전략이 내포된 것이다.⁹⁴⁾ 특히 김정일의 다음과 같은 연설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가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 민족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정신과 높은 민족적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깔보고 남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당과 인민에게 충실할 수 없으며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수 없습니다. ... 우리는 큰 나라들의 역할을 응당하게 평가하고 그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주성을 쫓아내고 큰 나라들이 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따

91) 김정일은 “내가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 민족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정신과 높은 민족적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김정일, 『김정일 선집 제8권』, 444면)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김정일의 주장은 이론적, 논리적인 보완을 거쳐 1989년 9월에 고영환이 『우리민족 제일주의론』(조선로동당출판사)이라는 단행본을 발행했다. 그리고 김정일은 동년 12월 28일 당중앙위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조선민족 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김정일 선집(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443-468면)에서 우리민족제일주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92) “민족성을 이루는 기본징표는 핏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이며 이 가운데서도 핏줄과 언어의 공통성은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로 됩니다”(“정론: 민족의 징표”, 『남조선문제』, 1985.10, 14면).

93)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민족의 징표에 관한 개념을 전면적으로 해부하시고 주체의 방법을 적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으로 결합하는 공통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핏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이라는 것을 천명하심으로써 민족에 관한 주체적인 학설의 기본내용을 더욱 뚜렷이 밝혀주시었다”(리규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신 민족의 개념에 대한 리해”, 6면).

94) 서재진,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분석』(서울: 통일연구원, 2001), 99면.

라가서는 안됩니다. 친선도 자주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또 자주적인 립장에서만 참다운 친선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가 사상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처럼 민족의 위대성도 무엇보다 그 민족의 지도사상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데 따라 규정됩니다.”⁹⁵⁾

위 인용문에서와 같이 김정일이 발표한 담화의 시기(1986)를 고려해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큰 나라나 선진국’이란 소련이나 중국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들 나라의 경험’이란 체제의 개혁·개방을 지칭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김정일은 소련과 중국 등의 개혁과 개방 정책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경계하며, 북한의 현실에 맞게 자주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부정하지 않고 있다. 김정일은 사회주의권이 급변하는 위기상황 속에서 생존권 차원에서 민족주의를 들고 나왔던 것이다.

이 시기의 문예정책 역시 민족주의적인 경향의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의 주체문예이론은 민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해석을 시도하며 민족문화에 대한 허무주의와 복고주의를 경계하는 한편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계승을 주장하였다.⁹⁶⁾

1967년 문예계의 반종파투쟁 이후 북한은 과거 조선의 실학과와 일제시대의 카프전통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이런 것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애국주의나 민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실학이나 카프전통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민족허무주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⁹⁷⁾ 1990년대 들어서는 민족문화의 범주에 김일성의 ‘혁명적문화예술’을 편입시킴으로써 민족의 전통성에 김일성 가계의 정통성을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북한이 국제사

95)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444면.

96) 김정일, “주체문학론”, 380면 참조.

97) 위의 책, 379-395면 참조.

회에서 느끼는 체제붕괴의 위협을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민족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민족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북한이 1990년대 문예의 대표작으로 평가하는 다부작 영화 <민족과 운명>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시대사조를 반영한 것으로, 김정일은 이 영화 제작에 있어 작품의 주제와 사상, 인간관계 등 구체적인 형상방법에 이르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지도하여 조선민족제일주의 사상을 높이 구가(謳歌)하여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권의 해체 과정을 지켜 본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감지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위기관리 차원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⁹⁸⁾ 주창하고, 이를 문예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북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 다르며 ‘제일’이라고 내세우는 원천이 ‘인민’의 풍요로운 물질생활이나 사회보장, 민주주의가 아니라, ‘김일성과 김정일, 주체사상, 혁명전통,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 민족의 고유한 역사’에서 나온다는 것이다.⁹⁹⁾ 결국 김정일이 위기관리 차원에 내세운 조선민족제일주의는 민족적 우월성을 내세워 몰락한 기존 사회주의 국가와 차별성을 부각시켜 인민들의 사상동요를 방지하고 체제결속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창한 새로운 통치방식이라 할 수 있다.¹⁰⁰⁾

98)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은 단군왕릉 발굴복원작업과 함께 민족문화유산의 발굴계승 작업에 힘을 쏟는 근거가 되었다. 1993년 12월에 개최된 당중앙위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는 민족유산의 계승발전문제를 의제로 채택하고 이를 중요사업으로 제시했다. 그 결과 단군왕릉을 1993년 2월 이건(移建)했고, 1993년 9월 23일에는 “단군의 유골과 유물을 발굴했다”고 발표하는데 이어서,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과 고려의 시조 왕건의 능을 1993년 5월과 1994년 1월 각각 개건 및 복원했다고 밝혔다(이찬행, 『김정일』, 532-533면).

99) 북한은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원천이 ①김일성과 김정일이라는 지도자 ②주체사상 ③혁명전통 ④우리식 사회주의 ⑤민족의 고유한 역사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고영환, 『우리민족제일주의론』, 127-188면; 통일부, 『2004 북한개요』, 서울: 통일부, 2003.12, 33면 재인용).

100) 위의 책, 33면.

라. 주체문예의 강화기(1990년대 중반-현재)

1990년대는 김일성의 사망(1994.7)으로 야기된 정치적 혼란 상태와 경제적인 난관과 외교적인 고립 등을 타개하고, 김정일 세습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자 사상적 무기로서 문예정책을 적극 활용하였다.¹⁰¹⁾ 이 시기에는 주로 ‘수령영생(추모)문학’¹⁰²⁾을 비롯하여 ‘단군문학’,¹⁰³⁾ ‘태양민족문학(太陽民族文學)’¹⁰⁴⁾ 등이 문학예술의 중심을 이루

101) 1990년대에는 김일성의 사망과 최악의 ‘자연 재해’에 따른 식량난, 악화되는 경제부분과 ‘핵’ 문제에 따른 북미간의 갈등 심화로 김정일 체제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 국면을 극복하고자 ‘유일사상’의 강화가 다시 요구되었고, 문예에서도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주체문예’를 강조하였다.

102) 영생불멸해야 할 수령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인민들의 심리적 공동화 현상을 유발시켜 집단적 히스테리 현상을 동반하게 되었다. 때문에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은 인민들의 수령부재에 대한 심리적 충격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그것이 김일성이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죽었지만 그의 정신은 인민들의 마음속에 살아서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이다. 이러한 수령영생의 당위성을 인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수령영생문학’이다. 수령영생문학을 통해 김일성 개인의 신격화는 최고 경지에 이르게 되고, 김일성은 ‘영생불멸의 태양’으로 김정일은 ‘충효의 화신’이자 ‘21세기의 태양’으로 상징화되어 문학작품에 반영되었다. 수령영생문학 작품에 반영된 수령영생은 ‘수령에 대한 그리움’, ‘수령과 인민의 혈연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 ‘혼연일체적 관계’ 등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종교적 관념으로서의 수령영생을 통해 수령으로부터 구원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령영생은 김일성이 죽은 현실과 작중인물의 주관적인 염원과의 갈등, 현실과 비현실간의 갈등의 극복을 통해 인민의 가슴 속에 각인되고 있다. 특히 작가들은 작중인물의 전형을 그리는데 있어서 김일성이 살아있다는 한가지만을 인정하고 생각하게 하는 일원적 인물(一元的人物)의 설정을 통하여 수령영생의 이미지를 인민들에게 각인시켜줌으로써, 수령영생에 대한 갈등을 보다 쉽게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일원적 인물의 주관적인 성격에 의한 수령영생에 대한 염원은 개인적인 이상이나 염원이 아니라 당대의 모든 인민들의 이상이자 염원으로 형상화되고 있다(김윤영, “북한의 ‘수령영생문학’에 관한 연구”, 『공안연구』 제78집, 2003 참조할 것).

103) 단군문학은 유훈통치기 문학의 한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단군문학은 문학작품을 통하여 북한이 민족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규명함으로써, 김정일 세습체제의 정통성을 확보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정치적 논리 배경은 ‘건국=김일성’이라는 등식을 성립시켜야만 김정일이 주창하고 있는 ‘조선민족 중흥’, 다시 말해 ‘조선민족 중흥=김정일’이라는 구호가 타당성을 얻어 인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다는 데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을 단군과 비견하는 위인 또는 민족의 시조, 개국의 시조 등으로 규정하여 그 정통성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한 김정일 체제 역시 한반도에서 유일한 역사적 적통(嫡統)을 계승한 체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이다. 따라서 ‘김일성=단군’, ‘김정일=동명왕’이라는 등식을 성립시켜줌으로써 김일성 사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의 국가상인 강성대국론의 정당성을 강성대국을 건설했다는 고구려의 동명왕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단군문학에서는 김일성을 ‘역사에 대한 걸출한 사상이론가’, ‘위대한 민족의 어버이’, ‘탁월한 예지자’ 등으로 전형화하고,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보여주고

면서 ‘유훈통치’를 적극 옹호해 갔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 권력세습의 정당화를 위해서 김정일의 위대성을 선전하는 <불멸의 향도>를 본격적으로 창작하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는 이 시기의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선군혁명문예와 강성대국건설기의 문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선군혁명문예¹⁰⁵⁾

김일성 사망 이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은 만성적인 경제침체와 대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군을 최우선시하는 선군정치(先軍政治)¹⁰⁶⁾ 주창하기 시작했다.¹⁰⁷⁾

있다(김윤영, “북한 단군문학에 관한 연구”, 『공안논총』 제14집, 용인: 공안문제연구소, 2002 참조).

104) 1995년 김정일을 ‘주체의 태양’으로 묘사하면서, 나타난 ‘태양민족문학’은 2000년 1월호 《조선문학》에 “2천년대가 왔다 모두다 태양민족문학건설어로!” 제하의 머리글이 게재되면서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김일성을 태양의 시원으로 규정하면서, 김일성의 영도위업은 김정일의 계승 속에서만 영원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김일성에 대한 단순한 찬양 정도의 수식에 불과했던 ‘태양’이란 용어가 이 시기를 통해 ‘김정일 태양’으로 구체화되어 실제적 개념으로 전파시키고자 문학적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다. 북한은 태양민족문학을 ‘향도의 태양’이자 ‘21세기의 태양’으로 찬양되는 김정일이 밝혀준 문학적 경향이라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김정일 체제의 사상, 전통, 역사 등을 김일성의 수령영도 업적에서 찾아 계승하게 함으로써, 그의 체제를 더욱 공고화하는데 있다. 따라서 김정일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수령형상창조의 문학적 기능으로서 태양민족문학을 등장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학작품에 나타난 수령영생은 형식적으로는 ‘태양절’, ‘태양절의 봄과 꽃’ 등의 제재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으나, 그 실제에 있어서는 김정일의 선군영도가 있기에 이 땅 위에 ‘영원한 태양의 역사’가 성립될 수 있다는 식으로 묘사되고 있다. 결국 태양민족문학을 통하여 ‘21세기의 태양’인 김정일의 선군영도에 의해 ‘태양의 원조’인 단군이나 ‘태양의 시원’인 김일성의 영생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김일성의 유훈통치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김정일 체제 구축의 완성 의미로 볼 수 있다(김윤영, “북한의 ‘태양민족문학’ 연구”, 『공안논총』 제15집, 용인: 공안문제연구소, 2003 참조).

105) 김윤영, “북한의 선군혁명문학에 관한 연구”(『공안연구』 69집, 용인: 공안문제연구소, 2001), 참조.

106) 선군정치라는 개념 등장 이전에 북한의 공식문헌들은 선군정치와 유사한 개념을 사용하였다. 1995년부터 1997년 초반까지는 김정일의 정치사상과 방식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없이 ‘군사중시의 혁명사상’, ‘당과 군대인민의 혼연일체와 군대의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치’ 등으로 소개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1997년 10월 선군후로(先軍後勞)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선군정치로 구체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은 1998년 4월 25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김일성의 군사상을 ‘선군혁명사상’으로, 김정일의 군사상을 ‘군 중시사상’으로 설명한 이후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 개최를 전후해 선군정치 개념으로 정착되었다. 1999년 신년공동사설은 선군정치방식을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혁명적 군인정신을 무기화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밀고 나가는 김정일동지의 독특한 정치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9년 6월 16일자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논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배격하자”에서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을 밀고나가는 령도방식”으로 강조하였다.¹⁰⁸⁾

이와 같이 선군정치는 김정일이 1990년대 들어 대내외적으로 심화된 체제위기에 대응하여 체제보장과 안정, 나아가 체제강화를 위해 선택한 북한체제 운영방식이라 할 수 있다. 선군정치를 반영한 ‘선군혁명문학’ (선군문학)은 2000년 들어 북한문단에서 본격적인 개념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대중 월간지 <천리마>는 1994년 7월 김일성 사후 2000년 하반기에 이르는 시기까지 약 1만 5천여 편의 문예작품이 창작되었다고 소개한 뒤, 지난 6년간 북한은 김정일의 지도 아래 고난의 행군을 이겨냈다면서 이 기간에 나온 문학작품을 선군혁명문학이라고¹⁰⁹⁾ 지칭했다.

107) 선군정치는 북한 정권이 김정일 체제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만성적인 경제침체로 인한 인민의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만들어내 비상체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108) 김정일의 군사상이 선군정치로 정착되기까지는 선군혁명사상과 군중시사상이라는 용어뿐 아니라, 선군혁명령도, 선군후로 정치방식이라는 용어도 등장했다.

109) 이 기간에 나온 1만 5천여 문학작품 가운데 김일성이 사망한 후 나온 가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는 지금도 수령영생문학의 일환인 ‘수령 영생의 송가’로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널리 불리고 있다고 한다. 또 김일성을 추모하고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다짐한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를 비롯해 <조국이며 청년들을 자랑하라>, <최고사령관과 군위병들>, <6월의 푸른 하늘 아래에서>, <아름다운 추억의 해 1999년이여>, <우리 집은 군인 가정> 등 선군정치 사상과 작품성 높은 시들이 많이 나왔다고 소개했다(방철립, “위인의 손길 아래 빛나는 선군혁명문학”, <천리마> 2000.11호, 71면). 또한 당 창건 55주년을 기념해서 창작한 김만영의 서사시 <20세기 령마루에서>는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백전백승의 기치이다”라는 구절을 부제로 삼고 있다. 동 부제는 선군혁명문학 창작의 종자로 파

여기서 선군혁명문학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다.¹¹⁰⁾

《조선문학》 2001년 1월호를 통해서 “새 세기와 선군혁명문학”이란 논설을 통해 김정일의 ‘불멸의 선군 영도업적’을 문학작품에 반영한 ‘영도자의 문학’으로 규정하면서,¹¹¹⁾ 선군혁명문학이 문학의 형식과 양상을 새롭게 탐구하고 개척하여 다양하고 다채로운 면모를 갖추도록 하는 등 모든 장르를 전반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했다.¹¹²⁾ 또한 선군혁명문학을 ‘선군정치시대’를 반영한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문학으로 규정하면서¹¹³⁾ 그 이론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결국 선군혁명문예란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국가 주석제를 폐지하고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하여 수령 영도권 계승을 마무리 짓는 한편, 김정일 체제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키면서 그의 선군정치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해 채택한 새로운 문예형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식적인 김정일 체제의 출범을 알리면서 ‘선군정치’, ‘선군혁명’으로 불리는 선군시대를 미학적으로 반영한 문예적 슬로건이자 실천이론으로 김정일의 선군정치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채택한 새로운 문예적 경향으로 볼 수 있다.¹¹⁴⁾

악된다(김만영, “20세기 령마루에서”, <문학신문> 2000년 10월 10일자, 2-3면).

110) 방철림, “위인의 손길 아래 빛나는 선군혁명문학”, 71면.

111) 최길상, “새 세기와 선군혁명문학”, 《조선문학》 2001.1호, 5면.

112) 대표적 장르인 소설부문에서는 ‘혁명전설, 실화소설, 운문소설, 환상소설, 추리소설, 풍자소설’ 등이, 시문학에서는 ‘송년시, 추대시, 추모시, 련시, 련시초’ 등이, 아동문학에서는 ‘유년기 문학, 지능문학, 속담문학, 우화소설’ 등이 선군시대의 ‘선군혁명문학’에서 새로운 장르로 다양하게 발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소설부문에서는 모든 낡은 요소와 도식적인 틀을 없애고 새로운 세기에 맞는 형상수법과 형태를 다양하게 개척하고, 시문학은 21세기의 미학적이고 정서적인 요구에 맞게 자기의 모양을 새롭게 참신하게 채색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최길상, 위의 글, 6면).

113) 북한은 새로운 사조가 아니라 김정일이 선군혁명사상과 이념을 반영하여 독창적으로 창시한 20세기 북한문학의 ‘새형’이라 주장하고 있다.

114) 이에 대해 최길상은 “문학의 모든 부문에서 선군혁명령도의 견지에서 생활과 인간을 미학적으로 분석평가하며 선군시대의 위대한 정신이 뜨겁게 고동치도록 문제성을 강화하고 형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최길상, “새 세기와 선군혁명문학”, 6면).

이러한 선군혁명문예는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충성으로 받드는 문예로 증진시켜 나가는데 있다. 때문에 김정일의 선군혁명 영도(先軍革命 領導)의 위대성을 최상의 경지에서 가장 빛나게 구현되어야 할 것이 강조된다. 선군혁명문예 창작에 있어 작가들은 우선 당의 ‘선군영도를 받드는 제일기수’이고 ‘돌격대’인 인민군대를 형상함에 있어서 그들의 심장 속에 간직된 ‘혁명적 군인정신’, ‘총대에 맥박치는 붉은기정신’,¹¹⁵⁾ ‘인민의 원군(援軍)기풍’이 낭만적인 예술적 화폭에 줄기차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붉은기 사상’은 김정일이 19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시기’를 극복하고자 제시했던 것이다. 북한 문예계에서는 ‘붉은기사상’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혁명적군인정신’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북한은 “붉은기 정신은 혁명적 군인정신이다. 인민군대의 총창우에 억세게 나부기는 혁명의 붉은기가 있다”고¹¹⁶⁾ 주장하고 있다.

115) ‘붉은기 사상’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을 중심으로 주민들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사상이라 할 수 있다. 노동신문 정론 “붉은기는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1996.1.9)에서는 붉은기 사상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자기식대로 살아나가며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창조적 철학”이라고 밝히고, “붉은기사상이란 단결을 하여도 하나의 중심에 기초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단결을 실현하자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김일성 사후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사회체제의 구축에 목적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혁명적 군인정신을 체득하고 투쟁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당의 붉은기사상의 제일체현자이며 우리 혁명이 요구하는 전위투사”(로동신문, 1996.10.18)이며, “붉은기사상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이며 령도자와 생사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려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이다”(신년공동사설, 로동신문, 1997.1.1)라고 규정하는 등 붉은기 사상의 실천적 지침으로 혁명적 군인정신과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제시하기도 했다. 결국 붉은기사상은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낙관주의와 난관극복정신, 자기희생정신을 인민들에게 체화시키려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116) “붉은기 정신은 혁명적 군인정신이다. 인민군대의 총창우에 억세게 나부기는 혁명의 붉은기가 있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를 우리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주시었고 수령결사옹위정신을 핵으로 하는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도록 전당과 전체 인민을 불러주시었다. 잡지 《조선문학》은 혁명적군인정신이 높뛰는 전투적인 단편소설들로서 자기의 페이지들을 장식함으로써 붉은기문학의 전초선을 지켜선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였다. 조선의 3대장군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존경하는 김정숙어머님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붉은 기발아래 높이 올리신 백두의 총성, 혁명의 퇴성을 담고있는 우리의 전투적인 단편소설문학은 총대에 비긴 혁명적군인정신에 대한 주옥같은 형상으로 빛나고 있다. 붉은기문학, 총대의 문학을 주체의 소설문학의 중심에 확고히 세워준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문학사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의 하나이다”(김성우, “붉은기정신이 구현된 우리 소설문학”, 《조선문학》 1997.10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71면).

선군문예 창작에서 가장 큰 힘을 기울여야 할 주제영역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혁명적 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해 나가고 있는 선군시대 영웅들의 투쟁 상을 반영하는데 있다.¹¹⁷⁾ 때문에 선군시대의 문예작품은 당의 ‘선군령도’를 받들고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해 나가는 인민들의 생활 모습을 그리게 된다. ‘혁명적 군인정신’이란 ‘수령결사옹위, 총폭탄, 자폭정신’을¹¹⁸⁾ 의미한다.

“인민군대에 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신뢰에서 이북 군인들은 자기들이 쥐고 있는 총대에 사회주의 운명도 나라의 민족의 미래도 달려 있다는 시대적, 역사적 사명감을 뼈부로 절감하게 됐구요. 또 그것은 수령결사옹위, 총폭탄, 자폭정신을 핵으로 하는 혁명적 군인정신이라는 정신력으로 분출되면서 이북 사회에 풍미돼 가고 있습니다.”¹¹⁹⁾

선군혁명문예는 주민들의 노력동원을 고무시키고, 선군혁명사상을 강화하여 김정일 체제의 정당화와 그의 영도력을 선전하고자 채택된 전략 차원의 문예정책으로서 김정일 체제가 유지되는 동안은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시대적 환경에 따라 전술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보일 것이다.¹²⁰⁾

선군문예정책의 특징으로는 군 관련 주제 문예작품의 증가¹²¹⁾와 군

117) 머릿글 “선군혁명 창작으로 새 세기 사회주의붉은기진군을 고무추동하자”(《조선문학》 2001.3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4-5면.

118) 북한이 ‘선군문학’에서 강조하는 ‘자폭정신’, ‘총폭탄정신’이란? “전쟁승패는 무기보다 군인들의 사상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전 군인들에게 ‘총폭탄 정신’, ‘자폭정신’으로 무장할 것을 강조하는 등 소위 자폭영웅으로 길영조, 이수복 등을 내세워 이들을 미화하고 따라 배울 것을 강요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 비행훈련 중 화재가 발생하자 낙하산 탈출을 포기하고 김부자 특각(휴양소)을 피하여 추락사 했다는 길영조와 6.25 전쟁시 동부전선에서 육탄으로 돌격로를 개척하여 전세를 역전시켰다는 이수복 그리고 1990년 훈련중 수류탄을 온몸으로 방어하여 동료들을 구했다는 김광철 등을 자폭영웅으로 미화하고 있다. 이들의 행적을 집중 선전하면서 군인들에게 김정일에게 하시라도 목숨을 바칠 수 있도록 강요하고 있다.

119) “위대한 사상은 위대한 시대를 낳는다”, <구국의 소리방송>, 2002년 7월 21일.

120) 김윤영, “북한의 ‘선군혁명문학’에 관한 연구”, 참조.

121) 군 관련 주제 문예작품의 창작과 관련하여 “작가들은 선군혁명령도로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혁명적 군인정신을 무기로 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밀고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독특한 령도방식과 숭고한 품모를 더 밝히고 정중하게 형상하여야 한

(軍)주도 경향¹²²⁾을 보여 주고 있다. 전자의 대표작으로는 2001년 창작된 서사시 <영원한 우리수령 김일성 동지>, <조국이여 청년들을 자랑하라>와 ‘불멸의 역사’ 시리즈 <영생>, <붉은 산줄기> 등이 있다. 영화에서는 <술매령에 핀 꽃>(2001)과 2001년 최고의 성과 작으로 평가되는 <복무의 길>은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문학잡지 《조선문학》은 ‘혁명적 군인정신’을 반영한 전투적인 단편소설을 게재함으로써, ‘붉은기 문학의 전조선’을 지켜 ‘붉은기문학, 총대의 문학’을 ‘주체의 소설문학의 중심’에 자리 잡게 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총대 사랑’을 반영한 단편소설로는 조근의 <녀전사의 길>,¹²³⁾ 박춘섭의 <봄노래>,¹²⁴⁾ 박윤의 <생활의 수업>,¹²⁵⁾ 이정수의 <별>,¹²⁶⁾ 석남진의 <한녀교원의 사랑>¹²⁷⁾ 등이 있다. 박춘섭의 <봄노래>에서 작중화자 리운성은 건장 없는 군복차림으로 근 한 달째 전선을 종군하면서, 병사들에게 총대정신을 불어넣는 작곡가 즉, 오선지 위에 병사들이 흔히 말하는 ‘콩나물대加里’를 총알처럼 박아 넣는 작곡가이라는 것이다.¹²⁸⁾ 이같이 이들 작품 대다수는 군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매우 엄격한 대결 속에서 ‘사회주의 진지’를 지켜가는 침예한 현실을 담고 있다.

음악에서는 6.25전쟁 당시 불렸던 전시가요가 다시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1년 12월 평양방송은 선군시대 이래 가장 각광을 받고 있다는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을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맨 앞장에서 받들

다”(“20세기를 빛나게 장식하기 위한 문학작품 창작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자”, 《조선문학》, 1999년 3호 참조)라고 강조했다.

122) 군(軍)주도 경향은 1998년 6월 5일자 <로동신문> 사설에서 “군대예술활동은 혁명적 군인정신과 수령결사옹위정신, 명령관철에 대한 절대성·무조건성이 그대로 맥박치는 예술활동”이라고 규정하면서 각 기관단체들이 군대예술활동을 따라 배우기 위한 예술소조활동을 더욱 강력히 벌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123) 조근, <녀전사의 길>, 《조선문학》 1996.3호, 23-32면.

124) 박춘섭, <봄노래>, 《조선문학》 1996.4호, 46-59면.

125) 박윤의, <생활의 수업>, 《조선문학》 1996.5호, 41-52면.

126) 이정수, <별>, 《조선문학》 1996.9호, 52-60면.

127) 석남진, <한 녀교원의 사랑>, 《조선문학》 1996.9호, 41-48면.

128) 박춘섭, <봄노래>, 46면.

어 나가는 선군시대의 나팔수'라고 선전하기도 했다.

후자의 경우는 1990년대 후반의 문예정책을 군이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 북한은 문예정책을 통하여 군사중시 사상을 본질로 하는 김정일의 사회주의체제를 강화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사실은 1998년 6월 5일자 노동신문 “군대예술활동은 혁명적 군인정신과 수령결사옹위정신, 명령관철에 대한 절대성·무조건성이 그대로 맥박 치는 예술활동”이라고 강조한데서 잘 드러나 있다.

이 시기 북한의 문학, 영화 및 TV극 등 주요 문예물의 주제는 ‘고난의 행군정신’, ‘혁명적 군인정신’ 등과 같은 체제결속을 반영한 소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¹²⁹⁾

2) 강성대국건설기의 문예(1998년 9월 ~)

김일성 사망 이후 주석직에 바로 취임하리라는 대부분의 예상과는 달리 4년이 지난 1998년 9월 5일 개최된 제10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은 새로운 지도자로 추대되는 한편, 국가 주석제의 공식적인 폐지와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었다. 이 회의를 통하여 김정일은 사회주의 헌법을 수정하고, 대규모 인사이동과 함께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국가상을 제시함으로써, 1997년 10월 조선노동당 총비서 취임으로 시작된 그의 수령 영도권 계승은 일단락되었다. 김정일의 강성대국 건설 의지는 김일성이 사망한 후 1994년 12월 31일 당 중앙위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는 담화를 통해서 밝힌 ‘부강조국 건설론’을 계기로 보고 있다.

부강조국 건설론이 강성대국 건설론으로 전환되어 하나의 통치 슬로건

129) 노재완, “김정일의 문예정책에 관한 연구”, 72면 참조.

으로 정식화하여 본격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한 시기는 1998년부터이다. 1998년 신년공동사설은 지난 3년간(1995~97년) 고난의 행군 과정에서 발휘되었던 혁명정신과 성과를 총화(總和)하는 한편, 1998년(1.29~30) 4·15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전국자력갱생모범일군대회”에서 공식적으로 고난의 행군을 마감했다고 선포하고, 강성대국 건설이 혁명과 건설에서 당면한 목표임을 제시했다.¹³⁰⁾ 이후 1998년 8월 22일 노동신문에 게재된 장문의 정론 <강성대국>을¹³¹⁾ 통해 김정일의 부강조국 건설론이 강성대국론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형태로 제기되었다. 이 정론은 강성대국 건설이 김일성의 유훈이기¹³²⁾ 때문에 김정일은 이를 철저히 엄수하여 향후 이념강국·정치강국·군사강국의 기반 하에 경제강국을 건설하여 명실상부한 강성대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말해 강성대국 건설론은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통해 혁명과 건설에서 달성하고자 했던 당면 목표였던 것이다. 결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와 정권수립 50주년 기념일인 1998년 9월 9일을 앞두고 발표된 정론 ‘강성대국’은 김정일이 선택한 국가발전의 전략기조라 볼 수 있다.¹³³⁾

북한은 강성대국에 대해 말 그대로 부강하고 융성한 나라라는 뜻으로 “나라는 작아도 사상(당)과 총대(군대)가 강하면 세계적인 나라”,¹³⁴⁾ “국력이 강한 나라, 그 어떤 침략자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무적의 나라”

130) 정론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강행군 앞으로”, <로동신문>, 1998.2.3.

131) 최칠남·동태관·전성호, 정론 “강성대국”, <로동신문>, 2000.8.22.

132) 김정일은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은 수령님의 생전의 뜻이었고 웅대한 목표였습니다.”라고 밝힘으로써 강성대국 건설이 김일성 유훈교시의 관철임을 밝히고 있다(김재서, “경제건설은 강성대국 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9년 제 2호, 5면; 이찬행, 『김정일』, 878면에서 재인용).

133) ‘강성대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에 게재된 “백두의 붉은기 정신은 우리 인민의 영원한 혁명정신”(1998.1.18), “주체의 강성대국”(1998.8.4), 정론 “강성대국”(1998.8.22),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자”(1998.9.9), “과학중시 사상을 구현하여 강성대국의 앞길을 열어 나가자”(1999.1.6), “사실, 위대한 혼연 일체의 위력으로 강성대국 건설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자”(1999.2.16),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유훈을 지켜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자”(1999.4.15), “위대한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자”(1999.9.5) 등을 참고할 것.

134) <로동신문>, 1998.9.7.

로¹³⁵⁾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성대국 건설이 김정일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하는 길”¹³⁶⁾이라고 하면서, 강성대국 건설은 김정일의 “총적 목표이며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으로¹³⁷⁾ 보고 있다. 김정일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이자 김정일 체제가 지향할 국가상이 바로 ‘주체의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것이다.

강성대국 사상은 문예정책에 반영되어 “철두철미 당의 사상과 정치를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당사상사업의 강력한 무기”로¹³⁸⁾ 작용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김일성 사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이 국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시대의식이 문예정책에 반영되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 문예정책은 김정일의 의도와 구상, 당의 정책과 노선을 옹호하고 관철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여, 강성대국 건설에 헌신분투하는 시대의 ‘참된 주인공들을 훌륭히 형상’하는 작품을 창작할 것이 강요되었다. 물론 강성대국 건설에 이바지하는 주인공들의 형상을 그린다고 하여 현실의 다른 작품들과 동떨어진 특이한 별개의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에 대한 참된 충신과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묘사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¹³⁹⁾ 강성대국을 지향하는 메시지를 담은 대표작으로 가요 <대흥이와 흥단이>를 들 수 있다.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하여 ‘헌신분투’하는 주인공들의 형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문예창작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데,¹⁴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5)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유훈을 지켜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자”, <로동신문>, 1999.4.15.

136) <로동신문>, 1998.9.7.

137)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유훈을 지켜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자”, 1999.4.15.

138)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문학작품을 활발히 창작하자”, 《조선문학》 1999. 1호, 6면.

139) 최인경, “강성대국건설에 헌신분투하는 주인공들의 형상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조선문학》 1998.9호, 69면.

140) 위의 글, 70-71면 참조.

첫째, 문학작품에서 주인공들을 김정일의 전사, 제자로 형상화해야 한다. 문학작품을 통하여 김일성 생전의 염원이었다는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고자 말겠다는 김정일의 ‘철의 신념과 의지, 녀과 뜻’을 그대로 자기의 신념, 자기의 의지, 자기의 녀으로 받들어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로 김정일의 참된 전사, 제자로 주인공들의 인물 성격을 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문학작품에 있어서 주인공들은 김정일의 신념과 의지, 담력과 배짱을 자기의 피와 녀으로 간직하고 김정일의 뜻을 받들어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헌신분투(獻身奮鬪)하는 신념과 의지의 강자, 참된 충신의 전형으로 형상화되어야 한다.

셋째, 강성대국건설을 위해서 분투하는 주인공들을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 참된 충신인 동시에 열렬한 애국자로 형상화해야 한다.

넷째,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헌신분투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형상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혁명적 군인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북한은 문예작품 창작에서 이러한 원칙들이 가장 잘 반영되었을 때만이 좋은 작품으로 인정되어 인민들을 교양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IV. 김정일 문예정책의 실제와 대응

이 글에서는 김정일의 대남문예투쟁 지침을 살펴 본 다음, 북한의 대남문예투쟁 성과에 대한 평가를 분석할 것이다.¹⁾ 그리고 이에 따른 보안경찰의 대응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대남문예투쟁 지침과 평가

가. 대남문예투쟁 지침

1975년 10월 10일 북한의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에서는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이라는 명제아래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을 출판함으로써, 문학예술의 창작과 활동에서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문제가 문예이론의 핵심적인 구성부분으로 정식화 되었다. 이러한 주체문예이론은 ‘남조선혁명’ 투쟁에도 반영되어 나타났다. 이 시기 북한은 대남혁명 전략전술 지침서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이론』(1975.10.10)²⁾을 발간하였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남혁명 전략전술 이론서로 활용되고 있다.³⁾

특히 북한의 문예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김정일은 문예이론서나 담화 등을 통하여 교시 형식의 대남문예투쟁 방향을 제시하여 왔다. 이러한 대남문예투쟁 지침서는 ‘남조선혁명’을 선전선동하는 문예창작의 주요 근거가 되어왔고, 주체사상 추종세력들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1) 문학예술이란 광범위한 모든 장르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사회 생활현상과 가장 밀접한 특정 분야를 다루고자 한다.

2) 허중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3)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2년 하달된 대남혁명 전략전술 지침서인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실현을 위한 대중투쟁의 조직과 지도방법”(총 40면)은 허중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이론』을 중심으로 재편집한 것이다.

활용하고 있다.

김정일의 교시는 대남문예투쟁의 평가와 실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김정일선집』 1-14권 중 대남문예투쟁과 관련된 지침(교시)을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이른바 ‘남조선 인민들’을 ‘혁명적’이고 ‘계급적’으로 교양할 수 있는 문예작품을 창작해야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북반부인민들을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념과 투지를 안겨주려면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합니다. …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은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계급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작품입니다. 문학예술작품에는 오늘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작품도 있을수 있고 지난 시기 계급투쟁과 혁명투쟁을 반영한 작품도 있을수 있으며 남조선 현실과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 그리고 다른 나라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반영한 작품도 있을수 있지만 그것이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계급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이여야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으로 될수 있습니다.”(밀줄 필자)⁴⁾

② 북한과 남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혁명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 비율을 4대 1로 창작해야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대로 사회주의건설을 주제로 한 작품과 혁명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은 5대 5의 비율로 창작하고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과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은 4대1의 비율로 창작하여야 합니다.”(이하 인용문의 밀줄 필자)⁵⁾

③ 이른바 ‘조선혁명’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남조선 인민들과 혁명가들

4) 김정일,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 창작에 모든힘을 집중하자: 문학예술부문 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64.12.10”(『김정일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49-50면.

5) 위의 책, 51면.

의 투쟁’을 형상한 문예작품을 창작해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과 혁명가들의 투쟁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하겠습니까. 작가, 예술인들이 남조선 인민들과 혁명가들의 투쟁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출판보도물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알게 되기때문에 그에 대한 생동한 작품을 창작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빙자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형상한 작품을 잘 창작하지 않는것은 조선혁명에 이바지하여야 할 작가, 예술인들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것이며 문학예술을 대하는 불성실한 태도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 작가, 예술인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따뜻한 동포애의 정을 가지고 늘 깊이 주시하여야 하며 그들의 사상감정에 맞고 그들의 투쟁열의를 북돋아줄수 있는 힘있는 문학예술을 많이 창작하여야 하겠습니까.”⁶⁾

④ 이른바 ‘반미반제투쟁’을 형상한 문예작품은 ‘남조선인민들에게 투쟁의 올바른 길을 가리켜주고 참다운 투쟁을 깨우쳐주는 교과서’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속에는 미제와 괴뢰도당을 저주하고 민족분렬의 현실을 통탄하면서도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몰라 투쟁의 길에 나서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항쟁의 길에 나선 사람들의 경우에도 공격의 기본화살을 미제에게 돌리지 못하고 당면한 생활처지를 개선하기 위한데 돌리는 때가 많습니다. 문학예술작품은 남조선인민들에게 투쟁의 올바른 길을 가리켜주고 참다운 투쟁방법을 깨우쳐주는 교과서로 되어야 합니다.”⁷⁾

⑤ 문예창작을 통하여 ‘남조선에서 일어난 4.19혁명’과 ‘6.3운동’ 등을 대작으로 형상해야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조선혁명력사에는 그 내용의 방대성과 풍부성, 세계사적의의로 하여 대작을 쓸 좋은 자료가 많습니다. 수령님께서 자주 회고하시는 이야기지만 김책이나 최춘국, 조정철, 류경수와 같은 혁명렬사들의 투쟁기도 큰작한 대작으로 묶어낼수 있으며 남

6) 위의 책, 53-54면.

7) 위의 책, 55-56면.

조선에서 일어난 4.19인민봉기나 6.3인민봉기도 대작으로 형상할수 있을것입니다
.”⁸⁾

⑥ 이른바 ‘식민지통치’를 자행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을 교양하여 남조선 혁명역량을 튼튼히 준비’할 수 있는 ‘혁명영화’를 창작해야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우리는 아직 나라의 절반땅에서밖에 사회주의제도를 세우지 못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은 여전히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밑에 있습니다. 우리가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자면 세가지 방면에서 일을 더 잘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을 교양하여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준비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야 하며… 영화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앞에 나선 세가지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영화를 창작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⁹⁾

⑦ 문학예술 창작에 있어 ‘항일혁명투쟁과 조국해방전쟁,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해방 후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투쟁,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비롯하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 전반을 포괄’하는 주제를 선택해야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우리 문학예술의 주제방향은 항일혁명투쟁과 조국해방전쟁,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해방후 새 사회 건설과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투쟁,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전반을 포괄하고있습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우리 당의 혁명투쟁과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문제를 기본주제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약동하는 현시대의 정신을 진실하게 반영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혁명적인

8) 위의 책, 58면.

9) 김정일, “혁명적영화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영화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 앞에서 한 연설, 1966.2.26”(『김정일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122-123면.

문학예술로 될수 있습니다.”¹⁰⁾

⑧ 이른바 ‘남조선의 사회현실을 취급하는 문예작품에서는 투쟁의지를 키워주는 동시에 혁명적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적 및 계급적 압박과 착취를 당하면서 쓰라린 생활을 하고있으나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자본주의적생활양식의 범람으로 퇴폐적인 사상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조선의 사회현실을 취급하는 작품에서는 투쟁의지를 키워주는 동시에 혁명적세계관이 바로서도록 하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¹¹⁾

⑨ 방송은 ‘대남선전사업’에서 ‘남조선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위력한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방송 매체를 통하여 ‘수령의 위대성’과 ‘사회주의제도의 발전상과 우월성’ 등을 선전 선동해야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방송은 남조선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위력한 수단으로 됩니다. ... 우리는 남조선인민들도 우리의 겨레이며 통일된 강토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한 민족이라는것을 잊지 말고 방송선전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평양방송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선전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며 여기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선전은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조선민족으로서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며 단결의 중심을 옳바로 찾고 혁명투쟁에 견결하게 나설수 있게 합니다. 평양방송에서는 또한 공화국복반부의 발전상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선전도 잘하여야 합니다. ... 총포성이 울리지 않을 때에는 전파전이 기본입니다. 우리 방송에 대한 적들의 방해책동에 대처하여 우리도 불을 걸어 전파전에서 적을 압도하여야 합니다. ... 화력전이나 전파전이나 리치는 마찬가지로 제압하여야 하겠습니다.”¹²⁾

10) 위의 책, 124면.

11) 위의 책, 130-131면.

12) 김정일, “방송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

⑩ 남한과의 문화교류 사업을 위해서 ‘민요 발굴사업’과 ‘연구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남조선과 문화교류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민요 발굴사업과 연구사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¹³⁾

⑪ 작가, 예술인들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남조선 군사파쇼도당의 매국배족행위를 반대하며 조국통일을 위해 떨쳐나선 인민의 투쟁 모습을 반영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해야 할 것을 선동하고 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남조선 군사파쇼도당의 매국배족행위를 반대하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투쟁모습을 반영한 작품들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하겠습니다.”¹⁴⁾

⑫ 이른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 조국통일투쟁’을 반영한 노래를 창작하여 남과 북,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조국통일투쟁(남조선혁명)’을 고무 선동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조국통일에 대한 노래와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반영한 노래를 많이 창작하여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일떠선 북남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을 힘있게 고무하여야 합니다.”¹⁵⁾

화, 1967.7.30”(『김정일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92-293면.

13) 김정일,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조선문학예술총동맹산하 창작가들의 사상투쟁회의에서 한 결론, 1972.9.6”(『김정일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451면.

14) 김정일, “주체적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국문화예술인열성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1.3.31”(『김정일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46면.

15) 김정일, “음악 창작과 보급 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 음악예술부문창작가, 예술인들과 한 담화, 1990.12.8”(『김정일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445면.

이외에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에서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투쟁,¹⁶⁾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의 혁명투쟁’¹⁷⁾ 등을 형상화한 문예작품을 창작해야할 것을 선동하고 있다. 또한 ‘혁명적 소설 작품은 남조선 혁명가들의 지하투쟁의 교양자료’가¹⁸⁾ 될 수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김정일은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 ‘남조선 인민들을 혁명적’이고 계급적으로 교양하고 남조선 인민들과 혁명가들의 투쟁’을 형상화하는 문예작품을 비롯하여 ‘4.19혁명’과 ‘6.3운동’,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 ‘항일혁명투쟁과 조국해방전쟁’,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해방 후 새 사회 건설과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적 세계관’, ‘수령의 위대성’과 ‘사회주의제도의 발전상과 우월성’,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남조선 군사파쇼도당의 매국배족행위 반대’,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 투쟁 등을 반영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전파해야할 것을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러한 대남 문예투쟁 지침은 북한의 문예인이나 국내외 주체사상 추종세력들은 절대적인 진리로 받들어 문예창작에 반영하고 있다.

나. 대남문예투쟁 평가

1992년 북한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발행한 『남조선민중문학의 발전과

16) “사람들을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데서 문학, 영화, 연극, 음악, 무용과 같은 문예부문 일꾼들의 역할은 매우 큼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 복무해야 할 뿐 아니라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투쟁에 복무하여야 합니다”(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북한의 문예이론: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92면).

17)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영용하게 싸우고 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잘 형상하여야 할 것입니다”(위의 책, 143면).

18) “소설은 모든 근로자들의 참다운 길동무로 되며 특히 남조선 혁명가들과 같이 지하투쟁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교양자료로 될 수 있다”(위의 책, 201면).

특징』(김원택)은 북한의 대남문예투쟁 성과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출판물은 1980년대 ‘민중문예’를 표방하면서 국내에 열병처럼 번졌던 시, 소설, 희곡 등 문예작품을 주체문예론적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1) 민중문학의 사상적 기초

북한은 ‘남조선민중문학’을 “남조선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가 일정하게 반영된 문학” 즉,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식민지남조선사회의 고유’한 ‘진보적인 문학’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민중’은 ‘근로인민대중’과 같은 의미로 “민중대중이란 자주성을 지향하며 자기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으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 변혁해나가는 사회적 집단”(김원택, 10면, 이하 본문에서 면수만 표기)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⁹⁾

‘민중문학의 사상’을 ‘주체사상에 기초’한 ‘삼민이념, 자주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삼민이념은 ‘민족통일’, ‘민중해방’, ‘민중쟁취’를 의미한다. 여기서 ‘민족통일’이란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그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해야 한다.”(14면)는 것이고, ‘민중해방’이란 ‘근로인민대중’에 의한 ‘정치’로 남한에서 “미제의 식민통치를 뒤집어엎고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참된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중쟁취’란 남한사회가 ‘미제의 식민지파쇼’ 사회이므로 이를 “뒤집어엎고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정권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미이다(15면).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은 1986년 신년사를 통하여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온갖 탄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통일>, <민중해방>, <민주쟁취>의 구호밑에 민족의 자주권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하여 용감하게

19) 김원택, 『남조선민중문학의 발전과 특징』,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9면.

투쟁”²⁰⁾ 했던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리고 ‘남조선민중문학’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남조선전역에 널리 파급되면서 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16면)고 하면서, ‘남조선의 진보적 작가들이 들고 나오는 반미자주화문학(반미문학)이나 통일지향 문학’을 ‘주체사상이 구현된 문학’(17면)으로 평가하고 있다.

2) 민중문학의 형식

북한은 ‘남조선민중문학’의 형식을 ‘노동문학’, ‘5월광주항쟁문학’, ‘반미문학’으로 구분하고 있다.

가) 노동문학

북한은 노동문학을 ‘노동자들의 생활과 투쟁을 형상한 문학’ 즉, “노동자들의 생활체험(직접 체험한것, 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느낀것)을 바탕으로 노동현실과 노동문제를 노동자의 입장에서 서서 묘사하는 문학, 노동자해방정신의 표현”(57면)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문학 작품들의 예술적 특징으로 ‘주인공을 노동계급으로 설정한 것’, ‘주인공의 성격을 각성해가는 투사의 성격으로 그린 것’, ‘갈등을 현장노동자들과 남조선매관자본가(혹은 악질기업주) 사이의 적대적 갈등으로 설정하고 그 것을 옹계 해결한 것’, ‘작품의 양상을 어둡고 칙칙한 색갈보다도 혁명적 기백의 색조로 한 것’, ‘작품이 통속적인 생활글로 서술되어 있는 것’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67면).

나) 5월 광주항쟁문학

북한은 ‘5월 광주항쟁문학’을 “미제와 파쑈도당의 잔인한 학살만행, 광주항쟁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 그들의 사회변혁의 의지 등의 예술적 재현 문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5월 광주항쟁문학’은 “현시기 미제

20) <노동신문>, 1986년 1월 1일.

의 식민지파쇼통치가 더욱 악랄하게 실시되는 조건에서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의 한고리로써, 인민들에게 원한과 복수의 일념을 안겨주고 광주인민봉기자들의 투쟁정신을 본받게 하여 그들이 반미자주화, 반파쇼 민주화투쟁에 거족적으로 떨쳐 일어나도록 하려는 진보적 작가들의 노력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 평가하였다(68-69면).

다) 반미문학

북한은 ‘반미문학’을 ‘반미자주화를 지향하는 문학’으로 규정하면서, ‘인민들의 반자주화투쟁에 이바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반미경향의 문학은 8.15해방 후 남한에 주둔한 미군을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이란 시각에서 다룬 채만식의 《미스터방》, 《논이야기》 등과 ‘진보적 시인들의 미제에 대한 반감을 담은 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반미적인 소설의 대표작으로 남정현의 <분지>를 들고 있다(85-86면).

반미문학의 ‘사상주제’는 ‘남조선의 식민지 예속관계’,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자주정신’, ‘미제의 범죄행위’, ‘미제의 경제침략과 남조선경제의 예속’을 폭로하는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87-94면).

3) 민중문학의 사상주제 특징

북한은 민중문학의 ‘사상주제’를 ‘자주적 조국통일’, ‘미제의 식민지통치’, ‘부익부, 빈익빈의 반동사회’, ‘자주적 권리 쟁취’, ‘파쇼독재 폭로 규탄’, ‘사회의 민주화 투쟁’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 ‘자주적 조국통일’ 투쟁

북한은 민중문학이 ‘민족분열의 장본인 미제를 반대하고 투쟁해야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사상 즉,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실현하는 사상과 함께 “남조선인민들이 위대한 수령

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우러러 흠모하며 공화국북반부를 끝없이 동경하고 있다는 사상”으로 일관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95면). 이러한 사상주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문예작품에 대한 평가를 <표 4-1>과 같이 하고 있다.

<표 4-1> 조국통일을 제재로 한 작품²¹⁾

대표적 작품	북한의 평가
· <리산별곡>(박해준, 현대문학, 1985년 4월호), <겨울할미새>(현대문학, 1985년 1월호), <난세일기>(현대문학, 1985년 5월호)	· ‘북반부의 고향과 활육에 대한 그리움을 그리면서도 단순히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동경심’을 묘사한 작품
· 시 <림진강오리떼>(월간정경문화, 1985년 12월호)	·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침략정책은 남조선 인민들의 모든 불행의 화근이며 조국통일의 기본 장애’로 규정하여 ‘인민들의 비극과 고통’을 묘사한 작품
· 시 <북(한)쌀>(해외교포신문 신한민보 1985년 4월 4일), <오막살이 집한채>(창작과 비평, 1985년 1월호)	· 1984년 남한 수재민들에 구호물자 지원, ‘연공연복합작’에 의한 조국통일을 묘사한 작품
· 시 <벚애기>(김수경, 조선일보, 1989년 6월 30일), <삼천리금수강산>(항지우, 해외교포신문 우리나라, 1985년 9월 1일)	· 평양에 가고 싶은 심정과 김일성과 김정일을 만나보고 조국통일을 위한 귀중한 가르침을 받고 싶은 염원을 묘사한 작품
· 시 <백두산>(량성우, 민주통일, 1985년 2월호)	· ‘김일성의 항일혁명전통’이 깃들어 있고, ‘김정일이 탄생’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열렬히 가보고 싶어 하는 심정을 묘사한 작품
· 장편 연작시(제1부) <한나산>(리상백, 한나산, 1987)	· 김일성과 김정일의 칭송과 당의 혁명전통을 찬미하는 심정을 반영한 작품
· 시 <통일의 종>(작가 미상), 가사 <하나의 조국>(고원, <우리 승리하리라> 1985)	·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묘사한 작품

결국 ‘조국통일을 주제’한 문학작품들은 대체적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흠모의 감정’과 북한에 대한 동경심을 밑바닥에 깔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다.

나) ‘미제의 식민지통치’ 반대 투쟁

북한은 남한이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 군사기지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21) 김원택, 『남조선민중문학의 발전과 특징』, 96-110면.

‘반미적개심’을 고취시키는 작품을 창작해야 할 것(116면)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사상주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문예작품에 대한 평가를 <표 4-2>와 같이 하고 있다.

<표 4-2> 반미적개심을 제재로 한 작품²²⁾

대표적 작품	북한의 평가
· 김지하의 <남>, 시 <식민지 '국어시간'>(문병한, 시집 땅의 련가, 1981)	· '남조선이 미제의 식민지임을 폭로'하는 작품
· 허국 <해나가 되자>(민주로동, 1986년 3월호)	· 미국과 남한과의 관계를 '상전과 주구 관계, 주종관계'로 묘사한 작품
· 가면극 <소몰이탈곳>(민주로동, 1986년 12월호)	· 남한이 '미제의 경제적 침략에 의한 희생물'로 형상화
· <육화이야기>, <병주고 약주는 나라>, <코카콜라>(이상 문병란 시집, 땅의 련가, 1981년 5월 30일)	· '미제의 경제침략을 야유, 조소'하는 작품
· 시 <양키는 물러가라>(민주한국, 1982), <8월이 오면>(고운, 생활성서, 1987년 8월호) 등	·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민족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반미구국항전을 선동한 작품
· 시 <불에 타는 '성조기'>	· 미국의 성조기 소각을 '성스러운 투쟁'으로 형상화한 작품
· 가사 <벗이여, 해방이 온다>(민창석, 민중문화, 1986년 7월호)	· '반미지주화투쟁을 반영한 작품'에는 '생명을 걸고 싸우면 해방이 온다'고 노래한 작품
· 가사 <단결하세> (부활과 4월혁명, 1986년)	· "미제침략자들이 아무리 집요하게 방해책동을 일삼아도 단결하여 해방의 함성을 부르며 힘차게 전진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역센 기상을 노래"한 작품

다) 남한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의 '반동사회'

북한은 민중문학의 사상주제가 “로동자, 농민 등 기본계급출신 인민들의 생활참상을 미제와 괴뢰도당, 악질기업주놈들의 압박과 착취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의 반인민적 남조선사회제도와 결부시켜 착취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있다”(134면)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사상주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문예작품에 대한 평가를 <표 4-3>과 같이 하고 있다.

22) 위의 책, 117-133면.

〈표 4-3〉 ‘반인민적 사회제도’를 제재로 한 작품²³⁾

대표적 작품	북한의 평가
· 가사 <별이 반짝>, <돌아라 미싱아>(실천문학, 1983년), 시 <야근>(정미순, 동아일보 1987년 8월 19일), <휴일특근>(김해봉, 민주노동 1984년 5월호), <잠이 안온다, 누나야> (실천문학, 1982)	· ‘남조선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형상’한 작품
· 가사 <공장에서>(공동체놀이, 1985년 1월 15일), 시 <월급날>(민주노동, 1984 연말특집호)	· ‘고된 노동에 비해 보잘 것 없는 임금을 주고 있는 남조선 현실을 폭로한 작품
· 시 <새알의 꿈을 깨고 날을 때까지2>(신자중, 민주노동 1985년 12월호)	· 직업병에 걸려 신음하는 여성노동자의 참상을 노래한 작품
· 희곡 <넘어가네>(집체작, 실천문학, 1983년), 시 <그날(1)>(소식지, 1987년)	· ‘괴뢰들과 악질기업주들의 횡포에 항거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책동’을 그린 작품
· 시 <얼마짜리자>(민주통일, 1986년 1월호)	· 노동자들의 인간의 가치가 돈에 의하여 저울질 당하는 모습을 묘사한 작품
· 가사 <농사짓는 늬은이>(실천문학, 1983년), <왜 그러지>(실천문학, 1983)	· 농촌에서 벌린 새마을운동의 후과를 폭로하고, 농업협동조합을 반대 배격하는 작품
· <간석동산 52번지>(최해진, 민주노동, 1986년 7월호)	· 도시빈민들의 생활참상을 그린 작품

위의 표에서와 같이 북한이 주장하는 민중문학은 남한 주민들의 생활참상과 모순된 사회현실을 폭로하는 것을 하나의 형상과제로 설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자주적 권리 쟁취’ 투쟁

북한은 ‘민중문학’이 ‘투쟁을 통하여 생존의 권리와 자주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사상주제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157면), 이러한 사상주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문예작품에 대한 평가를 〈표 4-4〉와 같이 하고 있다.

23) 위의 책, 135-153면.

〈표 4-4〉 민중생존권과 자주권을 제재로 한 작품²⁴⁾

대표적 작품	북한의 평가
· 가사 <아학가>(실천문학, 1983년), 시 <우리의 박형은 여제의 박형이 아니다>(리왕재, 민주노동, 1984년 7월호)	· 대중 의식화 투쟁을 그린 작품
· 시 <친구>, <어머니>(정명숙, 실천문학, 1983년), 가사 <우리 엄마>(실천문학, 1983년)	· '사회의 모순과 불의에 반대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선각자의 모습'을 그린 작품
· 시 <떠다니나>(실천문학, 1983년), 가사 <부당해고투쟁가>(민주노동, 1984년 7월호)	· 기업주의 해고책동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묘사한 작품
· 가사 <새마을>, <자 깎아라>(실천문학, 1983년)	· 괴뢰들의 세금수탈정책에 대한 인민들의 투쟁'을 형상한 작품
· 가사 <우리들은 로동자다>, <로동렬사추모가>(모이재! '헌법 제정민중회의'를 쟁취하자, 1986년 후반가-1987년 전반기 추정), 시 <절규>(민주가족, 1986년 9월호)	· '주체사상이 구현된 사회를 열망하고 그런 사회의 현실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동한 작품

결국 북한은 ‘남조선인민들의 단결된 투쟁’을 통하여 ‘민중의 생존권’과 ‘자주권 쟁취’ 투쟁의 정당성을 선전·선동했던 것을 알 수 있다(179면).

마) ‘과소독재 폭로 규탄’ 투쟁

북한은 민중문학의 사상주제 특징 중 하나가 ‘과소독재를 폭로 규탄’하는데 있기 때문에, “미제와 괴뢰들이 남조선이라는 거대한 감옥의 《감옥간수》라는 사상주제로부터 인민학살의 원흉”이라는 사상주제에 이르기까지 취급해야 할 것(179면)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사상주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작품에 대한 평가를 <표 4-5>와 같이 하고 있다.

24) 위의 책, 157-172면.

〈표 4-5〉 파쇼독재 폭로 규탄을 제재로 한 작품²⁵⁾

대표적 작품	북한의 평가
· 시 <우리는 열 번이고 책을 던졌다>(량성우, 고난받는 문학인의 방, 1970년), <씩씩소리>(윤용, 해외교포신문 신한민보, 1987년 5월 7일)	· ‘폭압인행을 감행하는 괴뢰들의 횡포와 범죄행위를 폭로’한 작품
· 우화형식의 단편소설 <미친새>(박양호, 현대문학, 1977년 10월호)	· ‘애국적 인민들을 억누르고 가차 없이 학살하는 만행’을 고발한 작품
· 시 <국 ...>(배상진, 민주한국, 1982년 1월 22일)	· ‘애국적 인민들을 용공분자, 공산주의자, 간첩으로 몰아 탄압’한 것을 묘사한 작품
· 시 <옥중의 삼민투사들에게>(선구자, 1986년 27호)	· 남한을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묘사한 작품

바) ‘사회의 민주화’ 투쟁

북한은 민중문학이 ‘파쇼독재자와 폭압체제를 타도하기 위한 민주항전으로 민주적 새 사회 건설’을 반영해야한다고²⁶⁾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상주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문예작품에 대한 평가를 〈표 4-6〉과 같이 하고 있다.

〈표 4-6〉 사회민주화투쟁을 제재로 한 작품²⁷⁾

대표적 작품	북한의 평가
· 김지하, <다는 목마름으로>(김지하 전집, 1980), <다시금 우리의 사랑은>(민중문화, 1984년 6월호)	·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을 반영하여 묘사한 작품
· 시 <물러서지 말자>(신경림, 여성농민, 1986년 4월호)	· ‘파쇼독재자들에 대한 복수심’을 형성한 작품
· 시 <약당 전두환에게>(박일동, 시집 이야기, 광주여 무등산이여), 가사 <제이에게>(일본에서 발행되는 잡지 통일평론, 1985년 5월호)	· ‘전두환에 대한 사무친 원한과 그를 총으로 쓰이죽이고 찢어 죽이려는 갈망’을 형성한 작품
· 가사 <사기벌레>, <살인자>(노동자문화재지료집, 1987년)	· ‘미제와 괴뢰들의 군사독재 통치 연장책동을 분쇄’할 것을 선동하는 작품

25) 위의 책, 179-180면.

26) “민중문학작품들에서는 파쇼독재자와 그 폭압체제를 증오, 저주, 타매하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거족적인 민주항전에 떨쳐나섬으로써 민주적 새 사회를 건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위의 책, 193면).

27) 위의 책, 202-212면.

이상에서와 같이 북한은 민중문학이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끝장내기’ 위한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 조국통일투쟁’에 선봉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인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북한의 대남문예투쟁 전술이 남한에 성공적으로 확산되어 정착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보안경찰의 책무와 대책

가. 보안경찰의 책무

북한의 문예작품이 우리사회에 확산된 계기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라할 수 있다. 이후 북한의 시, 소설,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등이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 이후부터는 통일에 대비한 북한 바로알기 실천사업을 표방하면서, 북한의 문예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국내의 일각에서는 북한의 혁명영화를 비밀리에 입수하여 공공연히 상영하고, 혁명가를 애창하는가 하면, 북한 사회주의사회의 우월성과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날조(捏造)하여 찬양하고 있는 혁명문학 작품을 창작하거나, 불법 무단 복제하여 시판하였다.

최근에는 김일성부자를 찬양하고, ‘남조선혁명’을 정당화하는 시, 소설, 혁명가요, 영화 등이 인터넷 사이트상에 무차별 유포되고 있다. 심지어는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의 대남혁명 전위조직인 <반제민족민주전선>(약칭 반제민전)은 북한의 대남문예정책과 문예이론 그리고 문예작품을 인터넷 사이트 <구국전선>에 교양학습 자료로 게재하고 있다.²⁸⁾ 북한 당국이 대남혁명 선전매체를 통해 문예투쟁에 전력하

28) 김명혁, “2006 공동사실 학습”(〈전국연합〉 자료게시판 1236, <http://www.nadrk.org/plus/board.php3?table=pds&query=view&l=2293&p=2&go=17>), 2006.1.26일 검색. 2006년 북한

고 있는 것은, 창작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심정적(心情的)인 측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그 동안 금기사항으로 여겨왔던 북한의 ‘혁명적인 문예작품’의 적극 수용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나, 북한의 대남문예 영향공작²⁹⁾으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전자의 입장은 향후 남북통일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설 하에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후자의 입장에 대한 연구는 학문의 자유와 알권리에 대한 침해 그리고 ‘반동보수수구세력’의 논리 등의 이유로 인해 미미(微微)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그 현실이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남문예 공작에 대한 보안경찰의 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후자의 입장에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혁명문예작품을 독자들이 탐독 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사회주의 사상으로 오염되어 국민들의 안보관을 무력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필자는 북한의 대남문예투쟁을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보았다. 여기서 국가안보가 확보된 가운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헌법 제10조)를 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대한민국헌법 제21조 1항)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이 성립된다.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기본활동은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의 신년공동사설 학습자료의 구성은 ‘2005년 평가, 공동사설 전문, 공동사설 해설, 반제민전 문헌, 반제민전 신년서한 해설과 체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는 아무런 비판 없이 그 추종세력들이 학습 자료로 활용하기 쉽게 주요 내용을 분류하여 해설하고 있다.

29) ‘영향공작’은 구소련의 KGB가 제3세계 국가들의 ‘친소화’와 ‘반미감정’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심리전을 의미한다(김윤영, “최근 북한의 대남투쟁 실태 분석”, 『공안연구』 통권60집, 용인: 공안문제연구소, 2000.2, 76면 참조).

경찰활동³⁰⁾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개인이나 공중을 보호하거나,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대한 교란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국가적 활동”이라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일반적 또는 개별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작용 또는 행위이다.³¹⁾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5항에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다.³²⁾ 공공의 안녕 보호대상에는 국가의 존립과 기능의 유지가 포함된다. 국가의 존립과 기능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보안경찰의 직무와 연관 지어 보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세력, 북한의 군사적 위협 그리고 공산주의 활동에서 비롯되는 위해, 테러행위 등을 사전예방·제거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직무라 할 수 있다. 보안경찰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야기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서 개입하게 된다. 보안경찰의 목적은 헌법상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보호하는 즉, 기본적 인권의 존중·의회제도·복수정당제도·사유재산·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 질서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세력으로부터의 보호에 있다고 할 것이다.³³⁾

이와 같이 보안경찰의 활동은 국가의 안위와 직접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 진압적인 작용보다는 사전 예방적 활동³⁴⁾이 중요하다. 보안경찰이 자신의 직무영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안보활동

30) 이 글에서 사용하는 치안(治安)활동이란 ‘국가와 사회의 안녕 질서를 보전하고 지켜 나가는 경찰의 기본 활동’이란 의미로 사용하였다.

31) 홍정선, 『행정법원론(下)』, 서울: 박영사, 1996, 205면.

32) ‘경찰관직무집행법’(법률 제7849호 일부개정 2006.2.21) 제1조(목적)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 밝히고 있다.

33) 이운주, 『경찰학개론』, 용인: 경찰대학교, 2003, 363-364면.

34) 경찰작용은 대체로 개입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전 예방적 작용과 사후 진압적 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국가안보 대응역량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³⁵⁾ 따라서 보안경찰은 북한이 문예투쟁을 통해 자유민주 체제를 교란하는 모든 행위를 제거하는 치안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나. 보안경찰의 대책

1) 보안경찰의 교양함양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한의 문예교류는 그 어느 때 보다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보안경찰은 북한의 문예정책에 대한 적응능력이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다. 북한의 문예정책이나 창작 원리 그리고 주체문예이론 등에 대한 식견은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 과정에서조차 북한의 문예정책이나 이론을 소개하는 개설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북한문학을 전공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문예교육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당대의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는 북한 문예작품에 대한 적응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문예정책은 주체, 자주, 민족 등 대내외적으로 호소력이 강한 용어를 선점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에게 민족은 ‘문화·혈연 공동체’로서의 민족이지만, 북한에서 주장하는 민족은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를 추종하는 반미친북세력을 의미한다. 김정일이 1994년 김일성 사망 100일 담화를 통해 “우리 민족은 김일성 민족”이라고 강조한 이후, ‘김일성민족’(1995년), ‘김정일민족’(1996년 7월), ‘김일성·김정일 민족’(1998년 9월)³⁶⁾ 등의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자주도 마찬가지로

35) 보안경찰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우리사회의 대북안보의식의 이완과 안보불감증 만연 등 안보사상전선의 해체와 친북추종세력의 만연과 발호 등 총체적인 사상적 혼돈상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36) 1998년 9월 9일자 ‘평양방송’에 출연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들은 “수령님은 김정일 동지이시고 장군님은 곧 영원한 태양이신 김일성 동지”, “김정일 동지는 사상도 영모도 품모도

다. 6.15남북공동선언의 ‘자주원칙’에 대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아니라 우리 문제를 남북이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으나, 북한은 2005년 신년공동사설에서 ‘3대 공조’ (민족자주 공조, 반전평화 공조, 통일애국 공조)를 통해 ‘자주는 외세배격으로 주한미군철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안경찰은 적어도 북한의 대남 문예정책과 이론 그리고 문예작품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예용어를³⁷⁾ ‘대남혁명 전략적’ 관점에서 분석·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전문가를 활용해 북한의 문예작품을 분석·평가하고, 자료를 보안경찰의 실무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된 대응 논리는 가칭 <북한리뷰>를 통하여 보안경찰의 교양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우수한 보안인력을 확보하여 담당업무를 전문화해야 한다.³⁸⁾ 인터넷 검색 및 분석 인원 확충 등을 통해 전문적인 ‘분석 팀’을 운영해야 한다.

2) 대국민 홍보 강화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북한문화에 대한 정보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위주로 편집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 주민들의 인터뷰 내용들은 하나같이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고 있다. 우리는 소설이나, 시, 미술작품, 영화, 음악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감성을 키우며 자유로이 사고한다. 그러나 북한은 문예작품을 통해 혁명의식을 고취

어버이 수령님 그대로이신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시고 21세기의 위대한 령도자”라고 강조하면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동격화 하였다(『내외통신』 종합판 69호 1998.7.1-9.30, 서울: 내외통신사, 1998, 107면).

37) 북한의 문예정책이나 문예이론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통일전선전술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용어 혼란전술이 국내 이슈들과 연계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38) 다양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보위해문건 분석, 북한분석, 합동신문, 방첩수사, 안보위해사범수사, 산업보안수사, 테러 및 사이버테러 수사, 해외보안수사, 보안경호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화된 보안요원을 양성해야할 것이다.

시키고 김일성부자에게 복종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북한의 문예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 실상을 보여주는 동영상 홍보물(‘남북의 창’ 방송자료 편집, 탈북자들의 증언)등을 제작하여 경찰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각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치안센터)에 배포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성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구대 경찰관들의 지역 순찰과정에서 접촉하는 주민들과 자연스러운 대화과정을 통해 북한의 문예실상에 대해 홍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구대 경찰관들의 교양함양은 필수적이며, 그 대안으로 전문가를 통한 전담순회 강연자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경찰관의 신뢰 구축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이러한 추진계획이 일회성이 아니라 하나의 제도를 정착될 때만이 그 성과는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3) 무단복제 차단

1980년대 중반 이전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북한문예 작품들을 공공연히 무단 복제하여 시중에 시판하였으나, 1988년 월북·남북 작가들에 대한 해금조치³⁹⁾로 북한 문예작품의 합법적인 수입이 가능해졌고, 다양한

39) 이른바 ‘조선문학가동맹’(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 + 조선문학건설본부)에서부터 6.25전쟁 시기 월북·남북 문인 120여명에 대한 해금조치가 1988년 7월 19일 이루어졌다. 권영민은 1, 2, 3차 월북 문인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조선문학건설본부’와 연결되면서 주도권 상실에 따른 1차(해방 전·후부터 1946년) 월북문인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1차 월북문인들로는 이기영, 한철야, 한효, 이동규, 윤기정, 박세영, 안함광, 송영, 안막 등이 있다. 2차 월북문인들로는 임화, 김남천, 이원조, 오장환, 이태준, 임학수, 박팔양, 김오성, 윤세중, 안희남 등을 들 수 있다. 2차 월북문인들은 미군정이 공산당을 불법단체로 인정하고 탄압(1947)한 이후부터 정부수립 직전(1948년 8월)까지 계속 이어졌다. 3차 월북 문인들은 6.25전쟁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에는 많은 강제 납북문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광수, 김동환, 박영희, 김진섭, 김억, 김기림, 정지용, 박태원, 설정식, 이용악, 임서하, 송완순 등이 있다(권영민, “월북문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권영민 외, 『월북문인 연구』, 서울: 문학사상사, 1989, 31-37

장르를 연구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장편소설 시리즈 <불멸의 역사>와 <불멸의 향도>, 김일성 일가를 예찬하고 사회주의체제의 정당성을 찬양하는 혁명가요 등 ‘혁명적 문예작품’은 여전히 불법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로 비하되어 남북문예교류와 안보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보안경찰은 사법적 조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강력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법 개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혁명적 문예작품’에 대해 문예단체나 문예인 그리고 전문가들과 정보교류를 통해 통일과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혁명문예작품에 대한 전문가들의 원활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방 가능한 문예작품의 목록을 선정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4) 사이버 선전투쟁 차단

북한의 대남혁명 전위조직체인 반제민전은 인터넷 사이트 <구국전선>에 별도의 ‘문예’란을 통해 김정일의 문예정책과 문예관,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불멸의 력사>와 <불멸의 향도>, 항일혁명문학과 사회주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문학작품과 가요 등을 게재하여 대남문예투쟁 지침을 하달하고 있다.⁴⁰⁾ 최근에는 인터넷 미니홈페이지 열풍에 편승하여 반제민전의 문예투쟁 지침을 퍼 유포하고 있어 네티즌들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

면 참조).

40) 2006년 8월 현재 <구국전선> ‘문예’란에 게재된 것을 보면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1-7권, <배움의 천리길>,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총서 불멸의 력사, HWP), 장편소설 <푸른 산악>(총서 불멸의 력사), 조선노동당 창건 60돌 경축 시(10월 10일)로 <수령님 따라 천만리당을 따라 천만리>, <목숨 바쳐 지키리 단결의 기치>, <당중앙을 무장으로 보위하리라>, <조선노동당 만세>, <승리의 열병식> 등이, 시집 <통일이 보인다>, 장편소설 <라남의 열풍>(불멸의 향도 총서), 노래 <운명의 갈림길>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hwp과일 자료모음’에는 주체 문예이론과 혁명문예작품 등이 게재되어 있다.

이 열람하고 있다.

<그림 1> 반제민전의 구국전선 홈페이지



반제민전의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⁴¹⁾함으로써, 그들이 선전 선동하는 대남투쟁의 일차적인 통로를 막을 수밖에 없다. 2004년 11월 12일 정부당국에서는 친북인터넷 사이트 32개를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국00(http://nadrk.org)의 정보자료마당(2005.6.3)에 ‘프록시 서버로 접속 차단된 사이트 접속하기’란에서는 정부가 2004년 친북사이트로 규정하여 접속을 차단한 사이트가 총 40개임을 지적하면서, 친북사이트 접속유무⁴²⁾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프락시서버

41) 인터넷매체인 <민족통신>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은 2006년 4월 26일 한국 정부가 17개 월째 접속을 불허하는 이른바 ‘친북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외동포 인터넷언론 차단 해제 촉구문”을 통해 “국정원과 경찰청 등의 해외동포 언론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는 남북 화해와 협력시대에 걸맞지 않는 처사”라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 자유를 위해, 한국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각계 국민과 단체, 언론인과 싸워 나갈 뜻을 다짐한다”고 밝혔다(문관현, “인터넷매체, 정부에 친북사이트 차단해제 촉구”, <연합뉴스>, 2006.4.26).

사용방법-백두넷에 있는 자료’(2005.6.3), ‘프록시서버로 접속 차단된 사이트 접속하기-친북사이트 접할 수 있다’(2005.6.3), ‘프록시서버 접속 유틸’(2005.9.5), ‘남측에서 구국전선 인터넷 사이트 등록’(2005.11.15) 등의 게시물을 통해 친북사이트 접속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사이버(cyber) 공간을 통해 혁명소설, 혁명가요, 혁명영화 등을 무제한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문예투쟁에 대해 완전한 대비책은 인터넷 특성상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다. 보안경찰은 법이 허용하는 한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반제민전을 비롯한 친북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과 접속 가능한 사이트의 즉각적인 차단조치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 대남혁명 노선이 전파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문예실상에 대한 고급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의 하나로 보안경찰은 북한 혁명문예작품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연구물을 인터넷 공간에 게재하여 북한의 문예투쟁의 실상을 네티즌들에게 올바르게 알려 그들 스스로 방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외에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 문예작품의 전면적 개방과 남북 문학 예술인들의 본격적인 교류·협력 그리고 남북한 이질문화 극복방안 등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방송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대남 비방방송 뿐만 아니라 북한방송 전반에 대한 체계와 조직에 대한 연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2) 접속되는 사이트(22개)는 조선통신, 조선신보, 민족통신, 통일학연구소, 우리민족끼리, 조국평화통일협회(평통협), 제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백두넷, 조선의노래, 조국통일21, 구국전선,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코리아북센터, 조국통일을 논하는 홈페이지(모악산), 겨레사랑터, 코리아네트워크, 실리은행, 내나라, 조선우표, 조선출판물, 범민련 공동사무국 등이다. 접속 안되는 사이트(18개)로는 조선우호협회, 고려바둑, 평양정보센터, 현장의소리(자주민주통일 미주연합), 주체사상, 조선관광, 자주평화민족대단결, 백두산, 조선복권, 통일아리랑, 조선인포뱅크, 주폐사이트, 애국의 길, 민족자주대학, 조선음악, one-corea,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선군정치연구소 등이다.

V. 김정일 문예정책의 정치적 함의와 전망

1. 문예정책의 정치적 함의

김정일이 집권했던 1990년대는 외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했고, 내적으로는 김일성 사망과 심각한 경제난이 중첩된 시기였다. 북한으로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를 수호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¹⁾ 김정일 체제가 당면한 위기는 시·공간적인 환경 속에서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 아니라 체제 내·외적 전반에 걸친 것이다.

김정일은 문예정책을 통하여 ‘근로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교화’하고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여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서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키고, “창작가·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제52조)²⁾고 규정하듯이, 북한의 문예정책은 예술성보다는 당(黨)이 의도하는 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문예정책을 통하여 당대의 가장 절실한 정치적 문제들을 문예작품에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인민대중’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켜 사회주의 체제유지와 김일성부자에 대한 신격화·우상화를 통한 세습정권의 전통성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문예정책은 수령에 대한 우상화정책과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강화하는 기능과 더불어 그 정당성을 선전 선동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1) 김윤영, “김정일 체제의 위기와 위기관리”, 60면.

2) 통일부, “사회주의 헌법”(『2000 북한개요』, 서울: 통일부 정보분석국, 1999), 613면.

김정일은 김일성 생전에 이미 후계자로서의 정치적 입지를 굳혀왔으며, 김일성 사후에도 별다른 굴절 없이 현재까지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세습체제는 사실상 성공적으로 완결되었다. 이 글은 이러한 기본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북한의 권력승계와 체제유지가 가능하게 했던 요인들은 관점에 따라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 글은 김정일 세습체제가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 중에서도 그 요인을 북한의 문예정책을 반영한 문학작품에서 찾고자 했다.

가. 권력 세습체제의 정당화

1) 김정일의 수령 이미지 구축

김일성 사망 이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의 카리스마는 김일성체제에 비해 미약했기³⁾ 때문에, 김정일을 수령으로 형상화하여 그의 카리스마를 강화하는 작업은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문예정책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김정일의 영도력과 업적을 부각시키는 작업이 필요했다.

첫째, 김정일 수령형상창조에 있어 김일성과 동일한 기본원칙에 따라 적용하였으나, 문예작품의 소재와 내용에 있어서는 일정한 변별력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김일성은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자 사상이론가로서의 위대성이 형상 되고 있으나,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상이론가로서의 그 위대성이 형상화되고 있다. 김일성의 위대성 형상에서는 ‘항일혁명무장투쟁’과 ‘6.25남침’에서의 무수한 김일성의 무용담 등 다양한 소재를 통하여 ‘비범한 예지와 무비(無比)의 담력을 지닌 전략가’로서 형상되고 있으나, 김정일의 위대성

3) 김일성의 ‘항일혁명무장투쟁’과 ‘6.25남침’은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주요한 근거가 되었고, ‘사회주의제도’ 구축과 ‘주체사상의 창시’는 김일성이 북한정권 시조로서 찬양되는 주요한 업적이 되었다(《백두-한나》 2003년 8월호, 재중조선인총련합회, 2003, 5면).

형상은 대체적으로 1993년 미국과의 ‘핵 대결’ 과정에 ‘탁월한 전략가’라는 국한된 소재를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문예작품을 통하여 김정일의 영도력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데 있어서 그 주제의 폭이 김일성에 비해 좁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김정일을 영도의 예술가로서 위대성을 형상화하는 데 있어서 김일성에 비하여 그 소재부터가 빈약했다. 때문에 김정일을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충효의 화신, 뛰어난 문예이론가, 문예의 영재 등으로 그 위대성을 의식적으로 미화하여 찬양하는 등 김일성과의 일정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김정일 역시 김일성과 동일하게 인민과 더불어 기쁨과 고통을 함께 하는 수령으로 형상화되면서, 의도적으로 김일성보다 더 정과 눈물이 많고 나라와 인민을 위해 늘 생각하는 사려 깊은 지도자,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효성이 지극한 지도자 등으로 미화시키는 등 김일성보다 김정일의 위대성을 더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로서의 김정일의 위대성에서는 소재 및 내용을 김일성 형상화 문예작품들과 거의 동일한 위치에서 형상화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기기도 한다.

둘째, 김정일 자신만의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획득하고자 했다. 김정일의 정통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의 출생지로 백두산이 강조되고 있다. 김정일은 1942년 구소련 브야츠크에서 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백두산 밀영(密營)에서 출생했다는 것을 중요하게 홍보하고 있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백두산은 민족의 탄생을 상징하는 영산(靈山)이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김정일이 백두산에서 출생했다는 것은 그가 민족의 지도자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된다. 불멸의 향도 『예지』(리종렬, 1990)에서는 김정일이 이미 오래 전부터 혁명전통을 되살릴 구상을 키워왔음을 밝히면서, 백두산 천지에 올라 하늘과 교감을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또한 『평양은 선언한다』(리종렬, 1997)에서도

김정일이 백두산에서 새로 찾은 구호나무를 보고 눈보라를 맞는 장면이 묘사되기도 한다.⁴⁾

셋째, 김정일 체제의 정통성을 정당화하고 있다. 장편소설 『불구름』(박현, 1991)에서는 10살도 안 된 어린 김정일을 비범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로 형상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그는 마을의 대소사를 관할하고, 전쟁터에 있는 김일성을 찾아가며, 혁명유자녀학원에서 풀기 힘든 난제(難題)들을 척척 해결하는 등 그는 어렸을 때부터 지도자로서의 품모를 이미 지녔던 인물로 찬양되고 있다.⁵⁾

김정일을 세계 사회주의의 기수로 찬양하기도 한다. 장편소설 『평양은 선언한다』에서는 소련의 붕괴는 지도자의 부재라 지적하면서 북한 인민들에게는 위대한 향도자 김정일이 있기에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인민들이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소설에서 김정일은 대사관 직원을 시켜서 리지야 꾸즈네쵸바의 딸 쓰웨타 무덤에 매년 꽃을 갖다 놓게 함으로서 가엾은 소련의 인민에게도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지도자로 형상화되고 있다. 그는 붕괴된 사회주의권에서도 인민을 사랑하는 마지막 지도자이자 수령인 것이다.⁶⁾

이와 같이 문예작품 속에서 김정일은 인민대중과 함께하는 지도자로⁷⁾ 철저히 형상되고 있다. 특히 대중과 함께하는 지도자상은 수령의 인민적 품모를 옹기 형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수령형상창조의 창작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김정일은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평범한 인민대중 속에서 허물없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수령, 그들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내세워 주며 온갖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는 수령형상을 창조할 때만이 인민의 수령만이 지닐 수 있는 소탈한 성

4) 리종렬, 『평양은 선언한다』,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7, 457-458면.

5) 엄경순, “김정일형상문학에 나타난 북한사회의 작동원리”, 동국대석사논문, 2000, 41면.

6) 리종렬, 『평양은 선언한다』, 547면.

7) 정치학에서는 이러한 김정일의 성격을 ‘인덕정치’로 지칭한다.

품과 인민적 작풍, 인민에 대한 사랑과 배려, 고매한 덕성 등 인민들에게 친절하고 부드러우며, 온갖 배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감명 깊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 있다.⁸⁾ 다시 말해 김정일을 가장 인민적인 수령으로서 이미지를 창조하여 고착화시킴으로써, 인민들은 김정일의 자애로운 모습에 감동하고, 그의 품속에서 눈물을 흘리도록 한다. 이러한 시도는 이미 김일성의 형상화 작업에서도 보여준 바 있다.⁹⁾

이외에도 1970년대부터 시작된 김정일 형상화의 주요 성과로서 나타난 ‘인민적 품모의 수령’의 이미지는 1990년대에는 ‘인덕정치(仁德政治)’¹⁰⁾, ‘선군정치(先軍政治)’¹¹⁾, ‘음악정치(音樂政治)’¹²⁾ 등으로 구체화되기도 했다.¹³⁾

2) 김정일을 김일성과 동일화

김일성 사망 이후 권력을 계승한 김정일을 ‘지도자’, ‘민족의 위대한 태양’, ‘민족의 아버지’, ‘통일대통령’, ‘각하’¹⁴⁾ 등으로 호칭하면서 김정

8) 김정일의 이러한 경향은 평양 주민들보다도 현지지도의 노정에서 우연히 만난 산촌, 농촌, 탄광지대 주민들에게 더 각별한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9) 소설을 통해서 김일성은 ‘항일무장투쟁’과 ‘6.25남침’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장군’으로서의 권위와 주체사상을 창시하고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한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서의 위엄을 드러내며, 이에 대해 사람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그를 대하도록 하였다.

10) 1990년대 초부터 북한은 김정일을 ‘통이 크고 대담한’ 인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김정일이 인덕정치(광복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인덕정치를 김정일이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정치를 해나간다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러한 인덕정치로 김정일의 성격은 대담성과 예지와 ‘통큰 스케일’을 지닌 인물로 문학작품에 반영되어 형상되었다.

11)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된 직후, 북한 《중앙방송》(1998.10.20)은 논설을 통해 ‘선군정치’를 김정일 특유의 정치방식으로 공식화했다. ‘선군정치’ 역시 문학에 반영되어 ‘선군혁명문학’ 작품이 창작되고 있다.

12) 김정일의 ‘음악정치’는 2000년에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정치 구호이다. 북한은 2000년 2월 7일 김정일의 위대성에 대한 인민무력성 발표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어느 시대에도 있어 보지 못한 우리식의 특이한 ‘음악정치’가 펼쳐지고 있다”고 하면서, “온갖 시련과 난관을 노래로 이겨내며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상은 김 총비서의 ‘음악정치’가 가져온 자랑찬 결실”이라고 주장하였다(《연합뉴스》, 2000.2.8).

13) 임순희, 『북한문학의 김정일 ‘형상화’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1, 191면.

14) “북한, 김정일에 각하 호칭사용”, <중앙일보>, 1994년 7월 10일자.

일을 김일성과 버금가는 위상에서 격찬하고 있다. 김정일의 위상은 1990년 이후 문예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김일성과 동일시하는 이미지로 형성되었다. 김정일은 선대수령과 동일하게 ‘사색하는 지도자’, ‘뛰어난 사상이론가’, ‘대담한 전략가’ 등으로 김일성이 지닌 인간적 풍모의 위대성까지 겸비한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수령형상창조’와 ‘수령의 계승자형상창조’에서 보여주고 있는 공식적인 차이가 수령에 대한 충실성뿐이라는 북한의 입장과는 달리,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을 위해서 김일성과 동일한 위치에서 수령으로 형상화되는 경향을 보여 준 것이다. 김정일을 김일성과 같은 수령으로서 동일시하는 경향은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과정에서 문예작품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첫째, 김정일을 단 한명의 수령, 태양, 주인 등으로 김일성과 동일시하여 형상하고 있다. 문예작품에서 김정일을 김일성과 같이 동일한 위치에서 수령으로 형상하는 것은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 후계체제의 정통성을 구축하기 위한 교양수단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면서(1998.9) 김정일을 수령으로 형상화하는 문예작품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다.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평양의 봉화』에서는 김정일을 ‘향도의 태양’, ‘위대한 태양’ 등으로 찬양하고 있다.¹⁵⁾

둘째, 김정일을 ‘민족의 운명’이며 ‘사회주의의 수호자’로 김일성과 같은 위치에서 형상화하고 있다. 김정일은 ‘혁명투쟁의 길에 나선 첫날부터 이민위천,¹⁶⁾ 이신위민의 이념을 좌우명’으로 삼아온 김일성 수령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체현하여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을 확고부동한 생활신조로, 인생관으로 하

15) 안동춘, 『평양의 봉화』,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456·478면 참조.

16) 여기서 이민위천(以民爲天)이란 백성을 하늘처럼 여긴다는 뜻이다(『조선말대사전(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1673면).

여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습으로 형상되고 있다.¹⁷⁾

셋째, 김정일이 인민들의 ‘친아버이’로서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 또한 김일성과 동일하게 형상하여 두 사람의 위대성을 일치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보내는 청원편지에 일일이 답장해 주며 원하는 바를 실현시켜 주고, 촌로의 건강문제와 방직공장 여자노동자의 혼사문제를 염려하고, 청춘남녀 노동자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과오를 범한 전사와 당 일꾼을 사랑과 믿음으로 회개시킴으로써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무장시키고, 가정 주위 환경과 경력이 복잡한 사람을 포용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¹⁸⁾

이외에도 문예작품을 통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의 인간적 풍모의 위대성, 숭고한 동지애와 의리 등 다양한 형상을 통하여 두 사람을 일치시키고 있다. 결국 문예작품을 통하여 김정일을 김일성과 동일시하여 수령형상 창조를 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이 김일성체제를 계승한 수령으로 각인시켜 후계체제의 정통성을 구축하여 체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교양수단이 될 수 있다.

나. 지배담론의 전파¹⁹⁾

1) 사상의 통제

1980년대 중반부터 김정일이 정치 전반에 등장하면서 사회 전 분야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신호탄이 되었다. 이 세대들은 항일무장투쟁과 6.25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들어 급격히 변

17) “머리글,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있게 체득하기 위한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조선문학》 1992.11호), 5면.

18) 임순희, 『북한문학의 김정일 ‘형상화’ 연구』, 81면.

19) 김윤영, “북한소설의 갈등양상 연구”, 135-142면 재정리.

화²⁰⁾되는 국제환경과 장기적인 경제난 속에서 형성된 사고방식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은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성향이 높은 반면 혁명의식은 약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 또한 집단중심의 사회 지향적 가치관에서 점차적으로 자아중심의 개인 지향적 가치관으로 변화되면서 정치사상성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물질을 우선시 하는 가치관이 확산되고 심화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북한 주민들은 경제적 능력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비롯한 외제품 선호, 성가치관의 변화, 빈부격차의 확대, 신흥 부유층의 출현 등 개인주의 가치관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김정일은 해설이나 담화 등을 통하여 ‘자본주의적 풍조’를 경계하면서 ‘군대문화 따라 배우기운동’, 모기장 교육 강화²¹⁾ 등을 통해 ‘자유화바람’을 차단하여²²⁾ 사상이탈을 방지하고자 했다. 특히 김정일은 청년학생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적들의 자유화바람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²³⁾, ‘자유화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당의 총 로선의 정당성’을 똑똑히

20) 최근 북한의 변화를 “상징적 변화, 의미 있는 변화, 근본적이고 불가역적인 변화”로 보는 견해도 있다(《연합뉴스》, “**‘**동일 북한 주체사상 변경 가능”, <http://www.chosun.com>, 2003.10.2 검색).

21) “모기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며 무서운 병을 퍼뜨려 앓게 하는 아주 유해로운 곤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사상에도 모기와 같이 나쁜 것이 있습니다. 수정주의가 바로 모기와 같이 나쁜 사상입니다. 수정주의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자주, 자본가 계급의 이익에 맞게 뜯어 고쳐 놓은 반동사상입니다. 수정주의의 교활성은 지주, 자본가 계급의 반동사상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변장시킨 것입니다. ... 우리는 모기와 같은 수정주의를 막아내는 ‘모기장’을 빈틈없이 쳐서 수정주의의 사소한 요소도 스며들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수정주의를 막아내는 우리의 ‘모기장’은 경애한 대원수님과 위대한 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적 규율과 조직생활을 강화하는 것이 양풍을 반대하고 검박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경애한 대원수님과 위대한 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면 수정주의가 달려들지 못합니다.”(북한 고등중학교 3학년 교과서 『공산주의도덕』 17과 요약; 전영선, 『북한의 문학예술 운영체계와 문예이론』, 271-272면 재인용).

22) 김정일,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월 1일”(『김정일 선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265-266면.

23) 위의 책, 266면.

인식시켜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²⁴⁾

북한은 문예정책을 통해 지배담론을 전파하고자 기존방식과는 달리 정치사상성과 혁명성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서, 서정성과 오락성을 내세우는 다양한 제재의 작품들을 창작하도록 하여 주민들 사이에 확산·심화되어 가고 있는 집단주의와 획일주의에 대한 거부감과 더불어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불만 요인을 해소시키고자 하였다. 즉, 김정일은 문예정책을 통해 변화하는 주민들의 사회가치관을 사회주의 사상으로 채무장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예는 남녀간의 사랑을 형상한 문예작품에 잘 드러나 있다. 북한에서의 남녀간의 사랑관은 남한에서의 개인적인 문제로서 인식하는 애정관과는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북한 소설에서 나타나는 남녀간의 사랑은 대체적으로 혁명적 사랑으로 귀결되고 있는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인간의 사랑 이야기가 소설작품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²⁵⁾ 이러한 사랑의 대부분은 지배이데올로기를 선전하고 전파하는 침범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²⁶⁾

24) 위의 책, 288면.

25) 1987년에 출판된 남대현의 『청춘송가』는 우리사회에 알려진 대표작이다. 이 소설은 진호, 현옥, 정아 사이의 사랑 관계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이 소설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과학의 창조성을 발휘한 인물은 남자주인공 진호이지만, 사랑의 창조성을 발휘한 인물은 진호의 부탁으로 평양에 가서 현옥을 만난 정아이다.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정아가 진호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감정은 사랑을 인간의 정신 도덕적 풍모의 중요 척도로 보는 북한의 전통적인 도덕관념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으로 평가되고 있다. ‘생활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이라는 현옥의 소극적인 사랑과 ‘사랑도 과학과 마찬가지로 창조’라는 정아의 적극적인 사랑의 최정점에서 진호를 통해 들어나는 사랑의 삼각관계는 이전의 북한 소설에서 볼 수 없었던 사랑관계이다. 이전의 소설에서 남녀간의 사랑도 혁명적 동지애로 표현한 것과 비교하면 남녀간의 사랑을 대담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김운영, “북한소설의 갈등양상 연구, 참조). 『청춘송가』는 북한 소설사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 소설을 이어주는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는 작품이다. 1990년대 들어 북한 소설에서 사랑의 모티브는 정현철의 <삶의 향기>(《조선문학》 1991.11호), 이태운의 <사랑>(《조선문학》 1992.9호), 백남룡의 장편소설 『동해천리』(평양출판사, 1996) 등에 계승되어 나타나고 있다.

26) 1990년대 북한 소설에 나타난 개인간의 사랑은 ‘혁명성’과의 기계적인 결합을 통해 인민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수단이 되고 있으나, 이러한 의도가 반드시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사랑의 힘은 미약하게나마 북한 통치자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뚫고 남녀간의 진실과 해방의 의미를 은연중에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들어서는 북한 대중가요 역시 남녀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애정가요가 창작 보급되어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북한문학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사랑의 담론 역시 ‘인간이 세계의 주인’으로 ‘자기운명’을 개척한다는 ‘주체사상’과 ‘작품이 지닌 사상의 알맹’이라는 ‘종자론’에 바탕을 두고 전개되고 있고 있다.²⁷⁾

북한의 문학평론가인 문성철은 종자론의 맥락에서 사랑이 어떻게 형상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한 처녀 혹은 한 남자를 사랑한다고 말하기전에 그의 아름다운 미모나 품성도 보아야 하겠지만보다는 먼저 생활에 대한 견해, 량심에 대한 문제에서 서로의 일치가 이룩되어야 하며 그러한 사랑만이 공고한 사랑으로 될수 있고 영원한 사랑으로 꽃피어나는 것이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청춘들의 사랑은 인간적으로 결합되기전에 사상적으로 결합되고 사업과 생활을 통하여 공고화된 동지적 관계에서 출발한 사랑이다. 그 사랑이 단순한 동지적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혁명적 수령관을 생명으로 하는 사랑이기에 우리 시대의 혁명적 사랑으로 된다. 여기에 우리 시대 청춘들의 사랑관을 규제하는 근본 핵이 있다.”²⁸⁾(밑줄 필자)

위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북한에서 남녀간의 사랑은 개인적인 호감이나 인간적 관계보다는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동지적 관계’에서 출발하여 ‘위대한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혁명적 수령관을 생명’으로 하는 ‘혁명적 사랑’이야말로 가장 참다운 남녀간의 사랑관을 규제하는 근본 핵이 되고 있다. 이같이 북한 문예작품에서 사랑의 담론 역시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과 ‘결사옹위정신’을 체득하는 교양학습의 수단으로 전용되고 있다. 이시기의 북한 소설에 반영된 사랑관은 ‘수령결사 옹호

27) 이미 앞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김정일이 교시했다는 ‘종자론’은 작품이 지닌 사상적 알맹이인 종자가 튼튼해야 좋은 작품이 생산될 수 있다는 것으로 주체사상을 문예작품에 적용시키기 위한 실천적 방법론으로 설명되고 있다.

28) 문성철, “사랑과 인간문제 -장편소설 《청춘송가》를 읽고-”(《청년문학》 1988.7호, 평양: 문예출판사, 1988), 40면.

정신'으로서의 혁명적 사랑, '총대정신'을 투영한 사랑이었다.

2) 사회운동의 전파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훈통치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데 성공하였지만 김일성의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로서는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를 창출하여 지도력을 발휘해야 했으나, 김일성의 유훈이라는 제한적 범위 안에서 발휘하는 김정일의 수동적 지도력은 지도력 부재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정치적 입지는 그 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일성으로부터 정통성을 이어 받은 김정일로서는 김일성의 통치이념이자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 사상인 주체사상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창출하기란 불가능 했을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는 대신 '고난의 행군', '천리마대진군'과 같은 사회운동을 통하여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 공백을 대체(代替)했던 것이다. 김정일은 국제적인 고립과 최악의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붉은기 사상'을 반영한 '혁명적 군인정신'과 '고난의 행군' 그리고 '제2천리마운동'의 영웅들을 형상화하는 문예작품을 통하여 주민들의 결속과 함께 노력동원을 고무시켜 나갔다.²⁹⁾

3) 대남투쟁 의식 전파

북한이 문예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또 하나의 목표는 '남조선 혁명'과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김정일은 문예정책을 통해 남한 사회의 부패상,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적' 행태, 특히 주한미군의 병폐

29) 북한정권 수립 초기 문예인들은 당의 노선에 따라 토지개혁 등 '민주개혁'을 찬양하였고, 1950년대 후반에는 천리마 운동을 전개하면서 '천리마운동 영웅'을 부각시켰다. 1980년대에는 경제 침체가 계속되면서, '숨은 영웅'을 발굴하여 선전하는 '숨은 영웅 형상문학'을 집중적으로 창작하였다.

등을 집중적으로 전파시키고자 했다.

김정일은 “오늘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속에서 공화국복반부를 동경하고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민족자주의 이념을 빛나게 구현하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좋은 감정을 품고 돌아오고 있다.”³⁰⁾고 강조하며,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통일열망”³¹⁾을 안겨주고, ‘임수경’과 ‘비전향장기수’의 극적인 투쟁모습³²⁾을 형상한 문예작품의 창작과 전파를 지시했다. 다시 말해 남한 실정에 맞는 문예투쟁을 통하여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英勇하게 싸우고 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의 혁명투쟁”³³⁾을 “생동한 예술적 화폭을 통하여 예리하고 신랄하게 폭로 단죄함으로써 근로자들을 반제혁명사상, 특히 혁명적 경각성을 가지고 놈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우도록 교양하는 데 적극 이바지”³⁴⁾해야 할 것을 지시했다.

결국 김정일은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 지배 사회’로 규정한 가운데, ‘비전향장기수투쟁’, ‘밀입북투쟁’,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 ‘조국통일투쟁’에 대한 남한현실을 반영한 문예창작 지침을 통하여 북한 인민들의 경제난과 식량난 등 내적인 불만 요인들을 한·미 당국으로 돌려 ‘사회주의체제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남조선혁명’의 당위성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또한 남한 내 문예인들의 친북투쟁을 독려하고 한미공조체제와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등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자 했던 것이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남한의 ‘민중문학’에 대한 구체적인 작품과 사상 주제들의 특징을 예로 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김정일의 문예투쟁지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다양한 작품을 창작하였다.

30) 김정일, “주체문학론”, 365면.

31) 위의 책, 366면.

32) 위의 책, 558면.

33) 『김일성저작선집』, 5권, 462면;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북한의 문예이론: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143면.

34) 위의 책, 106면.

이와 같이 김정일은 ‘남조선혁명’을 통한 ‘조국통일’이라는 미명하에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 등 체제 내적 위기요인들의 주된 원인을 미국과 남한으로 책임 전가시키는 문예투쟁 지침을 통하여 북한 주민들의 ‘반미, 반남한’ 적개심을 고조시켰을 뿐만 아니라, 반미여론과 남남 갈등을 유발시켜 한미공조체제를 비롯한 안보환경을 교란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2. 문예정책의 변화와 전망

북한의 문예정책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문예에서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예술성이나 심미요소, 철학적 과제를 중요시하기보다는 정치적 선전·선동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개인의 창작보다는 집체창작에 치중하면서 그 시대의 정치적 환경을 반영하고, 김일성과 그 일가의 예찬과 우상화, 사상투쟁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북한 문예가 가지는 정치적 속성의 지속성이면서도, 시대적 환경에 따라 주제와 내용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변화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 문예정책은 기본적으로 주체문예관에 기초하고 김정일 시대 역시 이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성이자, 시기별 정치적 변화에 따른 그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가.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1) 지속성

북한 문예정책은 김일성시대를 계승한 김정일 체제하에서도 주체문예라는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문예정책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김정일은 1960년대 중반부터 문예의 전반을 지속적으로 장악하

여 왔다. 때문에 김정일에 의해 일관되게 전개되어 왔던 북한 문예정책 역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김일성 시대를 마감하고 공식적으로 김정일이 권력을 계승한 현 시점에서까지 북한 문예가 주체문예를 기본으로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둘째, 1967년 이후 주체사상에 기초한 주체문예관에 입각하여 문예정책과 창작방법 그리고 창작 형식 등 문예이론이 전개되어 왔다. 북한사회는 주체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받들 뿐만 아니라, 문예작품 역시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창작되기 때문에 주체문예관을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지속하는 한 주체문예의 지속성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

셋째, 북한의 문예는 그 시대의 정치적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교양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당대의 시대상에 대한 문제점을 일관되게 주체사상으로 극복하고자 했다. 실제로 북한은 1980년대 말 이후 동구사회주의권 붕괴와 소련의 해체 등 급속하게 확산된 개혁·개방과 민주화·자유화로 상징되는 세계사적 조류에 따른 체제내부의 동요를 우려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 ‘우리식 사회주의’, ‘붉은기 사상’, ‘총대정신’, ‘총폭탄 정신’, ‘4대제일주의’³⁵⁾ 등과 같은 일련의 사상운동을 강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사상과 체제결속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문예작품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주체문예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35) 북한은 2002년 1월 1일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하의 당보(로동신문), 군보(조선인민군), 청년보(청년전위)의 신년 공동사설을 통하여 “4대 제일주의” 즉, ‘우리수령 제일주의’(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 ‘우리사상 제일주의’(주체사상 무장), ‘우리군대 제일주의’(선군혁명과 총대중시노선 견지), ‘우리제도 제일주의’(우리식 사회주의 고수)를 대내정책노선으로 제시한바 있다.

2) 변화 양상

북한의 문예정책은 시기별로 문예작품에 반영된 주제와 내용상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상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제재로 다루고 있는 문예작품이야말로 주민들의 욕구불만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체 수단이 될 있다는 점에 있다.

1990년대 북한문예의 창작과 보급에 있어 정책과 이론상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가운데서도 문예작품을 통해서 미묘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당시 김일성의 사망과 북미관계의 악화 등 급격한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는 문예작품 창작에서 다양한 주제를 반영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되었다. 이에 따른 북한 문예정책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예작품 창작에 있어 서정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북한은 서정을 ‘감성과 사상적인 지향을 결합시킨 형상적 사유의 산물’로³⁶⁾ 바라볼 뿐만 아니라, ‘본성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섬세한 생활정서’로³⁷⁾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서정성은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여성의 생활과 정서를 다룬 노래, 어린이에 대한 노래, 젊은이들의 사랑에 대한 노래 등 북한의 생활가요와 주민들의 생활과 현실을 제재로 한 영화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정성은 시문학의 기본특성이며 생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소설은 재미있고 실감 있는 이야기로, 극작품은 극적 견인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끌지만 ‘시는 풍부한 서정미로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 있기 때문이다.³⁸⁾ 북한문학에서 서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김정일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정성과 관련해 김정일은 다음과

36) 김정일, “주체문학론”, 525면.

37) 위의 책, 527면.

38) 위의 책, 524-525면.

같이 밝힌 바 있다.

“생활에서 시도 모르고 소설도 읽지 않고 지내는 목적같은 사람은 심장이 뜨거울 수 없다. 목적과 같이 딱딱하고 심장이 뜨겁지 못한 사람은 사업과 생활에서 균중성이 있을 수 없으며 인간성을 발휘할수 없다. 우리 시대 인간의 높은 혁명성과 뜨거운 인간성을 심오하게 그려내어 사람의 문화정서교양에 도움을 주자면 작품에서 딱딱한 정치적인 슬어나 구호 같은 것을 라털하지 말고 현실에 있는 산 사람의 사상과 감정, 생활을 구체적인 화폭으로 생동하게 그려야 한다.”³⁹⁾

이와 같이 북한문예의 서정성 강화는 대내외적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착취계급의 반동적인 사상조류’인 ‘부르주아 문예사조의 침습’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며, 한편으로는 정치사상교양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정서교양 수단으로서의 문예의 기능을 재인식하여 취해진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문예작품의 모든 장르에서 주제와 소재가 다양화되었다. 1980년대를 통하여 북한 문예는 모든 장르에서 주제와 소재가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실제적으로 1980-90년대에 걸쳐서 북한 문예는 사회주의 체제와 수령 형상화 작품 이외에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갈등 문제와 사회적 미담을 반영한 작품들을 다양하게 창작하였다. 다시 말해 남녀간의 사랑문제, 신·구세대간의 의식 문제, 신세대의 직업선택과 직업의식 문제, 도시와 농촌간 생활격차 문제, 육체노동에 대한 직업적 차별의식에 관한 문제, 남녀간의 결혼관 문제, 여성의 자아 정체성 문제, 북미간의 갈등문제, 이산가족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다루어 졌다.⁴⁰⁾

셋째, 북한문예 작가들의 세대가 교체가 이루어졌다.⁴¹⁾ 북한 문학계의

39) 위의 책, 329면.

40) 상세한 내용은 김윤영, “북한소설의 갈등양상 연구”를 참조할 것.

41) 북한문학의 흐름은 창작역량으로서 작가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작가를 기준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이 4세대로 구분하고 있다. 1세대는 8.15 이전부터 작가활동을 했던 이기영, 한설야, 박세영, 이찬, 이북명 등과 1930년대 중반에 활동을 시작한 이용악, 백석, 안용만 등이 있

세대교체 현상은 1980년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1948년 정권 수립 이후 문화계를 이끌던 1세대 작가들이 고령으로 사망하거나 창작활동을 중지하면서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중견작가들과 신인들이 전면에서 나서게 되었다. 이러한 세대교체는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⁴²⁾

작가들의 세대교체는 199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⁴³⁾ 작가들의 세대교체의 직접적인 계기는 문예창작에서의 서정성 강화, 제재의 다양화, 대중성 강화를 통한 인민들의 높아가는 문화 정서생활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구세대들에 의해 창작된 작품들을 외면하고 있는 다수의 수요자들인 젊은 층을 의식한 정책적 고려의 결과이기도 했다.

작가들의 세대교체는 김정일 후계체제의 공고화와 김정일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세대교체의 계기라고 알려진 김정일의 담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가 발표된 1992년 5월 23일(2차 문예혁명) 시기와 김정일에 대한 권력이양을 공식화한 김정일 국

다. 2세대는 해방이후 작가활동을 시작한 이들로 정문향, 김상오, 김순석, 천세봉, 황건, 전재경 등과 전후(戰後)에 작가활동을 시작한 김철, 오영재, 석윤기, 김병훈 등이 있다. 3세대는 1967년 유일사상 확립 전후(前後)에 나온 이들로 동기천, 김석주, 한용빈, 김삼복 등이 있다. 4세대로는 1980년을 전후하여 작품을 쓰기 시작한 이들로 윤병규, 황성하, 백남룡, 정현철 등을 들고 있다. 1, 2, 3세대는 신·구 대비를 통한 문학의 인식, 교양적 기능이 중요한 영역으로 받아들여진 반면에 4세대는 이와는 거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전쟁을 경험했던 전 세대들과는 다른 현실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최근의 <벗>, <청춘송가>, <삶의 향기>, <직장장의 하루>, <모닥불>, <사랑>, <행복의 방아>와 같은 작품 등 다양한 제재들이 등장한 것은 현실 자체와 관련되지만 작가들의 세대교체와도 무관하지 않다.

42) 『2002년 북한연감』, 서울: 연합뉴스, 2001.11, 753면.

43) 대표적인 실례로는 1998년 11월 북한 문예총 위원장이 백인준에서 장철로 교체된 것, 1990년대 말 새세대 시나리오작가 원영실이 ‘현실주체의 만점짜리 영화를 만들어 낸 여성작가’로 떠오른 것, 그리고 1994년 9월에 열린 제4차 평양영화제에서 무명의 여배우 김경애가 최우수 여자 배우상을 수상한 것 등이 있다. 또한 새세대 스타로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왕재산경음악단과 보천보전자악단의 소속 연주자와 성악가들이 최고의 음악교육을 받은 20-30대의 연령층인 것도 세대교체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임순희, 『북한의 대중문화: 실패와 변화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0, 99-100면).

방위원장 추대 시기⁴⁴⁾가 거의 같은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넷째, 문예작품에 대한 독자층을 고려하여 대중성에 영합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주체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문예작품들에 나타난 전반적인 성향은 정치성·사상성이 약화되고 대중성을 지향하는 작품들이 창작되었던 시기였다. 북한문예의 변화양상은 <회과람>, <도시처녀 시집와요> 등 대중가요를 비롯한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의 오락성 강화와 소설에서의 남녀 애정관계의 감각적이고 과감한 성애장면 묘사에 잘 드러나 있다.

문예작품의 대중성 강화와 대중에의 영합 추구 경향이 정치사상성과 혁명성 그리고 수령에 대한 찬양을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북한문예작품의 핵심은 정치사상성과 혁명성 그리고 수령에 대한 찬양을 강조하는데 있기 때문에 독자층인 주민들의 거부감을 완화시키면서 정치사상성과 혁명성 그리고 수령에 대한 찬양을 전달하고 주지시키는 방법을 간접적으로 전환한 전술적 조치일 뿐이다. 이러한 의도는 김정일의 다음과 같은 교시에 잘 나타나 있다.

“결혼식이나 환갑잔치때에 부를수 있는 축하의 노래 같은 것도 창작하고 녀성들의 생활에 대한 노래, 청년들의 사랑에 대한 노래, 자장가를 비롯한 여러가지 생활주제의 노래도 창작하여야 합니다. 생활세태를 반영한 노래를 창작하는데서 순수한 생활이나 사랑만을 묘사하지 않도록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생활이란 사람들이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생활이며 찬다운 사랑도 혁명의 한길을 함께 걷어가는 청년들의 건전한 사랑인것만큼 그 어떤 순수한 인간생활이나 청년들의 사랑을 묘사하는것은 주체의 창작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전에 가사 《축배를 들자》를 보면서 후렴에 《우리 세월 좋아 우리 세월 좋아》라고 되어있던것을 《우리 세월 좋아 로동당이 좋아》로 고쳐주었습니다. 생활적인 노래를 창작하는데서 생활자체를 잘 묘사하면서도 사상성

44) 김정일은 당중앙위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제의로 1991년 12월 24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되었고, 1992년 4월 20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받았다. 그리고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 셋째 날인 4월 9일 국방위원회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김정일은 모든 무력 통수권을 승계하기에 이르렀다.

이 있게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창작가들은 이러한 창작적요구를 잘 알고 좋은 생활적인 노래를 창작하여야 합니다.”(강조체 필자)⁴⁵⁾

“최근에 근로자들의 문화정서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조기천의 시 《휘파람》을 가지고 노래를 지어 보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노래 《휘파람》이 창작되어 널리 보급되자 음악예술부문 창작가들이 그런 노래를 창작하는것이 당의 기본요구인것처럼 생각하는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여서는 안됩니다. 근로자들의 높아가는 문화정서생활의 요구에 맞게 《휘파람》 같은 노래도 창작하여야 하지만 그런 노래를 기본으로 창작하여서는 안되며 그런 노래만 부르게 하여도 안됩니다.”⁴⁶⁾

위의 인용에서와 같이 북한의 문예계에서는 문예작품의 대중성 선호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북한문예계의 대중성 영합이라는 변화양상은 인민들을 정치사상성과 혁명성, 수령에 대한 찬양을 교양하고 의식화하기 하기 위한 외피적인 형식에 불과하다.

다섯째, 문예잡지들의 편집방향이 변화되었다. 북한 잡지들은 아직도 정치사상적인 내용이 우선시 되고 있지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기사를 곳곳에 싣고 있는 등 편집방향이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문학 전문잡지인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조선문학》은 단순히 문학작품이나 논문을 게재하던 쪽에서 탈피하여 쉽게 읽을 수 있는 상식코너 등을 두어 독자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있다. 1998년 3월호에 처음 게재된 상식코너 “일곱가지 색의 생리적역할”에서는 붉은색, 감색, 노란색, 풀색, 푸른색, 남색, 보라색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⁴⁷⁾

북한의 공식적인 문학잡지의 변화양상은 정치사상성이 우선시하던 기존의 편집 내용이 독자들인 인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데 따른 일종의 자구

45) 김정일, “음악 창작과 보급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446면.

46) 김정일,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부르는 혁명적인 음악작품을 창작하자: 음악예술부문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1990년 2월 25일”(『김정일선집(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65-66면.

47) “일곱가지 색의 생리적역할”(《조선문학》 1998.3호, 1998), 15면.

책이지만 크게 보면 ‘모든 것을 다바꿀 것’을 주창한 김정일의 ‘신사고’와⁴⁸⁾ 관계된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⁴⁹⁾

이와 같이 북한문예가 당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달리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던 정치사상성과 혁명성 그리고 수령을 전면에 내세웠던 과거의 창작 경향에서 진일보하여 문예작품의 수용자인 인민들의 기호와 욕구를 의식하여 외형적으로나마 서정성의 강조와 제재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흥미와 오락성을 강화하여 주된 독자층인 새 세대 층의 기호에 맞는 작품을 창작하고 편집하기 위해서 작가들을 세대 교체함으로써, 인민들의 문예에 대한 관심도를 고조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대중들에게 접근 가능한 작품 창작을 지향하여 수용자인 인민들은 작품 선택과 향유의 범위를 더 넓힐 수 있게 되었고, 문예작품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쉬워지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 문예는 수용자인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보다 보편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과정은 문예작품의 대중화로 이어져 북한 주민들의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문예정책의 향후 전망

북한 문예정책의 지속성과 변화양상에서 살펴보았듯이 8.15해방 이후

48) ‘신사고’란 2001년 초 ‘김정일 동지의 말씀’ 형식으로 발표된 일련의 북한 언론 보도를 통해 ‘새로운 세기에 걸 맞는 새로운 사고와 자세’를 촉구한데서 비롯되었다. ‘신사고’라는 용어는 한국 언론들이 보도한 용어이다. 북한은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개혁·개방이란 용어 대신에 ‘전환’, ‘일신’, ‘혁신’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신사고란 용어는 중국 덩샤오핑(鄧小平)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책, 베트남의 도이모이(Doi Moi: 쇄신) 정책, 구소련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개혁)와 글라스노스트(Glasnost: 개방)의 신사고 등과 유사한 북한식 변화의 상징어로 볼 수 있다(홍순직, “김정일 총비서의 신사고와 북한의 개혁개방”, 『통일경제』, 2001년 3월, 55-56면).

49) 『2002년 북한연감』, 754면.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념성과 선전선동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기별로 시대환경에 따라서 정도(程度)의 강약을 조절하면서 문예정책의 내용적인 측면을 변화시켜 왔다.⁵⁰⁾ 향후 김정일 문예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전망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은 과거 체제존립의 위기감이 조성될 때마다 문예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사상통제를 강화하여 왔다는 점에서, 현재 김정일 체제가 처한 대외적인 위기국면을 타파하고자 정치선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최근 미사일 발사(2006.7.5)와 핵 실험(2006.10.9)문제와 관련하여 대미관계에서 ‘탁월한 군사적 전략가’이자 ‘세계적인 지도자’로 찬양하고, 김정일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을 고취시키는 문예정책 즉, ‘수령결사옹위, 총폭탄, 자폭정신을 핵으로 하는 혁명적 군인정신’을 강조하는 작품을 창작하여 지속적으로 보급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한미군을 ‘남한의 ‘실질적인 지배자’, ‘점령군’ 등으로 규정하여 적대시 하면서, ‘반미자주화투쟁(반제국주의투쟁)’을 선전 선동하는 작품을 창작·보급할 것으로 예상된다.⁵¹⁾

이 과정에서 작가들의 사상통제를 강화할 것이나, 문예정책의 내용이 나 형식은 시대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양식으로 변화할 것이다. 1992년부터 창작되기 시작한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⁵²⁾ 중 <로동계급편>⁵³⁾에서 보여준 것은 이러한 양식의 전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0) 김정일의 문예정책은 이념의 지속성과 함께 개방이라는 변화를 동시에 추구할 것이다.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문예정책 추진에 있어서 그 형식과 내용에는 변화를 보일 것이다.

51) 이러한 경향은 최근 북미간 핵과 미사일문제와 관련하여 대미적개심을 노골적으로 고취시키는 문예작품 창작과 함께 반미투쟁 혁명가요가 지속적으로 창작 보급될 것이다.

52) 1992년부터 창작되기 시작한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2003년 6월까지 총 62부가 제작되었다. 영화의 소재(일북자, 친북자, 재일교포, 남한 공작원 등)와 작품 배경(미국, 일본 그리고 남한 등의 자본주의 국가 등)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이전의 문예작품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화의 주요 메시지는 노동계급 출신들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다양한 성분의 인물들이 사회 각처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소재 역시 결혼문제, 가족문제 등 일상적인 삶의 문제들을 비중 있게 다루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북한의 문예작품의 소재, 배경, 등장인물 등에서 다양성이 나타나게 된 요인은 1980년대 ‘숨은 영웅 형상문학’에 비롯되었고, 이러한 영향은 1990년대에는 소재의 다양화로 나타났다.

둘째, 김정일의 문예관이 문예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이미 김정일은 김일성의 생존시기부터 문예 분야를 관장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당 총비서 취임을 계기로 문예정책을 주도하는 다양한 조치가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민족과 운명> 중 <카프편>⁵⁴⁾의 개봉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이광수나 카프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복권시킨 것은 김정일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⁵⁵⁾ 이러한 조치는 문예사에서 김정일 시대를 공포한 의미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남북 문예사의 경쟁차원이나 통일전선전술 구사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김정일은 향후 남한과의 문화교류 사업에 대비한 연구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⁵⁶⁾

셋째, 문예정책을 통해 김정일 체제의 공고화와 정당화를 위한 김정일 우상화 작업에 주력할 것이다. 현재 김정일 체제가 처한 대내외적인 위기상황 하에서 수령형상문예나 선군혁명문예정책이 지속화될 것이다.

과거 김일성 시대 <불멸의 역사>를 통한 수령형상문학이나 우상화 정책을 지속화하여 왔듯이, 김정일 시대 역시 <불멸의 향도>의 창작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된다. 김정일이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직후

53) <로동계급편>은 <민족과 운명> 중 25-33부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북한을 배경으로 ‘씻물 철학’을 종자로 삼고, 천리마운동을 소재로 사회주의적 생산 독려를 주제로 삼고 있다. 이 작품이 제작된 1995년은 김일성 사후로서 김정일 체제의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했던 시점이다. 때문에 주민들의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가중되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산활동을 독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환경과 1995년 이후 정치적으로 강조된 ‘고난의 행군정신’이나 ‘붉은 기’의 대두 등은 <로동계급편>의 제작방향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54) 1967년 종파투쟁에서 몰락한 카프의 문학적 전통을 대신한 것은 혁명성을 강조하는 수령형상문학과 항일혁명문학이었다.

55) 그 대표적인 예가 이광수에 대한 재평가이다. 이광수는 김일성이 문학예술을 지도할 무렵인 1950년대 중반부터 북한문학사에서 사라졌으며, 이후 그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정일은 이광수가 친일행위를 한 1920년대 이전까지의 작품에 대해서는 출판을 허락하였다. 이러한 계기는 과거에 정치적으로 문제되었던 작가와 작품에 대한 대대적인 복권의 시발점이 되었다.

56) 김정일,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조선문학예술총동맹산하 창작가들의 사상투쟁회의에서 한 결론, 1972년 9월 6일”(『김정일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451면.

인 1991년 말부터 ‘지도자 형상화’ 문학작품이 ‘4.15문학창작단’에 의해 본격적으로 창작하기 시작하였다.⁵⁷⁾ ‘4.15문학창작단’에서는 김정일에 대한 형상창조 장편소설 시리즈인 총서 <불멸의 향도>를 지속적으로 창작 발표하고 있다. <불멸의 향도>의 첫 작품은 1988년 문예출판사에서 발행한 <아침해>(현승걸)를 들 수 있다. 이 소설은 197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6개년계획에서 철광석 생산 등 사회주의 건설에서 김정일의 활약상을 형상하고 있다. 이외에 <예지>(리종렬, 1990), <불구름>(박현, 1991), <푸른 하늘>(권정웅, 1992), <동해천리>(백남룡, 1996), <평양은 선언한다>(이종렬, 1997), <역사의 대하>(정기종, 1997), <전환의 년대>(이신현, 1998), <평양의 봉화>(안동춘, 1999), <전환>(권정웅, 2000), <서해전설>(박태수, 2000) 등이 창작 보급되었다.⁵⁸⁾

넷째, 주민들의 다양화되고 있는 문예 욕구를 충족시키고자하는 문예정책의 지향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것이다. 북한은 경제난 해결을 위해서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제한적인 교류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영향은 북한주민들이 자본주의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계기로 작용하여 문예적 욕구를 다양화시켰다. 그 결과 혁명성과 사상성을 강조하는 수령형상문학이나 항일혁명문학에 대한 염증과 거부감을 고취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주민들의 문예적 욕구를 만족시키면서도 문예정책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 예술성과 사상성의 균형을 맞추려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문예정책의 형식과 내용은 점진적으로나마 개방될 것이다.

김정일은 1990년 2월 담화를 통하여 ‘서정성이 풍부하고 대중적인 다

57) 북한은 1991년 12월말부터 2년 여 동안 2백 90편의 서정시와 70여 편의 가사를 창작하였으며, 1994년 1월경에 김정일 찬양가요 4백 여 편을 수록한 가요집을 새로이 출간하고, 김정일이 ‘공화국 원수’로 추대된 1992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의 기간에는 무려 1천6백 여 편의 찬양시를 창작하여 발표하였다(통일부 전문가 간담회 결과보고서, “김정일시대 북한 시문학의 경향”, 1999.1.2.6, 1-2면).

58) 김윤영, “북한소설의 갈등양상 연구”, 99면.

양한 주제의 생활가요 창작·보급의 의의와 중요성을 퇴폐가요의 침습방지⁵⁹⁾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⁶⁰⁾ 이는 북한이 1980년대 이래로 심화된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정상회담과 이에 따른 이산가족 방문을 비롯한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교류와 개방을 허용함에 따라서 자본주의 사조와 문물의 침투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았음을 시인한 것이다. 이러한 정치 환경의 변화는 문예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주제들이 문예작품에 반영되어 나타날 수 있다. 1990년대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이산가족의 아픔을 주제로 다루었던 것은 이러한 변화를 대변한 단적인 예라할 수 있다.⁶¹⁾ 최근 북한가요는 주민들의 의식성향을 고려하여 대중성에 영합하는 대중가요를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 간에 창작하여 전파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1990년대 문예작품에서 경험한 바 있다.

다섯째, 북한은 인터넷 공간을 통하여 합법, 반합법, 비합법적인 대남 문예투쟁을 정교하게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대남혁명 전위기구인 반제민전은 인터넷 사이트 <구국전선>(http://www.ndfsk.dyn.to)과 2003년 4월 1일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개설하여 직접 운영한다는 <우리민족끼리>(http://www.uriminzokkiri.com) 그리고 남한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애국적 언론단체라 주장하며 '코리아네트워크'가 운영하는 <백두넷>(http://baekdoonet.has.it) 등 해·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문예투쟁을 수행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대남 선전사업과 사상교양 사업, 총선투쟁,

59) 북한은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식량난을 해결하고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 특구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예상되는 주민들의 자본주의 사상 침습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비롯한 김정일 찬양가요나 혁명가요를 창작하여 보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60) 김정일, "음악 창작과 보급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446면.

61) 특히 통일문제와 관련하여서는 6.15남북공동선언을 김일성의 '통일유훈'을 받들어 성사시킨 김정일의 업적으로 미화 찬양하는 문예작품뿐만 아니라, '고려연방제통일'을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으로 찬양 선전하는 작품도 창작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운영, "북한소설의 갈등양상 연구", 97-103면).

반제투쟁, 일간선전투쟁, 혁명가요 보급, 김일성부자 찬양, 국가보안법철폐와 공안기구 해체투쟁 등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사이버 선전투쟁 가동과 더불어 재야단체, 노동단체, 농민단체, 정당 등 관련 홈페이지에 대남혁명투쟁이나 혁명가요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사이버 통신을 통한 선전선동 단계에서 점차 국가 공용망을 통한 혁명문예작품을 전파하는 사이버투쟁을 전개하는 방법도 시도되고 있다.

끝으로 북한의 문예정책이 국내외적인 환경을 반영한다고 할지라도 당분간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문예정책은 체제존립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문예활동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개방태도는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책이지 체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 당국이 문예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사회주의 건설과 노동동기 부여, 지배자(수령)에 대한 찬양과 충성심 그리고 ‘남조선혁명’에 대한 정당성 확보에 있다. 따라서 김정일 체제가 존속하는 한 문예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힘든 태생적 한계를 보여줄 것이다.

VI. 결 론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 문예정책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사회주의 문예정책의 본질과 김정일 문예정책의 체계화 과정을 고찰한데 이어서, 김정일 문예정책의 실제와 대응, 김정일 문예정책의 정치적 함의와 전망이라는 두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전자에서는 김정일의 대남문예투쟁 지침 및 평가와 그에 따른 보안경찰의 대책을, 후자에서는 권력 세습체제의 정당화와 지배담론의 전과 그리고 문예정책의 지속과 전망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김정일 문예정책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김정일의 문예정책을 지탱해 온 사상적인 축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정권수립 초기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문예정책의 기초로 삼았으나, 반종파투쟁(1967)을 계기로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면서 주체사상이 문예정책의 기초가 되었다.

둘째, 김정일은 문예정책이 가지는 정치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김정일은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문예계의 반종파투쟁을 주도하였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령형상창조’를 제시했다. 또한 항일혁명문학을 체계화하고 높이 평가하여 김일성과 항일혁명 세대로부터 능력을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 김정일은 북한 문예가 가지는 문제점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문예적 요구를 수용하고 있었다. 주민들이 혁명적인 사상성만을 강조하는 문예작품에 대해 염증을 느끼자, 남녀간의 사랑 문제, 신·구세대간의 의식 문제, 신세대의 직업선택과 직업의식 문제, 도시와 농촌간 생활격차 문제, 육체노동에 대한 직업적 차별의식 문제, 남녀간의 결혼관 문제, 여성의 자아 정체성 문제, 북미간의 갈등 문제, 이산가족 문제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사회적 미담을 반영한 작품들을 창작하여 그들의 욕구불만을 해소시키고자 하였다. 실제로 사상성은 떨어지나 비교적 경쾌한 가요(휘파람)나 과감한 성애장면을 묘사한 통속적인 역사소설 『황진이』⁶²⁾의 허용과 보천보경음악단 등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숨은 영웅’ 형상창조나 작가들의 세대교체, 문예잡지들의 편집방향 변화, 과거에 비판받았던 실학이나 카프 그리고 이광수, 최남선의 등에 대한 복권도 문예적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넷째, 김정일은 정치사회적 변화양상에 대해 문예정책을 탄력적으로 적절히 활용하였다. 유일지배체제의 정당화가 필요했던 시기에는 수령형상문학과 항일혁명문학을 강조하였고, 노력 동원이 절실히 필요했던 시기에는 ‘숨은 영웅’ 형상의 문예창작을 독려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자 북한은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르다는 민족우월주의를 반영하는 문예창작을 강조했다. 카프를 비판하였다가 다시 복권하는 작업도 정치사회적 변화양상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훈통치에 따라 ‘혁명을 대를 이어 계승한다’는 명분하에 체제보위와 그에 대한 충성심을 요구하고자 전통적인 영웅을 강조하는 문예작품을 창작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는 김정일이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서들을 연이어 발표하여 ‘주체사상’을 재강조하는 문예정책이 추진되었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우리식 사회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붉은기 사상, 선군혁명, 강성대국론 등이 문예작품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주민들의 사상 통제를 강화하였다.

다섯째, 김정일은 문예정책을 통해 권력승계의 정당화와 지배담론을 전파하였다. 문예작품에 김정일의 정체성 확립과 지배이데올로기의 정당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김정일 체제의 정통성을 보장 받고자 했다. 이 시기 문예작품에는 김정일이 ‘인민’과 함께하는 지도자, ‘민족의 위대한 태양’,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운명’ 등으로 형상화되었다.

여섯째, 김정일은 문예정책을 통해 ‘남조선 인민들을 혁명적이고 계급적으

62) 2002년 11월 북한 문단의 증견작가이자 벽초 홍명희(1888-1968)의 손자이기도 한 홍석중(62)이 쓴 장편 역사소설 『황진이』(문학예술출판사)가 북한 당국의 심의를 거쳐 출판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 작품은 북한소설에서 보기 드물게 상당한 수준의 농밀한 성애장면을 묘사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즉, “이래 봐두 내가 첫새벽 양기가 뻗칠 땐 열 닷근짜리 저울추를 불두덩이에 달아 놓고두 그떡없는 어른이야!” “늬이의 거친 손이 진이의 부드러운 살결을 쓰다듬으며 점점 아래로 내려왔다. 진이의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신음 소리가 저절로 새어 나왔다”는 등의 성애장면을 과감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소설의 당 정책의 해설점으로 치부되는 작품들과는 사뭇 다르다. 또한 단어 선택과 표현에 있어서도 “오입쟁이 흰 갓 쓰구 똥 누기 레상사지 뭘 그래”와 같은 비속어를 거침없이 자유롭게 구사하고 있다(김윤영, “북한가요의 인터넷상 선전투쟁 분석”, 131면).

로 교양'하고 '남조선 혁명가들의 투쟁'을 반영하는 문예창작을 지시하여 대남문예투쟁에⁶³⁾ 적극 활용하였다. 김정일은 문예이론이나 담화 등을 통하여 대남문예투쟁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지침은 '남조선혁명'을 선전 선동하는 문예창작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 국내외의 주체사상 추종세력들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반미, 반정부투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김정일 시대의 문예정책은 주체문예관과 집단적 창작 원칙 하에 작가들의 개성이나 창의력을 규제하고, 김일성부자 이상화와 김정일 세습체제의 정당화 그리고 당과 정권의 정책 선전, 사회주의 혁명건설, 대남혁명 선전선동 등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작가들의 사상은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 간에 문예작품에 녹아들 것이고, 문예정책의 변화 폭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문예작품의 향유층인 '인민대중'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문예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김정일의 문예정책이 자율화나 다양화와 같은 획기적인 방향전환 없이 지속되는 한 사회구조의 경직화를 초래하여 사회발전과 남북관계의 화해·협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1. 북한 문헌

1) 단행본

고영환, 『우리민족제일주의론』, 평양출판사, 1989.

김원택, 『남조선민중문학의 발전과 특징』, 사회과학출판사, 1992.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1-35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1987.

김정일, 『김정일 선집』 1권-12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2000.

김하명, 『문학예술작품의 종자에 관한 이론』, 사회과학출판사, 1977.

63) 김일성은 “한편의 시가 천만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키며 총칼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우리의 노래가 적의 심장을 꿰뚫을수 있다는 것”(『문학예술사전』, 928면)을 명심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 리종렬, 『평양은 선언한다』,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7.
- 『문학예술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2.
- 『백과전서(3)』,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3.
- 백보현, 송상원, 『영생』,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7.
-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문화어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안동춘, 『평양의 봉화』,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 윤기덕, 『수령형상문학』, 문예출판사, 1991.
- 정기중, 『력사의 대하』,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7.
- 『정치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정치용어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0.
- 『조선말대사전』 (1) (2),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조선백과사전』 14권, 백과사전출판사, 2000.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략력』 제2판,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57년, 조선중앙통신사, 1957.
- _____, 『조선중앙년감』 1963년, 조선중앙통신사, 1963.
- _____, 『조선중앙년감』 주체92(2003), 조선중앙통신사, 2003.
- 홍석중, 『황진이』, 문학예술출판사, 2002.
- 허중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 현중호·홍국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학예술업적 3: 우리식 문학예술사업체계의 확립과 작가, 예술인 대오육성』, 문예출판사, 1990.

2) 김정일 연설

- 김정일, “군인교양에 이바지할 혁명적인 영화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조선인민군 2.8 영화촬영소를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64년 9월 15일.
- _____,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월 1일.
- _____,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울데 대하

- 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6월 20일.
- _____, “방송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1967년 7월 30일.
- _____,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조선문학예술총동맹산하 창작가들의 사상투쟁회의에서 한 결론), 1972년 9월 6일.
- _____, “415문학창작단을 내올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6월 20일.
- _____,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하자!”(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1966년 2월 7일.
- _____, “소년단사업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자”(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 1966년 6월 6일.
- _____, “연극예술에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8년 4월 20일.
- _____, “영화예술론”, 1973년 4월 11일.
- _____, “영화창작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영화문학작가들과 연출가들 앞에서 한 연설), 1971년 2월 12일.
- _____, “음악 창작과 보급 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음악예술부문창작가, 예술인들과 한 담화), 1990년 12월 8일.
- _____,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담화), 1991년 5월 5일.
- _____,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부르는 혁명적인 음악작품을 창작하자”(음악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0년 2월 25일.
- _____,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당의사상사업부분 및 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7월 3일.
- _____, “주체문학론”, 1992년 1월 20일.
- _____, “주체적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전국문화예술인열성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1년 3월 31일.
- _____, “주체시대에 맞는 새로운 혁명연극을 창작할데 대하여”(국립연극단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투쟁회의에서 한 결론), 1972년 11월 7일.
- _____,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창건 47돐에 즈음하여 집필한 논문”, 1991년 10월 10일.

- _____,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 창작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문학예술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64년 12월 10일.
- _____, “혁명적영화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영화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 앞에서 한 연설), 1966년 2월 26일.

3) 평론 및 기타

- “결정서(二)”, 《조선문학》 1953.10호,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53.
- 김만영, “20세기 령마루에서”, <문학신문>, 2000년 10월 10일자.
- 김성우, “붉은기정신이 구현된 우리 소설문학”, 《조선문학》 1997.10호, 문학예술출판사, 1997.
- 김일성,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 1946년 5월 24일.
- _____, “우리의 미술을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혁명적인 미술로 발전시키자”, 1966년 10월 16일.
- _____,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작가, 작곡가, 영화부문일군들과 한 담화), 1960년 11월 27일.
- _____, “혁명주체작품에서의 몇가지 사상미학적문제”, 1967년 1월 21일.
- 김재서, “경제건설은 강성대국 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 『경제연구』 1999년 제2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9.
- <로동신문>, 1986.1.1/ 1991.1.1/ 1996.10.18/ 1997.1.8/ 1997.7.8/ 1998.9.7.
- 리규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민족의 개념에 대한 리해”, <사회과학>, 1986년 2월호, 1986.
- 리성식, <행복의 방아>, 《조선문학》 1998.1호,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8.
- 리정수, <별>, 《조선문학》 1996.9호.
- 박 윤, <생활의 수업>, 《조선문학》 1996.5호.
- 박춘섭, <봄노래>, 《조선문학》 1996.4호.
- 방철립, “위인의 손길 아래 빛나는 선군혁명문학”, 《천리마》 2001.11호, 2001.
- 머릿글 “선군혁명 창작으로 새 세기 사회주의붉은기진군을 고무추동하자”, 《조선문학》 2001.3호.
- 머릿글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있게 체득하기 위한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조선문학》 1992.11호.

문성철, “사랑과 인간문제 -장편소설 《청춘송가》를 읽고-”, 《청년문학》, 1988.7호.

사설 “남조선인민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주체의 문학예술”, <로동신문>, 1989.7.4.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문학작품을 활발히 창작하자”, 《조선문학》 1999.1호.

석남진, <한 녀교원의 사랑>, 《조선문학》 1996.9호.

“위대한 사상은 위대한 시대를 낳는다”, <구국의 소리방송>, 2002.7.21.

“일곱가지 색의 생리적역할”, 《조선문학》 1998.3호.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유훈을 지켜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자”, <로동신문>, 1999.4.15.

정론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강행군 앞으로”, <로동신문>, 1998.2.3.

조근, <녀전사의 길>, 《조선문학》 1996.3호.

“20세기를 빛나게 장식하기 위한 문학작품 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조선문학》, 1999년 3호.

최길상, “새 세기와 선군혁명문학”, 《조선문학》 2001.1호.

최성진, <새벽>, 《조선문학》 1994.2호.

최연경,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전형 창조에 대한 완벽한 이론적 해명”, <문학신문>, 1993.5.7.

_____, “강성대국건설에 헌신분투하는 주인공들의 형상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조선문학》 1998.9호.

최칠남동태관전성호, 정론 “강성대국”, <로동신문>, 2000.8.22.

2. 국내문헌

1) 단행본

내외통신, 『내외통신』 종합판 69호 1998.7.1~9.30, 내외통신사, 1998.

문화체육부, 『김정일과 북한문화예술』, 문화체육부, 1996.

북한연구소편, 『북한총람』, 북한연구소, 1983.

서재진,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분석』, 통일연구원, 2001.

소연방과학아카데미편/ 논장편집부 역, 『미학의 기초』 2권, 논장, 1989.

- 연합뉴스, 『2002년 북한연감』, 주식회사 연합뉴스, 2001.11.
- 유영옥, 『북한의 문예체론』, 홍익재, 2006.
- 윤재근·박상천 공저, 『북한의 현대문학2』, 고려원, 1990.
- 이우영,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민족통일연구원, 1998.
- 이운주, 『경찰학개론』, 경찰대학교, 2003.
- 이춘길, 『김정일 문예관과 북한의 ‘문학예술혁명’정책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90.
- 임순희, 『북한문학의 김정일 ‘형상화’ 연구』, 통일연구원, 2001.
- 이찬행, 『김정일』, 백산서당, 2001.
- 전영선, 『북한의 문학예술 운영체계와 문예이론』, 역락, 2002.
- 통일부 정보분석국, 『북한개요 2000』, 통일부, 1999.
- 통일부, 『2004 북한개요』, 통일부, 2003.12.
- 통합문화연구소, 『김정일 문예론 연구』, 통합문제연구소, 1996.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김정일 문예관과 문예정책의 기본원리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 한상완 외, 『학술정보 교류 방안: 북한의 학술정보 유통현황 및 교류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협회, 2001.9.25.
- 한용원, 『북한연구』, 박영사, 1989.
- 홍정선, 『행정법원론(下)』, 박영사, 1996.

2) 논문 및 기타

- 고유한, “김정일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론”(『안보연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1994.
- 권영민, “월북문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월북문인 연구』, 문학사상사), 1989.
- 김윤영, “김정일 체제의 위기와 위기관리”, 치안정책연구소, 2005.
- _____, “북한가요의 인터넷상 선전투쟁 분석”(『공안논총』 제16권 1호, 공안문제연구소), 2004.
- _____, “북한 단군문학에 관한 연구”(『공안논총』 제14집, 공안문제연구소), 2002.
- _____, “북한문학의 이상화에 관한 소고”(『공안연구』 통권 54집), 1998.

- _____, “북한의 ‘선군혁명문학’에 관한 연구”(『공안연구』 69집), 2001.
- _____, “북한소설의 갈등양상 연구”, 수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_____, “북한의 가요정책과 실상연구”(『공안논총』 제10집), 1998.
- _____, “북한의 ‘수령영생문학’에 관한 연구”(『공안연구』 제78집), 2003.
- _____, “북한의 ‘태양민족문학’ 연구”(『공안논총』 제15집), 2003.
- _____, “최근 북한의 대남투쟁 실태 분석”(『공안연구』 통권60집), 2000.
- 김태철, “북한의 문예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 내외통신사, “문학예술작품의 검열체계”, 1998년 5월 10일자.
- 노재완, “김정일의 문예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북한, 김정일에 각하 호칭사용”, <중앙일보>, 1994년 7월 10일자.
- 문관현, “인터넷매체, 정부에 친북사이트 차단해제 촉구”, <연합뉴스>, 2006.4.26.
- 박철우, “김정일 문예정책의 변화과정과 기본원리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0.
- 서재진, “김정일시대 통치이념의 변화: 주체사상에서 강성대국론으로”(『북한 체제의 현주소』, 통일연구원), 2002.
- 심지연, “북한연구에 대한 역사적 접근”(『북한연구방법론』, 도서출판 한울), 2003.
- 양옥순, “북한 문예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1996.
- 엄경순, “김정일형상문학에 나타난 북한사회의 작동원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연합뉴스>, 2000년 2월 8일자.
- 오양열, “남북한 문예정책의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유동렬, “국내 안보위해운동의 현황과 대책”, 치안정책연구소, 2005.
- 이성걸, “북한의 문예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이우영, “김정일 문예론 연구”(『통일연구논총』 2권 1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이재인, “북한의 문예정책의 고찰”, 경기대학교 논문집, 1997.
- 이찬주, “북한의 문예정책”, 안보문제연구, 1997.
- 전영선, “북한의 문화정책의 전개양상과 최근 문예동향”(『평화연구』 제29집,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2004.12.
- 정주이, “북한문예정책의 변화와 특성”,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4.
- <조선일보>, 2002년 8월 14일.

<중앙일보>, 1998년 6월 29일.

통일부 전문가 간담회 결과보고서, “김정일시대 북한 시문학의 경향”, 1999.1.2.6.

한정미, “북한의 문예정책과 구비문학의 활용 양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황오연, “북한의 문예정책과 남북교류 전망”, 호남대학교 논문집, 1997.

3. 외국 문헌

그네도쉬원 저/ 최철준 역, 『예술론 개요』, 국립출판사, 1956.

만프레드 클림/ 조만영·정재경 역, 『맑스·엔겔스 문학예술론 1』, 돌베개, 1990.

게오르규 루카치/ 김정환 외 역, 『민중문화운동의 실천론』, 화디출판사, 1984.

리차드 E. 팔머/ 李翰雨 역,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88.

徐東晩, “北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體制の成立 1945-1961”, 東京大學大學院總合文化
研究科 國際關係論專攻 博士學位論文, 1995.

소련과학아카데미 편/ 강종수 역, 『현대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전』, 백산서당,
1989.

이나스 램/ 제석봉 역, 『사랑의 심리학』, 분도출판사, 1980.

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김재기 역, 『마르크스-엔겔스 저작선』, 기획출판
거름, 1988.

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김영기 역, 『마르크스 엥겔스의 문학예술론』, 논
장, 1989.

허버트 마르쿠제/ 박종렬 역, 『예술과 혁명』, 풀빛, 1982.

A. Jefferson/ D. Robe/ 차혜숙 역, 『현대문학이론』, 탐구신서, 1986.

P. Bürger, 『미학 이론과 문예학 방법론』, 문학과지성사, 1996.

Tom Bottomore 외/ 임석진 역, 『마르크스 사상사전』, 청아출판사, 1997.

Karl Mannheim, *Ideology and Utopia: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Knowled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2.

Karl Marx, “Ökonomisch-philosophische Manuskripte aus dem Jahre 1844”, In
Marx Engels Werke Band 40(Berlin: Dietz Verlag, 1985).

Karl Marx, *Theories of Surplus value* 1, Moscow, 1975.

4. 인터넷 자료

김명혁, “2006 공동사설 학습”, <전국연합> 자료게시판(<http://www.nadrk.org>),
2006.1.26 검색.

《연합뉴스》, “丁통일 북한 주체사상 변경 가능”(<http://www.chosun.com>), 2003.
10.2 검색.

인터넷 <구국전선>, <http://ndfsk.dyndns.org/kuguk8/ku04.htm>.

<http://dprksearch.net/index.php?cat=33>

http://211.43.199.57/_c21_/home_intro?grpId=iUyK&grpCode=rmaLove.

<http://club.nate.com/jsps/event/caribbean-bay/evet.jsp>.

<http://www.korea-np.co.jp/news/ViewArticle.aspx?ArticleID=1826>.

<http://blog.naver.com/tongilgaury/120004867335>.

<http://terms.naver.com/item.php?d1id=8&docid=41>.

<http://dprksearch.net/index.php?cat=33>.

http://211.43.199.57/_c21_/home_intro?grpId=iUyK&grpCode=rmaLove.

책임연구보고서 2006-16

북한 문학예술정책의 특성에 관한 연구
- 김정일 문예정책을 중심으로 -

2006년 12월 발행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1길 29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